연구보고서 2015-21-06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 · 여가 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강은나 · 김재호 · 황남희 · 김현정 · 손동기 · 배혜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장기요양기관 적정 인력 배치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5(공저)

【공동연구진】
김재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손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21-06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여가 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발 행 일 2015년 12월 31일
저 자 강 은 나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주)범신사
정 가 9,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269-1 93330

발간사

우리나라는 일과 노동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20~40년 일을 해 온 중고령자들에게 여가활동은 익숙하지 않고, 은퇴 이후에 발생하는 여유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은퇴전환기에 있는 50대 혹은 60대는 인생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겪는 세대라 할 수 있다. 자녀의 독립 및 결혼 등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개인적으로는 은퇴로 인한 소득감소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자녀양육 및 근로부담으로부터의 탈피는 오히려 사회적 역할상실과 이어져 인생 후반기에 대한 새로운 역할설정과 이전과는 다소 다른 삶을 시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취약성을 여가를 통해 극복하고자 시작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처해있는 중고령자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은퇴의 상실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노년기에 안착할 수 있기 위해 어떠한 여가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와 함의들이 다양한 정책과 실천 현장에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중고령자의 여가생활과 이를 통한 삶의 전반적인 만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강은나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여러 공동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통계청 시간활용조사 자료를 통해 중고령자 일과 여가시간 변화를 분석하고, 20여개 여가서비스 제공기관 분석을 수행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 황남희 부연구위원과 여가활동의 비용과 금전적 가치추정을 맡아주신 김재호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원외 연구진으로 여가개념과 여가환경변화, 그리고 프랑스 사례분석을 집필해주신 손동기 박사님과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유형을 분석해 주신 김현정 박사님, 그리고 연구전반의 기초자료 생산과 행정 전반을 책임져주신 배혜원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연구 진행과정에서 자문으로 참여해주신 남서울대학교의 이소정 교수님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신현구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원내 자문을 위해 참여해주신 정경희 선임연구위원과 이철선 연구위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제2절 연구 내용 ····· 16

제3절 연구 방법 ····· 20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여가특성 변화 ····· 25

제1절 여가 개념 및 여가환경 변화 ····· 27

제2절 중고령자 여가생활의 전환기적 특성 ····· 38

제3절 중고령자 일과 여가시간 변화 분석 ····· 43

제3장 중고령자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분석 ····· 53

제1절 여가 및 근로현황 ····· 55

제2절 은퇴전환기 일과 여가 특성분석 ····· 84

제3절 여가활동의 경제적 평가 ····· 119

제4절 소결 ····· 136

제4장 중고령자 여가인식 유형 및 사례조사 ····· 141

제1절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분석 ····· 143

제2절 여가서비스 제공기관 사례조사 ····· 182

제5장 해외사례 ····· 197
제1절 독일 ····· 199
제2절 프랑스 ····· 22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39
제1절 요약 및 결론 ····· 241
제2절 정책적 함의 ····· 246
제3절 연구의 한계 ····· 253

참고문헌 ····· 255

부 록 ····· 265
부록 1 중고령자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조사 조사표 ····· 265
부록 2 남성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분석 관련 표본 ····· 284
부록 3 남성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분석 설문지 ····· 289

표 목차

〈표 1- 1〉 여가활동(시간) 구분 ····· 19
〈표 1- 2〉 설문지 구성 ····· 22
〈표 2- 1〉 은퇴 이후 여가활동 참여 변화 ····· 42
〈표 2- 2〉 연령집단별 일-여가시간 변화추이 ····· 44
〈표 2- 3〉 연령집단별 및 경제활동여부별 여가시간 변화추이 ····· 46
〈표 2- 4〉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시간 변화추이 ····· 48
〈표 2- 5〉 경제활동여부별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시간 변화추이 ····· 50
〈표 3- 1〉 응답자의 연령별 일반특성 분포 ····· 57
〈표 3- 2〉 응답자의 일생상활 시간 활용 현황(주중) ····· 59
〈표 3- 3〉 응답자의 일생상활 시간 활용 현황(주말) ····· 59
〈표 3- 4〉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여가활동 중요도 ····· 60
〈표 3- 5〉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여가활동 중요 이유 ····· 61
〈표 3- 6〉 중고령자의 일반특성별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지 여부 ····· 62
〈표 3- 7〉 중고령자의 일반특성별 여가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유(중복응답) ····· 62
〈표 3- 8〉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별 일반적 특성(중복응답) ····· 64
〈표 3- 9〉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별 특성(중복응답) ····· 66
〈표 3-10〉 세부 여가활동 내용 10순위(영역별 1순위 및 2순위 활동 포함) ····· 67
〈표 3-11〉 성별에 따른 세부 여가활동 내용 5순위(영역별 1순위 및 2순위 활동 포함) ····· 68
〈표 3-12〉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개수별 일반적 특성 ····· 69
〈표 3-13〉 여가활동 동반자 유형별 일반적 특성 ····· 70
〈표 3-14〉 세부 여가활동 내용 상위 5순위(영역별 1순위 및 2순위 활동 포함) ····· 72
〈표 3-15〉 여가활동 참여빈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 73
〈표 3-16〉 참여빈도에 따른 세부 활동 상위 5순위(영역별 1순위 및 2순위 활동 포함) ····· 73
〈표 3-17〉 여가활동 지속기간에 따른 일반적 특성 ····· 74
〈표 3-18〉 지속기간에 따른 세부 여가활동 5순위(영역별 1순위 및 2순위 활동 포함) ····· 75
〈표 3-19〉 여가활동 1회 평균 비용 ····· 75

〈표 3-20〉 1회 여가활동 지출비용 구간별 일반적 특성 ····· 76
〈표 3-21〉 세부 여가활동별 1회 여가지출비용 상위 10순위 ····· 77
〈표 3-22〉 중고령자의 희망 여가활동의 특성 ····· 79
〈표 3-23〉 여가특성에 따른 여가만족도 ····· 80
〈표 3-24〉 중고령자의 여가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순위로지스틱 회귀분석) ····· 83
〈표 3-25〉 중고령자의 일반적 특성별 경제활동 실태 ····· 85
〈표 3-26〉 중고령자의 근로활동 참여 형태별 일반적 특성 ····· 87
〈표 3-27〉 경제활동참여자의 일자리 특성 ····· 88
〈표 3-28〉 근로활동 참여형태에 여가즐김 여부 및 즐기지 못하는 이유 ····· 89
〈표 3-29〉 근로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 90
〈표 3-30〉 가교일자리의 근로조건 변화 ····· 91
〈표 3-31〉 성별 및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른 여가시간활용 및 여가만족도 ····· 92
〈표 3-32〉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 93
〈표 3-33〉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 94
〈표 3-34〉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요약 I ····· 95
〈표 3-35〉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요약 II ····· 96
〈표 3-3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 97
〈표 3-37〉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 98
〈표 3-38〉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요약 I ····· 99
〈표 3-39〉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요약 II ····· 100
〈표 3-40〉 경제활동 참여특성과 일-여가시간 활용 ····· 104
〈표 3-41〉 종사 직종에 따른 근로현황 및 일-여가균형 수준 ····· 105
〈표 3-42〉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현황 및 일-여가균형 수준 ····· 106
〈표 3-43〉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현황 및 일-여가균형 수준 ····· 107
〈표 3-44〉 근로특성이 일-여가균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 108
〈표 3-45〉 여가활동 지표 설명 ····· 109
〈표 3-46〉 남성 근로자 여가활동유형의 잠재집단 모델별 적합도 ····· 111
〈표 3-47〉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 ····· 113

〈표 3-48〉 경제활동참여 남성의 여가유형별 특성 ····· 115
〈표 3-49〉 여성 근로자 여가활동유형의 잠재집단 모델별 적합도 ····· 116
〈표 3-50〉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 ····· 117
〈표 3-51〉 경제활동참여 여성의 여가유형별 특성 ····· 118
〈표 3-5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가지출액 ····· 125
〈표 3-5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가지출의 상대빈곤율 분해 ····· 126
〈표 3-54〉 개인특성별 여가지출의 불평등도 분해 ····· 128
〈표 3-55〉 여가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 132
〈표 3-56〉 제시액별 설문 표본개수 및 응답비율 ····· 135
〈표 3-57〉 여가의 금전적 가치추정 결과 ····· 136
〈표 4- 1〉 Q분류에 참여한 P표본 현황 ····· 149
〈표 4- 2〉 요인별 통계치 ····· 152
〈표 4- 3〉 행복추구형 대표문항 ····· 156
〈표 4- 4〉 상실반응형 대표문항 ····· 158
〈표 4- 5〉 요인 1 상위유형: 사회역할 탐색형 대표문항 ····· 161
〈표 4- 6〉 요인 1 하위유형: 은둔자형 대표문항 ····· 163
〈표 4- 7〉 요인 2 상위유형: 일중심형 대표문항 ····· 165
〈표 4- 8〉 요인 2 하위유형: 여가적응형 대표문항 ····· 167
〈표 4- 9〉 요인 3 상위유형: 부부활동형 대표문항 ····· 170
〈표 4-10〉 요인 3 하위유형: 개인적 여가추구형 대표문항 ····· 172
〈표 4-11〉 요인 4 상위유형: 단체활동형 대표문항 ····· 174
〈표 4-12〉 요인 4 하위유형: 단체부적응형 대표문항 ····· 176
〈표 4-13〉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별 특성 ····· 179
〈표 4-14〉 여가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및 기관별 주요 특성 요약 ····· 184
〈표 5- 1〉 시니어 플러스 카드 프로그램 예시 ····· 229
〈표 5- 2〉 2010년 프랑스의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 235
〈표 6- 1〉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여가특성 ····· 244

부표 목차

〈부표 2-1〉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에 관한 Q표본 ····· 284
〈부표 2-2〉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에 관한 P표본 특징 ····· 287

그림 목차

[그림 1-1] 생애전환기 중고령자의 연령별 주요지표 ····· 16
[그림 2-1] 연령집단별 일-여가시간 구성 변화추이 ····· 45
[그림 3-1]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실태(영역별 1순위, 중복응답) ····· 63
[그림 3-2] 여가활동 동반자 유형별 여가활동 참여개수 ····· 71
[그림 3-3]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형태 ····· 86
[그림 3-4] 가교일자리의 근로소득 및 근로시간 변화 ····· 91
[그림 3-5] 남성 은퇴자의 주중 일상생활 시간활용 변화 ····· 101
[그림 3-6] 여성 은퇴자의 주중 일상생활 시간활용 변화 ····· 102
[그림 3-7] 적극적 여가 참여자의 월평균 여가지출비용의 밀도함수 ····· 122
[그림 4-1] Q방법론 연구 절차 ····· 145
[그림 4-2] Q분류 분포도 ····· 148
[그림 4-3]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유형 ····· 153

Abstract

Leisure and work in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eisure behavior,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isure behavior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people in retirement transitions and to suggest the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eisure life. This research focuses on people in retirement transitions, so subjects of the study are people aged 50-69 years.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literature review, a survey,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are taken.

This study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the concepts of leisure and changes of leisure time use among people aged 50-69. The second part pres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about the leisure and the retirement transition. The third part shows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men in their fifties and sixties and key stakeholders who work at leisure service centers. The fourth part reviews the oversea policies, especially German and France, about leisure and cultural programs. Based on the findings, the last part makes suggestions for the leisure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leisure life of people in retirement transitions.

요 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0세에서 2020년에는 84.3세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약 25년을 무엇을 하며 여생을 보낼 것인가가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속성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대부분의 중고령자들은 자녀의 학업이나 취업, 결혼 등과 같은 자녀돌봄에 대한 역할과 노동시장에서의 근로활동의 역할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들 역할 비중의 급격한 변화 또한 경험하게 됨.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가는 노년기를 대비하고 은퇴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통한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고령자 대상 여가정책은 노인복지정책 혹은 문화여가정책에서 부차적인 영역으로 여가에 대한 중요성과 지원규모는 크지 않은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 특성 및 일과 여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여가를 통한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활기차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사전적 여가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와 함께 본 연구 범위 및 여가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연구대상의 범위는 도시지역인 광역시 및 중소도시의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50세에서 69세까지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의 범위는 자유시간에 '단순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

가. 양적연구 결과

1) 여가활동의 일반적 현황

□ 여가활동의 내용으로는 운동(걷기·산책, 등산) 비중이 67.9%로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함.

○ 세부여가활동 내용으로는 걷기·산책(41.7%), 등산(33.0%), 외식(31.9%), 영화(29.3%), 스포츠관람(25.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가활동 개수는 전체 평균 1.8개(0~6개)로, 평균 1~3개의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이 약 82% 로 나타남. 또한 여가활동 비참여자는 11.9%로 여성, 60대, 저학력, 저소득, 취업자, 1인가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여가활동의 특성으로는 혼자만 하는 집단은 19.9%, 가족 28.3%, 친구·동료 25.2%, 단체모임 5.3%, 복수응답자는 21.2%로 나타남. 참여

빈도는 주1회 이상 참여자 76.8%, 월1~3회 17.7%, 년 1~3회 5.5%로 나타남.

○ 여가비용은 1회 평균 비용 약 28천원으로, 여가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도 14.5%임.

□ 여가만족도 결정요인은 근로여부, 여가활동의 종류, 동반자, 참여빈도, 여가비용 등으로 나타남.

○ 근로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여가만족이 낮음.

○ 여가활동 종류에 따라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발견됨. 스포츠관람과 오락활동은 여가만족 수준을 맞추며, 문화예술참여, 운동, 자원봉사활동은 여가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문화공연관람, 관광, 학습은 여가만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혼자보다는 타인과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주1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1회 지출 여가비용이 높을수록 여가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은퇴전환기 일-여가 특성

□ 은퇴 이후 남성과 여성의 적응상의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일-여가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종, 근로시간 등으로 나타남.

○ 은퇴 남성은 주로 휴식이나 TV 시청으로 늘어난 자유시간을 보내며, 은퇴기간이 길어질수록 여가시간과 휴식시간의 격차는 커짐. 반면, 은퇴 여성은 가사·돌봄시간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은퇴 이후 5년을 기점으로 적극적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휴식시간과 가사·돌봄시간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여성보다는 남성의 일-여가 균형도가 높고,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여가균형도 증가함.

○ 직종에서는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기계장치조립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종사자의 여가환경이 낮음. 이들 직종에 속한 응답자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해당되며,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전체평균보다 긴 직종이 일-여가 균형이 낮음.

○ 근무시간은 근로자의 여가시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인이며, 가구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도 여가시간의 수준을 결정함.

3) 근로활동 참가자의 여가유형 분석

□ 남성 경제활동참여자의 여가유형은 소모적다양형(11.2%), 안정적다양형(4.0%), 개인중심운동형(34.7%), 가족중심관광형(4.0%), 자기만족운동형(46.1%)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여가활동의 개수와 관계망 등을 볼 때 여가취약계층은 개인중심운동형과 자기만족운동형으로 전체 남성 근로자의 약 80%에 이름.

○ 소모적 다양형의 경우, 여가활동 개수나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나 여가만족도나 일-여가 균형도는 보통수준으로 안정적 다양형에 비해 여가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음.

□ 여성 경제활동참여자의 여가유형은 상대적다양형(14.4%), 여가취

약형(49.1%), 운동·오락형(36.5%)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상대적다양형은 평균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지만 가구소득도 높음.

○ 여가취약형은 상대적다양형과 대조적으로 평균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음

4) 여가의 금전적 가치평가

□ 중위지출액의 50%에 해당하는 여가지출의 상대적 빈곤선은 월평균 5만원 수준으로 22.5%가 5만원 미만의 여가지출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남.

○ 여가비용지출의 상대적 빈곤계층 및 불평등수준이 높은 집단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임. 소득분위에서는 저소득층이 여가비용지출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았지만, 여가비용지출의 불평등도는 중상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조건부가치분석(Contingent Valuation Analysis)을 활용하여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WTP) 또는 수용의사액(WTA)을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였음.

○ 제시값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장했을 때 여가의 가치는 7.82만원에서 10.45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1회 여가지출액이 3.8만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응답자는 최대 10.45만원의 가치를 두는 여가에 3.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합리적으로 여가를 향유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나. 질적 연구결과

□ 남성중고령자의 여가에 대한 인식 유형은 퇴직에 대한 태도를 근간으로 하여 사회역할, 경제력, 가족관계, 소속감에 대한 인식을 핵심요인으로 8개의 서로 다른 인식 유형을 형성함.

○ '사회역할'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회역할 탐색형과 은둔자형으로, '경제력'에 따라 일중심형과 여가적응형으로, '가족관계'에 따라 부부활동형과 개인적 여가추구형, '소속감'에 따라 단체활동형과 단체부적응형으로 유형화 됨.

□ 여가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중고령자 대상 여가서비스 제공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고령자 대상의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지역단위 시설공유 및 세대교류 지원, 주말 및 야간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회참여 및 소득창출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기관 특성을 발견함.

3. 결론 및 시사점

□ 여가활동의 종류 및 여가관계망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여가정책 설계 및 정책적 지원을 제시함. 운동중심의 여가패턴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취미, 학습, 자원봉사 등의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공익, 비영리교육 등의 목적으로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 상실 보완이 필요함.

□ 개별적 성향과 특성에 맞는 중고령자 대상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의 개발 및 지원을 정책과제로 도출함. 중고령자의 여가수준을

진단하고 적절한 여가활동을 제시해주는 도구개발, 이를 탐색할 수 있는 상담과 여가 교육을 통해 여가활동의 패턴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요구됨. 또한, 중고령자가 부부 또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함.

□ 여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시함. 여가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중고령자도 12%에 이르며,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 내에서도 여가비용지출의 불평등과 여가의 질적 수준도 상이하게 나타남. 따라서 여가 취약계층에 대한 여가생활화 지원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건강증진이나 흥미 위주의 개인적 여가활동에서 전문성 습득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은퇴과정과 경제활동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여가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함. 성별과 종사상 지위, 시간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여가 프로그램과 지원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따라서 직장 근로자 및 비임금 근로자 등 문화적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여가 바우처 및 나눔 사업을 정책방안으로 도출하였음.

□ 경제활동 참여자의 여가시간 제약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참여자를 위한 주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수요중심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여가활동의 활로를 열어주는 풍성한 기회제공을 제시함. 이와 함께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주요용어: 은퇴전환기, 중고령자, 여가활동, 경제활동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1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평균수명의 증가로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0세에서 2010년 80.8세, 그리고 2020년에는 84.3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1).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약 25년을 무엇을 하며 여생을 보낼 것인가가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새로운 삶의 국면에 접어드는 시기에서의 적응은 노년기의 삶의 질과 맞닿아있다. 여가는 은퇴전환기 그리고 노년기의 부정적인 인생사건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며(Nimrod, 2007; Nimrod et al., 2008; 2009), 은퇴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길어진 노년기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준비없이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상당수의 노인이 혼자서 TV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의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여가활동으로 노년을 보내고 있다.[1]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비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과잉의 여가시간에(이소정 외, 2010, p.71) 무위무용의 불가피형

1)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정경희 외, 2014),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율은 휴식 90.2%, 취미오락 42.5%, 사회활동 및 기타활동 40.1%, 관광 29.7%, 스포츠참여 10.2%, 문화예술참여 5.8%, 스포츠관람 1.2%, 문화예술관람 0.9%임.

여가활동(지은정 외, 2012, p.16)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통한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고령자 대상 여가정책은 노인복지정책 혹은 문화여가정책에서 부차적인 영역으로 여가에 대한 중요성과 지원규모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다가올 노년기를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서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생활 속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여가행태는 어떠하며, 현재의 여가생활이 향후 성공적인 노년의 여가생활로 이어질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나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현재 예비 노인층은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대로 여겨지고 있다. 즉, 교육수준도 높고, 건강하며, 기존 노인세대와는 달리 여가문화에 대한 경험도 많아 이들이 노인세대로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노년문화가 형성될 것이며, 이에 예비 노년층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 여가, 대인관계, 건강 등의 영역에서 노후준비도를 측정한 결과, 여가영역에 대한 준비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삼식 외, 2013), 이는 예비 노년층의 여가생활 수준 역시 열악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수 중고령자는 자녀들의 학업이나 취업, 결혼 등과 같은 자녀돌봄에 대한 역할이 남아있으며, 또한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거나 조기은퇴나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노년층과 달리 근로활동의 역할이 남아있다. 비록 중고령자의 삶에 있어 자녀돌봄이나 근로활동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년층에 비해서는 가족과 사회적 역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수준은 어떠하며, 이들이 부모로서의

주된 역할과 경제활동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즉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 늘어나는 자유시간이 건강한 여가활동으로 전환될지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늦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할 때, 중고령자의 근로활동과 여가활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한 여가지원정책 수립 또한 요구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14)에 의하면, 2014년 6월 현재 5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76.5%, 60~64세 61.6%, 65세 이상은 34.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조기퇴직으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의 비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의 완전한 은퇴가 아닌 점진적 은퇴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이삼식 외, 2014). 또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가교일자리를 통해 완전 은퇴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도 약 30%에 이르고 있다(정경희 외, 2014). 즉,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상대적으로 긴 은퇴 전환기를 보내고 있으며, 노후를 보다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에 근로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보다는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활동과 여가활동을 조화시켜 근로중심의 생활패턴에서 건강한 여가중심의 생활패턴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관련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에 대한 접근은 분절적인 구조 안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와의 연속적인 관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퇴 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생애주기별 여가 특성과 일과 여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노년의 삶을 의미 있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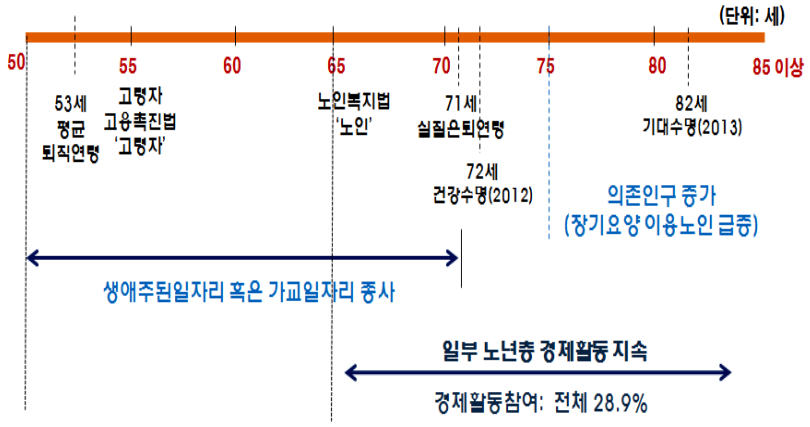
공적인 노년기 진입을 위한 사전적 여가생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생활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중고령자의 근로활동과 여가활동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1. 연구 범위

먼저 연구대상의 범위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만 50세에서 69세까지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 연령이 50대 초반이고, 실질은퇴연령이 남성 72.9세, 여성 70.6세인 점을 감안하여(OECD, 2015) 은퇴전환기를 만 50세부터 만 69세로 설정하였다.

〔그림 1-1〕 생애전환기 중고령자의 주요 연령별 주요지표



다음으로 지역범위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문화여가시설의 격차,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차이, 지역간 여가경험 혹은 여가활동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범위를 도시지역(광역시 및 중소도시의 '동'부)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 특성별 중고령자(50~79세)의 경제활동 특성을 서울, 광역시, 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임금근로자가 63.9%, 임시직이 40.0%인 반면, 광역시 지역은 임금 근로자가 39.4%, 상용직이 39.4%이고, 도 지역은 임금 근로자가 26.8%, 일용직이 35.9%로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2]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시, 고흥군 세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와 농촌 노인의 여가유형, 장소, 목적, 불만족 이유 등 여가활동 특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천, 2011). 특히, 심리적 여가활동 만족도는 고흥, 서울, 광주 순이었으나 실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역순으로 나타나 여가와 일상생활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소일을 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 김희년(2005)의 연구에서 도농이 혼합되어있는 김해지역을 시와 읍 지역으로 구분하여 여가생활 실태와 욕구를 조여사한 결과, 여가제약요건에 있어서 농촌노인은 신체적 약화(29.5%), 여가시설 부족(25.0%), 재정적 어려움(15.9%) 순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노인은 재정적 어려움(27.5%), 없음(26.1%), 신체적 약화(17.4%) 순으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위와 같이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간의 일과 여가, 그리고 지역환경의 차이 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50대와 60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과 여가의 현황과 두 영역간의 관련성, 그리고 활기찬 노후를 견인할 수 있는 여가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2011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원자료 재분석 결과임.

2. 여가 개념 정의

여가에 대한 개념은 주로 시간 기준을 적용하여 설명되어 왔으며, 활동이나 의도 또는 목적 기준으로 적용하여 다차원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먼저, 시간 기준을 적용한 여가 개념을 살펴보면, 여가는 24시간 중 노동, 수면, 기타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을 제외한 잉여시간(Fairchild, 1944) 또는 일과 생존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남는 잔여시간(Parker, 1976)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근로활동, 개인유지, 가사와 돌봄 등의 의무적인 활동을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활동을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여가활동의 속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여가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참여하는 활동(Neulinger, 1981) 또는 노동, 가족, 사회의 의무에서 탈피하여 휴식, 기분전환, 학습, 사회참여 등과 같은 활동(Dumazedier, 1967) 등으로 제시되면서 의무성이나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Dumazedier(1980)는 시간적 및 내용의 속성에 따른 기존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여 여가시간은 남는 시간, 즉 자유시간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을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Dumazedier(1980)는 여가를 ① 의무에서 벗어난 활동, ②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동기가 없는 활동, ③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 ④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소정 외, 2010 재인용, p.70).

본 연구에서는 여가를 자유 시간에 '단순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TV를 시청하더라도 남는 시간에 TV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여가활동이 아니지만, 자신이 관심있는 스포츠 경기나 여행, 요리 프로그램을 챙겨보는 활동은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다

〈표 1-1〉 여가활동(시간) 구분

수면 및 개인유지 활동	의무 활동	광의의 여가활동	
		자유·휴식활동	여가활동 (본 연구의 주된 관심영역)
수면, 세면, 식사 등	가사, 양육, 돌봄 등	낮잠, 가만히 있기, TV 시청 등	영화보기, 등산, 악기배우기, 자원봉사활동, 친구와 쇼핑 등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중고령자 여가문화의 개념, 여가인식의 가치변화, 은퇴전환기의 일과 여가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생애주기별 일상생활 시간활용의 변화를 파악하여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에 대한 시간배분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 특성과 함께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만 50~69세)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실태와 일과 여가활동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 중고령자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현황, 은퇴과정 및 근로특성에 따른 여가특성, 여가활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등을 포함하였다.

셋째, 문화여가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남성 중고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가의 개념과 일과의 관련성, 그리고 여가인식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넷째, 공급 측면에서 중고령자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중고령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제공기관별 프로그램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중고령자 대상의 문화여가정책과

사업들을 살펴보았다. 독일과 프랑스는 같은 유럽 대륙에 속하면서 고령화 수준이 유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의 문화여가 특성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국가 모두 늘어나는 중고령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고령자들의 자원봉사와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여가력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선진 국가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전반적인 여가수준을 증진시키고,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검토와 이차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Q 방법론, 개별 및 초점집단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1. 문헌 검토 및 이차 데이터 분석

중고령자의 여가 개념정의, 문화적 복지 등에 관한 문헌검토 및 중고령자의 여가생활과 여가욕구,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와의 관련성, 여가증진 방안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5년간의 중고령자 일상생활 및 일과 여가시간 배분 변화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가. 설문지 구성

설문조사에 앞서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인식과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개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전 인터뷰 대상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50대부터 70대 초반까지의 중고령자 8명으로 남성 4명과 여성 4명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하였다.

사전 인터뷰 결과 및 기존 여가 문헌을 기반으로 은퇴전환기 중고령자 대상 설문지를 일차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여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총 8명으로부터 설문지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내부연구진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나. 설문조사 실시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의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50세에서 69세 중고령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여가활동 기초현황, 과거 및 현재 경제활동 현황,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는 2015년 8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2,508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1-2〉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A.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가구원수 등
B. 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	사회적 관계(만남, 연락) 정도, 건강상태, 가구 총소득, 주관적 경제인식, 수급여부, 용돈 등
C. 여가활동	하루일과(주중, 주말), 여가중요성, 여가활동 실태, 희망여가활동, 여가활동의 가치 등
D. 근로활동	현재 및 과거 일자리 현황, 일-여가 균형, 퇴직 전과 퇴직 후 시간활용 변화(최근 2년내 은퇴자 대상)

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및 기술분석, 집단간 차이분석, 다중회귀분석, 순위로지스틱분석, 잠재집단분석, 토빗분석과 분위회귀분석, 조건부가치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일반 사항과 여가 및 근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기술분석,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가특성이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순위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여가지출의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여가비용의 형평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가비용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근로소득 대비 여가의 상대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1.0, STATA 11.0, 그리고 Mplus 7.31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3. 질적 조사방법

가. Q 방법론

은퇴전환기에 있는 인구 집단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적 역할 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를 심하게 겪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이나 일과 여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전환기에 있는 남성의 나이듦과 여가인식과 일과의 관련성 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목적표집과 스노우볼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50~60대 남성 50여명을 대상으로 은퇴전환기 남성노인의 여가인식, 일과 여가와의 관계 등을 기초로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진행은 먼저 중고령자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Q모집단을 구축하여 확보한 200~300여개 진술문에서 P표본 68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중고령자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Q분류 작업(진술문별 우선순위 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QUANL P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Q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가 유형 도출 및 각 유형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질적 조사는 2015년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되었다.

나.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중고령자 여가서비스 제공기관 사례연구를 위해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평생학습센터, 종교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관의 주요 특성과 프로그램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22

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전국의 총 20개 기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4. 해외사례분석

해외 사례는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문화여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프랑스는 최근 개인적 여가에서 사회적 여가지원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독일은 중고령자의 활기찬 노후 패러다임에 맞춰 노년기의 활동성과 건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동지원을 강화하고, 중고령자 문화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범위와 방향성 확보,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과 조사방법, 사례연구 방향성과 조사범위, 연구결과의 타당성, 정책적 함의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여가학,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 그리고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장 및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여가특성 변화

제1절 여가 개념 및 여가환경 변화
제2절 중고령자 여가생활의 전환기적 특성
제3절 중고령자 일과 여가시간 변화 분석

2 이론적 논의 및 여가특성 변화

제1절 여가 개념 및 여가환경 변화

1. 문화복지는 왜 중요한가?

복지사회란 정부가 제도화한 복지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욕구를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일컫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 개발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기회 균등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간적인 구현을 중시하는 사회로서 문화복지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Rudolf Huber(1958)는 문화복지를 문화기본권으로 보고, 인간의 자유, 평등, 존엄성과 마찬가지로 문화 기본권 역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했다. 한편, 문화권에 대해서 UN(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7)과 UNESCO(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rticle 5)[3]에서는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와 같이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규약하고 있다. 문화권(right to culture)[4]은 노동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인간의 존엄성 혹은 시민권의 실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5] 즉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측면

3) 유네스코가 주도한 문화적 권리에 대한 것은 이동연(2008, p.242)의 연구 참고 가능.
4) 본 연구에서 문화권은 문화 전체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했기 때문에 문화에만 한정되는 문제로 설정하고, 문화영역들에 한정된 권리로써의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와는 차별화된 문화권의 포괄적 정의로서 '문화에 대한 권리(Right to Culture)'를 문화권이라고 칭하고자 함.

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김기곤, 2011, p.211)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노동권, 여가권, 사회보장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권을 통해서 개인은 문화를 통한 삶을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6] 같은 맥락에서 Huber(1958)는 문화국가의 개념을 시민계급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봤다. 즉,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확립되게 함으로써,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존중하며 올바른 문화이념을 정립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정갑영·장현섭, 1995).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문화권은 정책적·실천적으로 문화접근과 참여를 보장 받게 된다.

한편 Huber(1958)는 문화국가의 개념을 국가적 정책으로 보장하고 자연스럽게 문화로 형성되는 것을 구분했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 문화를 실현하는 것일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통제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문화국가의 개념에서 중시하는 것은 국가가 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고 간섭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은 복지사회의 정부개입 배제의 논리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발전을 위한 국제 문화정책회의

5) 이성환(2010)은 '국가는 국가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문화권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권'으로 인식함으로써 문화권 보장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Halina Niec(2000)은 문화권에 대해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권리이며 인권의 구체적인 실천영역'이라고 정의함. 강내희(2000)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 국가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노명우(2006)는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질 권리'라고 정의함.

6) 197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문화생활에 대한 일반대중의 참여 및 공헌에 관한 권고'에서는 문화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평등성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문화적 가치와 문화재를 즐기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고명석, 2011, p.8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7] 에서 채택된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행동계획(Action Plan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8]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실현을 위해서 문화정책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 문화정책은 국가개발전략의 주요 구성요인이다(Cultural policy is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development strategy).
- 창의성 및 대중의 문화생활을 증진시켜야 한다(Promote creativity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 유형·무형 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문화산업도 발전시켜야 한다(Reinforce policy and practice to safeguard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nd promote cultural industries).
- 정보화 사회에서 또는 그에 대비해서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Promote cultural and linguisitic diversity in and for the information society).
- 문화적인 발전을 위해 가능한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Make mor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for cultural development).

---

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http://unesdoc.unesco.org/images/0011/001139/113935eo.pdf(2015년 5월 27일 검색)
8) 'Action Plan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http://www.unesco.org/cpp/uk/declarations/cultural.pdf(2015년 5월 27일 검색)

이와 같은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진화와 함께 문화복지에 대한 영역도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문화복지는 좁은 의미에서는 문화적 결함을 가진 문화적 약자나 문화적 낙오자를 예방·치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상의 요구나 문화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문화적 환경을 발전시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선순환적인 연결고리를 통해 사회 전체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정갑영·장현섭, 1995).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은 사회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문화복지'라는 말은 1980년대 이후 '국민의 삶의 질 증진'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용어가 오늘날에 이르러 점차 사회적·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9] 그러나 문화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란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은 사회적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문화권은 문화소비자의 차별 축소나 문화 소외자들에 대한 문화적 격차 해소와 같은 협소한 의미의 문화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광현(2003)은 한국의 문화복지정책은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적 복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문화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문화정책이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오늘날 문화적 종다양성의 파괴, 노동환경의 유연화, 문화의 상업화, 삶의 여정의 변화나 불안정화 등 전반적인 사회환경이 변화되면서 문화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요구가 사회 전반의 계

9) 서우식·양효석(2013)은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복지라는 한국적 용어는 처음부터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있음을 밝힘.

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한국의 문화복지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시책과 과정, 관련 제도"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에 도래했다(양혜원·김혜인, 2012, p.159). 따라서 "문화복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제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통합, 혁신 유발, 문화시민육성을 이루어내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양혜원, 2013, p.15). 이에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의 관점에서 문화복지는 세대내 또는 세대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남을 돕는 것을 자아실현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통합 기제로써의 가치와 의미가 크다.

2. '여가문화'란 무엇인가?

가. 여가 개념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유급휴가나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단순한 휴식(la détente)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즐거움(plaisirs)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le droit aux loisirs)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10]

10)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2004년 '주 40시간 노동', 프랑스의 경우는 1968년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주 40시간 노동), 유급휴가, 파업기간 임금지급 등 노동자들에게 기념비적인 합의인 그르넬 협약(Accord de Grenelle), 그리고 1999년 오브리(Loi Aubry) 법이라 불리는 '주 35시간 노동' 등과 같은 입법을 통해서 개인이 노동에서 벗어나 좀

여가문화의 발전은 현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평균수명의 증가, 은퇴 이후 노후 시간의 증가, 실업률의 증가, 늦은 노동시장의 진입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시간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여가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Kaplan(1960)과 Degrazia(1962)는 '여가' 정의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Dumazedier(1962)는 산업사회에서 여가의 다양한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반여가(semi-loisir)'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이라는 기존의 정의에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하는 생산' 개념을 여가활동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er(1972)와 Tunstall(1962)은 여가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가를 정의하고자 했다. Rojek(1985)은 자본주의와 여가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여가를 정의했다. Veblen(1912)은 여가와 사회계급을 통해서 여가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여가에 대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여가정의'에 대한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Dumazedier(1962, p.16)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며 여가정의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 여가는 근본적으로 매우 불명확한 현실이다. 여가는 다양한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Le loisir est une réalité fondamentalement ambiguë. Il a des visages multiples et contradictoires. 'Vers une civilisation du loisir ?')

더 많은 자유 시간을 확보함. 또한, 이를 통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제도화를 발전시켜옴.

일반적으로 여가(餘暇)라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 혹은 겨를'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가를 흔히 '자유시간'과 같은 의미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가족의 의무나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시간 동안 이뤄지는 활동을 '여가활동'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Dumazedier(1962)는 여가의 특성으로 자유(Caractère libératoire), 비경제성(Caractère désintéressé), 쾌락(Caractère hédoniste), 개인적 특성(Caractère personnel)으로 제시하였다. 즉, 여가는 노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강제성이나 의무성이 없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에 가까워질수록 가정적 의무(obligation domestique)나 사회적·경제적 의무(obligation soico-économique)에서 점점 벗어나거나 완전히 벗어난 인생의 시기로 중고령자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이 설계해야 하는 '자유시간'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여가의 정의를 적용하면 여가는 개인적인 유지를 위한 수면, 식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시간을 모두 여가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시간의 개념으로 여가를 정의 할 때는 자유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다. 노동시간과 자유시간 구분의 모호성, 손자, 손녀와 놀아주는 할머니의 자유시간은 의무시간인지 자유시간인지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유시간의 경계는 불명확하다. De Coster(1994)는 그의 저서 '노동의 사회학 개론(Traité de sociologie du travail)'에서 '노동 외 시간'과 자유시간의 혼동을 지적한 바 있다. Friedmann(1962)도 자유시간이 가족, 가사, 교육, 직업 관련 등으로 인해 수시로 침해를 받는다고 지적을 했다. Anderson(1962)은 '모든 여가시간은 자유시간이지만, 모든 자유시간은 여가시간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여가시간과 자유시간을 구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를 정의함에 있어서 자유시간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개인의 여가동기이다. 즉 자유로운 시간에 개인이 선택한 활동의 목적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가활동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휴식을 하고 싶은 동기, 놀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동기,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동기, 사회적 관계를 유지·확대하고 싶은 동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가동기는 개인이 원하는 여가욕구에 따라 기인한다. 즉 여가활동은 개인의 동기와 여가욕구를 통해서 일상에서 실천되는 휴식, 즐거움, 대인관계(사교활동), 자기개발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를 자유시간의 활용에 있어서 '단순히 무엇을 하는 것이(餘暇)' 아니라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如可)'을 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나. 한국 여가환경의 변화

여가는 물리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급휴가 제도의 발달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가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러한 개인의 여가에 대한 의미부여나 가치판단은 사회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노동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일을 통해서 개인이 얻는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낮다. 반면 여가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물리적인 노동시간 보다는 노동의 질을 중요시하기에 여가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높다. 즉 여가는 현재 어떤 사회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사회문화 속에서 살아 왔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문화의 동양적 특성을 통해서 한국의 세대 간 사회문화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흔히 우리들은 영어의 'Culture'를 문화의 한국어 표기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의 '문화(文化)'는 서양의 'Culture'와는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모든 세대에게 적용하긴 힘들지만 적어도 한국의 노인세대들에게는 적용이 가능하다. 동양의 문화는 문치교화(文治敎化)라는 말의 줄임말로 '글로써 다스리고, 가르쳐서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때문에 동양에서 개인에게 문화는 교육 받은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개인적인 '문화 특질(cultural trait)' 혹은 '하위문화(subculture)'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 한편, 'Culture'는 'Cultivate' 또는 'Cult'를 일컫는 것으로, 따라서 'Cult'는 사회화 과정에서 배우고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동양적 문화의 개념과 비슷하다. 반면 'Cultivate'는 '생성하다'라는 의미로 개인의 문화적 특질이 사회적으로 용이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양의 '문화'와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노인들은 노동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과 의미가 매우 낮은 세대문화(Generation culture)의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한국 노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보다는 사회적 인식이나 평가를 매우 중요시한다. 이는 여가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된 오늘날에도 한국 노인들에게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된다. 이들에게 자유시간은 어쩌면 비생산적 의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유시간을 활용하려는 적극성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 노인들의 세대문화는 주요한 여가제약 요인으로 볼 수 있다.[11] 최석호(2005)는 한국의 여가문화 변화를 '강제된 여가', '민주적 여가', 그리고 '시장적 여가' 세 단계로 구분했는데 한국 노인들은 '강제된 여가문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노인세대의 문화적 특징 때문에 한국 노인들은 긴 노후를 보내면서 주어진 자유시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명희(2008)는 노년기의

11)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제약 요인으로 건강상의 이유, 경제적인 이유, 동반자 부족의 이유, 여가경험 부족,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음(윤소영 ·차경욱, 2004.; 박흥신, 2003).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역할상실, 고독 및 소외문제, 과도하게 주어진 자유시간 문제 등 개인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사회적 문제화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코호트)는 그들의 전 세대보다는 비교적 여가에 대한 인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문화를 갖고 있다. 1980~90년대 한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기를 이끌어온 세대로 비교적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 1980년 이후 '민주적 여가'의 시대를 거치면서 여가의 경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로 인한 긴 노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는 아니다. 이들은 노년기에도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높고, 노동에 대한 의욕도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1960년대 대가족 내에서 성장하고, 1970년대 핵가족 문화를 경험한 세대이다. 즉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 세대와 후 세대의 문화 사이에서 '낀 세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재편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을 당연시 하는 동시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된다(방하남 외, 2010). 이로 인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심리적으로는 여가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높을지라도 여가실천에는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결국 한국의 노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여가에 대한 상이한 문화를 갖고 있지만 노년세대는 세대문화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여가실천에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는 노년기에 해당하는

생애단계별 환경적 요소들과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문화원 실버 프로그램 지원, 노인대상 사회문화 예술교육,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복지관광,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을 해오고 있다(윤소영 외, 2009).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후가 길어지는 가운데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관련한 정책들은 현 노인세대의 여가문화에는 큰 무리가 없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 노인세대는 앞서 언급했듯이 '강요된 여가' 문화세대로 여가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부여나 동기부여가 낮아 주어진 여가환경에 개인이 적응하거나 수용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여가 실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여가실천에 대한 욕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욕구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하드웨어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문화여가프로그램의 여가정책공급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베이비붐세대의 다양한 문화향유 취향, 개성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공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공공문화공간의 확보라기보다는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단순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을 통한 노동참여 혹은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욕구도 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생애 후반기에 노동참여의 단절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면 자유시간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어진 개인의 자유시간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사회가 함께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 매우 중요해졌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여

가정책은 이러한 수요를 파악하고 실천 단계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즉, 공공문화정책은 하나의 결과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다다를 수 있는 과정에서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생애주기별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 여가정책의 대상은 주로 청소년, 노인 혹은 취약계층에 집중이 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어린 시절에 여가를 경험을 했더라도 성인기에는 여가활동의 단절이 발생한다. 이러한 성인기를 보낸 이후 노년기에 들어서 갑자기 여가활동을 스스로 즐기는 문화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쳐 학습, 일, 여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통한 여가활동 실천에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곧 주어질 자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활동을 하는 생애단계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객체 또는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중고령자 여가생활의 전환기적 특성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 혹은 베이비붐 세대의 일과 여가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소정 외(2010)의 연구에서는 신노년층의 일과 여가를 통합적인 구조 안에서 두 영역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기 보다는 병렬적인 구조에서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은퇴전환기 특성인 근로활동 특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계층에 따른 여가 격차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직업 변수를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변수 중의 하나로 보고 직종에 따른 여가격차를 분석하였다(남은영·최유정, 2008). 연구 결과,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준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고, 판매서비스직과 생산·기능·노무직의 여가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생애전환기 중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활동과 관련한 변수 중에서 직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나 직종변화, 그리고 근로시간 변화 등은 다루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은퇴전환기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인생단계별 운동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령을 기반으로 여성의 인생사건과 신체활동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rown et al., 2009). 이들 연구에서는 청년층(22~27세), 중년층(51~56세), 노년층(73~78세) 등 세 개의 코호트 집단에 속한 호주 여성을 대상으로 3년의 차이를 두고 이 기간에 발생한 특별한 인생사건과 운동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기의 결혼과 자녀출산, 그리고 노년기 전반에 거쳐 여성의 신체활동은 감소하지만, 은퇴 사건과 중년기의 배우자 죽음은 운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과 신체활동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Mein과 동료들(2005)은 45세에서 69세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시점에서 지난 4주간 스포츠, 정원관리, 가사일, 그리고 개인활동(예: 그림, 장식)을 포함한 신체활동을 수행한 총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3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신체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고, 시간제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집단은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 수준(grades)도 신체활동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숙련 직종에 속한 근로자의 신체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고숙련 직종에 속한 근로자일수록 스포츠 활동과 정원관리 활동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과 여가활동의 관련성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일과 여가를 단순히 선형적인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armichael과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 경제활동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소 운동을 덜 하고, 은퇴자가 비은퇴자에 비해 최소 주1회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근로활동은 시간할당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시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활동을 통한 수입은 여가활동 비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여가활동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여가시간 활용의 변화를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과 휴식활동(sedentary behavior, 수면, 앉아있거나 누워있기, TV 보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근로활동과 여가활동의 관계는 성별, 퇴직 전 직종 등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o퇴는 신체활동 증가를 가져오며, 은퇴시점에 신체활동 수와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동시에 TV 시청 시간의 증가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은퇴하고 단기간 동안은 신체활동이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활동은 감소하게 되어 은퇴효과는 초기 몇 년만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Slingerland와 동료들(2007)의 연구에서는 은퇴가 인생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의 시기이지만 노년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전

제하에 은퇴와 신체활동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신체활동은 일과 관련한 이동(transportation), 스포츠 활동, 스포츠는 아니지만 신체활동과 관련한 여가활동을 의미한다. 은퇴는 일과 관련한 이동에서의 활동량은 감소시키지만, 스포츠 활동이나 신체활동 관련한 여가활동과 은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는 근로활동과 관련한 신체활동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운동이나 여가와 관련한 신체활동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은퇴가 중고령자의 여가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두 개의 연구를 살펴보았다(Nimrod, 2007; Nimrod, Janke, & Kleiber, 2009; Nimrod & Janke, 2012 재인용, p.103). 이들 연구에서는 은퇴 후의 여가활동의 범위(참여하는 여가활동 개수)와 여가활동 참여빈도를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확장형(expanders)으로 은퇴 이후에 참여하는 여가활동 개수와 참여빈도가 증가하는 유형이며, 두 번째는 축소형(reducers)으로 은퇴 이후에 참여하는 여가활동 개수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고, 참여빈도는 감소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소수집중형(concentrators)로 여가활동 종류나 개수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지만, 참여빈도는 증가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분산형(diffusers)은 참여하는 여가활동 종류는 증가하지만, 참여빈도는 변화없거나 감소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미국인과 이스라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Nimrod, Janke, & Kleiber, 2008), 은퇴 후에 자유시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 은퇴자는 축소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미국 51%, 이스라엘 43%), 다음으로 확장형(미국 21%, 이스라엘 35%)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에서 퇴직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남는 시간이 여가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은퇴 이후 여가활동 참여 변화

유형	은퇴후 변화		국가	
	여가활동 개수(scope)	참여빈도 (frequency)	미국 (n=430)	이스라엘 (n=383)
축소형	감소 또는 변화없음	감소 또는 변화없음	51%	43%
확장형	증가	증가	21%	35%
집중형	감소 또는 변화없음	증가	16%	11%
분산형	감소	감소 또는 변화없음	12%	11%

원자료: Nimrod(2007), Nimrod, Janke & Kleiber(2009).
자료: Nimrod & Janke(2012). p.103.

또한 이스라엘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Nimrod, 2007), 확장형(expanders)과 소수집중형(concentrators)은 다른 유형에 비해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형은 SOC 모델(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을 포괄하는 지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과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집중형 집단은 의미있는 여가 활동을 최소화하여 선택하고 이를 최적화함으로써 활동 빈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인 행복(well-being)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은퇴 후 가장 성공적인 심리적 행복을 성취하는 유형은 확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여가활동의 개수 및 빈도가 모두 증가하여 소수집중형 만큼 성공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삶의 과정에 있어서 여가 레퍼토리(repertories)에 한계가 많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은퇴 후 새로운 여가생활을 경험하는 것은 은퇴과정의 적응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중고령자 일과 여가시간 변화 분석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일-여가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언제 얼마나 하는가를 조사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통계청, 2010).[12]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과 2004년, 2009년, 2014년 총 4개 차수의 자료가 제공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5년간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시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1. 일-여가시간 변화

본 연구의 대상인 50~69세의 일-여가시간은 다른 연령집단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위해 30~49세와 70세 이상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일에 소요하는 시간은 2014년 기준으로 30~49세가 4시간 31분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50~69세 3시간 47분, 70세 이상 1시간 10분이다. 일을 위한 활동에 1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입한 사람[13]의 비율도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30~49세는 63.6%, 50~69세 58.5%, 70세 이상 29.4%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기간 내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시간량은 감소 추세이다. 최근 15년간 일에 투입한 시간은 30~49세 32분, 50~69세 15분, 70세 이상 25분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50~69세 중고령자의 일 시간 축소 폭이 작은 편이다.

10분 이상 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최근 15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12) 전국의 만10세 이상을 대상으로 2일 동안 10분 간격으로 시간일지(time-diary)를 조사함.
13) 본 절에서 의미하는 경제활동의 기준은 '주 18시간 이상 근로'이며, 제3장의 경제활동의 기준인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

30~49세 22분(7시간 28분 → 7시간 5분), 50~69세 14분(6시간 42분 → 6시간 28분), 70세 이상 30분(4시간 26분 → 3시간 56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법정근로시간 축소(주44시간 → 주40시간)를 들 수 있을 것이다.[14]

여가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2014년 기준 70세 이상이 7시간 13분으로 가장 많고, 50~69세는 4시간 54분, 30~49세 3시간 42분이다. 여가시간은 최근 15년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30~49세와 50~69세는 각각 45분과 41분, 70세 이상은 이 보다 작은 20분 감소하였다. 여가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98% 이상이며, 시계열간 변화가 거의 없었다.

〈표 2-2〉 연령집단별 일-여가시간 변화추이

(단위: 시간:분, %)

구분	1999		2004		2009		2014	
	평균 시간	참여자 비율	평균 시간	참여자 비율	평균 시간	참여자 비율	평균 시간	참여자 비율
일[1]								
30~49세	5:03	67.7	4:26	64.4	4:35	65.6	4:31	63.6
50~69세	4:02	60.2	3:31	56.9	3:37	57.7	3:47	58.5
70세 이상	1:35	35.9	1:20	35.1	1:16	32.4	1:10	29.4
여가[2]								
30~49세	4:27	98.6	4:37	99.3	4:07	98.9	3:42	99.0
50~69세	5:35	98.9	5:40	99.5	5:12	99.3	4:54	99.4
70세 이상	7:33	98.8	7:38	99.9	7:15	99.7	7:13	99.8

주: 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구직활동을 위한 시간 등을 의미함.
2) 여가생활시간은 참여 및 봉사,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시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년도

이상과 같이 최근 15년간 모든 분석연령집단에서 일과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감소한 것은 수면 및 식사, 개인 건강관리 및 기타 개인유지 등을 위한 필수생활시간[15]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연령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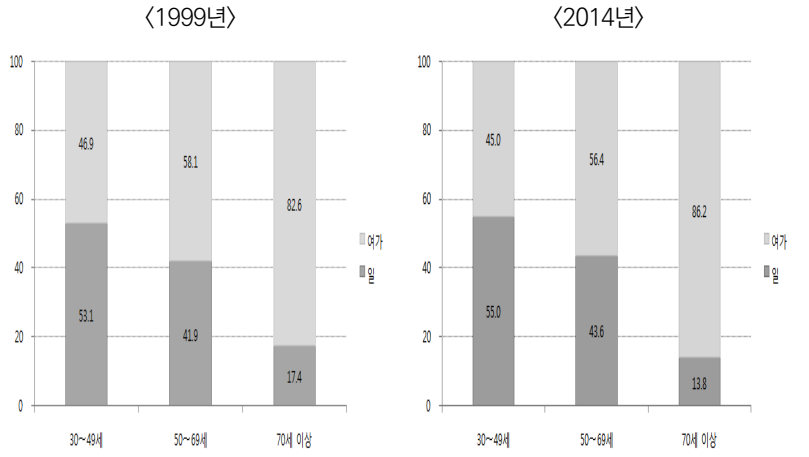
14) 2004년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005년 30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5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로 최근 15년간 필수생활시간 증가규모를 보면, 70세 미만 연령층에서 증가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 30~49세 52분(10시간 8분→11시간), 50~69세 48분(10시간 21분→11시간 9분)이며 70세 이상은 11분(11시간 44분→11시간 55분)이다.

한편 일과 여가시간 내에서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30~49세는 일이 1999년 53.1%에서 2014년 55.0%로 1.8%p 증가하였다. 50~69세 또한 같은 기간 일에 대한 시간이 41.9%에서 43.6%로 1.6%p 증가하였지만, 70세 이상은 17.4%에서 13.8%로 3.6% 감소하였다. 즉 최근 15년간 30~49세와 50~69세는 일-여가 시간에서 상대적으로 일에 1.6~1.8%p 더 많은 배분을 한 반면, 70세 이상은 여가에 대해 3.6%p 더 많이 배분한 것이다.

〔그림 2-1〕 연령집단별 일-여가시간 구성 변화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년도

15)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개인 건강관리는 자가 치료, 아파서 쉼, 의료서비스 받기 등을, 기타 개인유지는 개인위생, 외모관리(화장, 옷갈아입기 등),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등을 의미함.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제약 하에서 경제활동여부는 개인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활동여부별 여가시간의 격차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50~69세가 2시간 57분(3시간 54분, 6시간 51분)으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70세 이상 2시간 48분(5시간 8분, 7시간 56분), 30~49세 1시간 37분(3시간 20분, 4시간 57분) 순이었다. 이는 1999년 각각 3시간 18분, 2시간 59분, 2시간 30분에 비해 경제활동여부별 격차가 감소한 것이다.

〈표 2-3〉 연령집단별 및 경제활동여부별 여가시간 변화추이

(단위: 시간: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30~49세	3:50	6:20	4:07	6:11	3:36	5:48	3:20	4:57
50~69세	4:21	7:39	4:32	7:30	4:06	7:05	3:54	6:51
70세 이상	5:24	8:23	5:22	8:24	6:06	8:00	5:08	7:56

주: 여가시간은 참여 및 봉사,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시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여가활동별 시간 특성 변화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50~69세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시간 사용이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본 절에서 여가는 생활시간조사의 중분류[16]에서 ① 자원봉사, ② 친분 있는 사람 돕기, ③ 교제활동, ④ 학습, ⑤ 미디어 이용, ⑥ 종교활동, ⑦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⑧ 스포츠

16) 2009년 기준으로 생활시간조사는 행동을 9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38개 소분류로 구성하고 있음. 이 중 대분류는 ① 개인유지, ② 일, ③ 학습, ④ 가정관리, ⑤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⑥ 참여 및 봉사활동, ⑦ 교제 및 여가활동, ⑧ 이동, ⑨기타임. 이들 대분류는 크게 필수생활시간(①)과 의무생활시간(②, ③, ④, ⑤, ⑧), 여가생활시간(⑥, ⑦, ⑨)으로 재분류되기도 함.

및 집밖 레저활동, ⑨ 기타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기 전, 생활시간조사의 여가시간에 포함되는 '참여 및 봉사활동'의 중분류인 '참여활동'은 민방위, 예비군훈련, 투표 등 의무적 활동과 일일급식, 등하교 교통지도 등 자녀 학교활동 지원 등을 의미하므로 중고령자의 여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최근 조사된 2014년 조사에서 생활시간의 행동분류가 일부 변경되었다. 먼저 중분류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는 2009년까지 소분류가 '소득이 있는 활동 돕기', '가사활동 돕기', '기타 일 돕기'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중분류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가 '친분 있는 사람 돕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분류에도 동일한 명칭인 '친분 있는 사람 돕기'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4년에 참여경험(참여자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2009년 0.9%, 2014년 1.4%). 그 다음으로 변경된 행동은 소분류 '관광 및 드라이브'로, 중분류 위치가 '스포츠 및 집밖 레저활동'에서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로 바뀌었다. 또한 중분류에서 '기타여가'에 포함되었던 소분류 '독서(책읽기)'가 2014년에는 중분류 '미디어 이용'으로 이동되었으며, 그동안 여가생활시간에서 '교제 및 여가활동'이라는 대분류 하에서 중분류 '일반인의 학습'으로 조사되던 문항이, 의무생활시간인 대분류 '학습'에서 중분류 '학교활동 외 학습'으로 위치를 옮겼다.

〈표 2-4〉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시간 변화추이

(단위: 시간: 분, %)

구분	1999		2004		2009		2014	
	평균 시간	참여자 비율	평균 시간	참여자 비율	평균 시간	참여자 비율	평균 시간	참여자 비율
자원봉사	0:01	1.1	0:01	0.9	0:01	0.7	0:01	0.9
친분 있는 사람 돕기	0:01	0.4	0:01	0.6	0:01	0.9	0:02	1.4
교제활동	1:01	63.6	57	69.4	0:47	71.2	0:40	67.5
학습[1]	0:02	1.5	0:03	2.0	0:04	3.5	0:03	2.0
미디어 이용	2:51	92.3	2:53	93.5	1:37	92.6	2:44	92.5
종교활동	0:15	11.0	0:16	12.7	0:18	13.1	0:14	11.4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2]	0:01	0.7	0:01	0.8	0:01	0.8	0:03	2.0
스포츠 및 집밖 레저 활동[3]	0:28	31.5	0:37	39.5	0:43	43.5	0:41	42.0
기타[4]	0:51	63.1	0:47	62.0	0:39	61.5	0:29	52.1

주: 1) 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외국어 및 컴퓨터, 자격증, 취업, 취미 등의 학습을 의미함.
2) 영화관, 연극, 콘서트, 전시회, 박물관 ,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을 의미함.
3) 걷기, 산책, 등산, 하이킹,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 운동, 그 외 단체 스포츠 등을 의미함.
4) 컴퓨터, 놀이(바둑, 장기, 화투, 카드 등), 개인 취미활동, 유흥, 담배 피우기, 아무것도 안하고 쉼 등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가 2014년 기준으로 여가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으로 2시간 44분이며, 그 다음 스포츠 및 집밖 레저 활동 41분, 교제활동 40분, 종교활동 14분이다.[17] 1999년에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이 스포츠 및 집밖 레저 활동 보다는 교제활동에 2배 이상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각각 28분, 1시간 1분), 이후 교제활동 시간은 점차 감소하고 스포츠 및 집밖 레저 활동 시간이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스포츠 및 집밖 레저 활동 참여율이 1999년 31.5%에서 2014년 42.0%로 10.5%p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고령자의 건강에 대

17) 기타를 제외한 순위임.

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여 걷기, 산책 등의 건강증진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의 여가활동은 평균 3분 이하이다.

여가활동별 참여율을 보면, 여가활동 평균 시간량이 많은 활동에서 참여율도 높고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미디어 이용은 대부분의 중고령자가 참여하고 있어 92.5%이며, 교제활동 67.5%, 스포츠 및 집밖 레저활동 42.0%, 종교활동 11.4%이다(2014년 기준). 기타를 제외한 그 외의 여가활동 참여율은 2% 미만이다.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모든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여가활동시간의 격차는 미디어 이용 1시간 42분, 스포츠 및 집밖 레저 활동 32분, 종교활동 15분, 교제활동 13분이다.

여가활동 참여율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미디어 이용률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97.9%,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90.2%로 7.7%p 차이가 나며, 스포츠 및 집밖 레저 활동은 전자가 34.9%로 후자의 23.3% 보다 11.6%p 높다. 교제활동과 종교활동의 참여율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각각 5.5%p와 5.4%p 더 높다.

최근 15년간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여가활동시간 격차를 살펴보면, 미디어이용은 1999년 1시간 34분에서 2014년 1시간 42분으로 8분 증가, 스포츠 및 집밖 레저 활동은 같은 기간 29분에서 32분으로 3분 증가하였다. 반면에 교제활동은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격차가 20분 감소하였고(1999년 33분, 2014년 13분), 종교활동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1999년과 2014년 모두 15분).

〈표 2-5〉 경제활동여부별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시간 변화추이

(단위: 시간: 분, %)

구분	1999		2004		2009		2014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자원봉사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1.2)	(1.0)	(0.9)	(0.8)	(0.7)	(0.7)	(0.5)	(1.5)
친분 있는 사람 돕기	0:00	0:01	0:01	0:01	0:01	0:03	0:01	0:03
	(0.3)	(0.7)	(0.4)	(1.0)	(0.5)	(1.5)	(49.1)	(54.1)
교제활동	0:49	1:22	0:50	1:10	0:42	0:56	0:36	0:49
	(58.2)	(72.6)	(66.3)	(74.3)	(68.7)	(75.3)	(39.0)	(44.5)
학습[1]	0:01	0:03	0:01	0:05	0:02	0:09	0:02	0:04
	(1.1)	(2.2)	(1.2)	(3.2)	(1.8)	(6.3)	(1.5)	(3.0)
미디어 이용	2:16	3:50	2:20	3:47	2:05	3:31	2:09	3:51
	(89.8)	(96.4)	(91.3)	(97.0)	(89.8)	(97.4)	(90.2)	(97.9)
종교활동	0:09	0:24	0:11	0:24	0:10	0:30	0:09	0:24
	(8.0)	(16.0)	(10.0)	(17.1)	(9.1)	(19.8)	(5.1)	(10.5)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2]	0:01	0:02	0:01	0:01	0:01	0:01	0:02	0:03
	(0.5)	(1.0)	(0.6)	(1.1)	(0.6)	(1.1)	(16.7)	(37.5)
스포츠 및 집밖 레저 활동[3]	0:17	0:46	0:23	0:59	0:30	1:04	0:30	1:02
	(22.6)	(46.6)	(29.1)	(56.1)	(34.5)	(58.8)	(23.3)	(34.9)
기타[4]	0:43	1:05	0:41	0:57	0:33	0:48	0:26	0:35
	(63.1)	(63.0)	(60.7)	(64.0)	(60.5)	(63.3)	(66.5)	(67.6)

주: 1) 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외국어 및 컴퓨터, 자격증, 취업, 취미 등의 학습을 의미함.
2) 영화관, 연극, 콘서트, 전시회, 박물관 ,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을 의미함.
3) 걷기, 산책, 등산, 하이킹,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 운동, 그 외 단체 스포츠 등을 의미함.
4) 컴퓨터, 놀이(바둑, 장기, 화투, 카드 등), 개인 취미활동, 유흥, 담배 피우기, 아무것도 안하고 쉼 등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년도

3. 소결

우리나라의 50~69세는 2014년 기준으로 일에 3시간 47분, 여가에 4시간 54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30~49세에 비해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44분 적고, 70세 이상에 비해 여가에 소요하는 시간은 2시

간 19분 적다. 이러한 특성은 일자리 참여자 비율이 30~49세와 비교하여 약 5% 낮다는 점에서 은퇴전환기의 50~69세가 일에 대한 시간을 줄이고 여가에 대한 시간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5년간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시간은 각각 15분과 41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일과 여가활동에서 감소한 시간은 수면과 건강관리 및 개인유지 등과 같은 필수생활시간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과 여가시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에 대한 시간이 41.9%에서 43.6%로 1.6%p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시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은 미디어 이용으로 2시간 44분이며 그 다음 스포츠 및 집밖 레저 활동 41분, 교제활동 40분, 종교활동 14분이다. 그리고 여가활동 중에서 스포츠 및 집밖 레저 활동 참여율이 최근 15년간 10.5%p 증가하여(1999년 31.5%, 2014년 42.0%), 중고령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여가활동시간 특성으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모든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중고령자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분석

제1절 여가 및 근로현황
제2절 은퇴전환기 일과 여가 특성분석
제3절 여가활동의 경제적 평가
제4절 소결

3 중고령자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분석

본 장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과 여가 실태를 살펴보고, 경제활동참여특성에 따른 여가참여유형과 일과 여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여가 비용측면에서 여가활동의 형평성과 금전적 가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절 여가 및 근로현황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고령층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는 총 2,508명으로 50대가 64.0%, 60대가 36.0%로 통계청(2014)의 인구분포가 50대 63.6%, 60대 36.4%였던 결과와 비슷한 분포이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성비는 60대의 여성비중이 조금 높긴 하지만 50대와 60대 모두 거의 일대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가 80~90% 수준이지만, 연령증가와 함께 무배우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57.8%, 부부가구 29.8%, 1인 가구 6.7%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경우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70.9%로 나타

나, 대부분의 50대가 자녀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60대로 접어들수록 자녀독립과 사별 등으로 인해 부부가구와 1인가구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50대와 60대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50대의 80.2%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반면, 60대의 50.1%는 중학교이하의 학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50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했지만, 60대에서는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7.3%가 현재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근로활동 참여자가 17.9%, 평생 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자도 4.8%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400만원 이상의 가구비율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0대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의 가구비율이 27.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의 1.4%, 의료급여수급자는 0.3%에 불과하였다.

〈표 3-1〉 응답자의 연령별 일반특성 분포

(단위: %, 명)

특성	연령대		계
	50~59세	60~69세	
성별			
남성	50.0	48.0	49.3
여성	50.0	52.0	50.7
지역			
대도시	55.9	59.6	57.2
중소도시	59.6	40.4	42.8
결혼 상태			
유배우자	91.1	84.0	88.6
무배우자	8.9	16.0	11.4
가구형태			
1인가구	4.9	10.0	6.7
부부가구	19.2	48.6	29.8
부부+자녀가구	70.9	34.5	57.8
부모+부부+자녀(손자녀) 가구	3.9	4.8	4.2
조손가구	0.1	0.9	0.4
기타	1.1	1.3	1.2
학력			
무학	0.5	2.5	1.2
초등학교	4.5	20.5	10.2
중학교	12.1	27.1	17.5
고등학교	57.8	29.7	51.3
대학교	23.4	9.1	18.3
대학원	1.7	1.1	1.5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11.8	6.8	10.0
건강한 편임	60.4	53.5	57.9
보통	20.0	26.5	22.4
건강하지 않음 편임	6.6	10.4	8.0
매우 건강하지 않음	1.2	2.8	1.8
근로활동여부			
현재 근로활동참여자	83.8	65.6	77.3
과거 근로활동참여자	12.5	27.5	17.9
평생 일안함	3.7	6.9	4.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	7.2	3.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7	27.4	14.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3.5	24.6	17.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2.5	14.8	19.8
400만원 이상	55.7	26.0	45.1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	1.9	1.4
의료수급자	0.2	0.4	0.3
둘다 아님	98.8	97.7	98.4
계	100.0	100.0	100.0
(명)	(1,606)	(902)	(2,508)

주: 각 항목별 모름, 무응답 제외

나. 일상생활 시간활용 현황

중고령자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일상생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수면, 개인유지, 가사, 가족돌봄, 근로활동, 종교활동, TV시청, 낮잠 및 휴식, 친교활동, 적극적 여가활동 등 10가지 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24시간의 하루일과를 파악해보았다. 특히, 적극적 여가활동과 구분하기 위해 TV시청, 낮잠 및 휴식활동은 별도의 행위로 분류하였다.

응답자의 주중 일상생활 시간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수면, 개인유지, 가족돌봄, 종교활동은 성별, 연령, 근로 여부의 특성과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사활동은 성별, 근로 여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과 취업자가 여성과 미취업자에 비해 가사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적었다. TV시청이나 낮잠 및 휴식활동에 있어서도 50대보다는 60대가,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교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에 있어서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미취업자가 친교활동,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각각 1.6시간, 2.3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취업자는 각각 단 0.4시간, 0.6시간을 보내고 있어 친교와 적극적 여가활동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응답자의 일생상활 시간 활용 현황(주중)

(단위: 시간)

특성	수면	개인 유지	가사 활동	가족 돌봄	근로 활동	종교 활동	TV 시청	낮잠 휴식	친교 활동	적극적 여가	계
전체	7.2	2.6	1.4	0.2	7.6	0.1	2.6	0.7	0.7	1.0	24.0
성별											
남성	7.2	2.6	0.3	0.1	9.1	0.0	2.5	0.6	0.6	0.9	24.0
여성	7.2	2.5	2.5	0.4	6.0	0.1	2.7	0.7	0.7	1.1	24.0
연령대											
50~59세	7.1	2.6	1.4	0.2	8.2	0.1	2.4	0.6	0.6	0.9	24.0
60~69세	7.2	2.6	1.5	0.3	6.4	0.1	3.0	0.9	0.8	1.2	24.0
근로여부											
취업	7.1	2.5	1.0	0.1	9.8	0.0	2.1	0.4	0.4	0.6	24.0
미취업	7.4	2.8	2.9	0.7	0.0	0.2	4.4	1.6	1.7	2.3	24.0

이러한 주중시간 활용 현황은 주말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특이할 점은 남성은 적극적 여가활동과 친교활동에 있어서 주중-주말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주중에 비해 친교활동에 0.6시간, 적극적 여가활동에 2.3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이 주중에 많은 근로시간을 보내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근로활동이 친교활동 및 적극적 여가활동에 제약요소가 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3-3〉 응답자의 일생상활 시간 활용 현황(주말)

(단위: 시간)

특성	수면	개인 유지	가사	가족 돌봄	근로 활동	종교 활동	TV 시청	낮잠 휴식	친교 활동	적극적 여가	계
전체(24시간)	7.8	2.6	1.7	0.2	2.0	0.8	4.0	1.3	1.1	2.4	24.0
성별											
남성	7.8	2.7	0.6	0.1	2.2	0.6	4.2	1.5	1.2	3.2	24.0
여성	7.7	2.5	2.9	0.3	1.8	1.0	3.8	1.2	1.0	1.8	24.0
연령대											
50~59세	7.8	2.6	1.7	0.2	2.1	0.7	3.9	1.3	1.0	2.6	24.0
60~69세	7.7	2.6	1.7	0.2	2.0	0.9	4.1	1.4	1.3	2.2	24.0
근로여부											
취업	7.8	2.6	1.5	0.1	2.6	0.7	3.8	1.3	1.0	2.5	24.0
미취업	7.7	2.6	2.6	0.5	0.0	1.0	4.6	1.5	1.4	2.2	24.0

2. 응답자의 여가활동 현황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여가 인식과 함께 여가활동 내용, 동반자, 일상성 등을 파악하였으며, 여가활동의 내용이나 동반자 등의 특성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가. 여가인식

대부분의 중고령자는 여가활동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4.7%가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자는 3.3%에 불과했다. 성별, 연령별, 근로활동 여부 등 각각의 특성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중고령층의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여가 인식보다는 실천의 문제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여가활동 중요도

(단위: %, 명)

특성	전혀 중요치않음	별로 중요치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	매우 중요	전체
전체	0.8	2.5	12.0	47.0	37.7	100.0 (2,508)
성별						
남성	1.2	3.0	11.6	46.2	38.0	100.0 (1,236)
여성	0.4	2.0	12.4	47.7	37.4	100.0 (1,272)
연령대						
50~59세	0.8	2.2	10.7	46.8	39.5	100.0 (1,606)
60~69세	0.8	3.1	14.3	47.2	34.6	100.0 (902)
학력						
중졸이하	1.0	3.9	16.3	47.9	31.0	100.0 (726)
고졸	0.9	2.2	11.1	47.4	38.5	100.0 (1,286)
대졸이상	0.4	1.4	8.1	44.6	45.6	100.0 (496)
근로활동여부						
취업	0.9	2.5	11.9	47.2	37.6	100.0 (1,938)
미취업	0.5	2.5	12.5	46.3	38.2	100.0 (570)

주: 각 항목별 모름, 무응답 제외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생활의 활력(50.5%), 건강유지에 도움(2.83%), 마음의 안정과 휴식(12.6%), 가족·타인과의 관계증진(4.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인생의 의미(3.0%), 지식과 경험 습득(0.7%), 사회적 기여(0.3%)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여가활동 중요 이유

(단위: %, 명)

특성	생활의 활력	건강 유지에 도움	마음 안정과 휴식	가족, 타인간 관계 증진	인생 의미 찾는데 도움	지식과 경험을 쌓을수 있음	사회적 기여	전체
전체	50.5	28.3	12.6	4.6	3.0	0.7	0.3	100.0 (2,124)
성별								
남성	48.7	28.8	13.8	4.8	3.0	0.7	0.2	100.0 (1,041)
여성	52.3	27.8	11.4	4.4	3.0	0.6	0.5	100.0 (1,083)
연령대								
50~59세	53.9	24.6	5.1	0.6	12.2	3.2	0.3	100.0 (1,386)
60~69세	44.2	35.2	3.7	0.7	13.4	2.4	0.4	100.0 (738)
학력								
중졸이하	45.0	32.8	4.0	0.5	15.0	2.4	0.2	100.0 (573)
고졸	51.7	26.7	5.4	0.5	12.0	3.3	0.4	100.0 (1,104)
대졸이상	54.6	26.4	3.4	1.1	11.2	2.9	0.4	100.0 (447)
근로활동여부								
취업	50.6	26.9	4.9	0.5	13.5	3.2	0.3	100.0 (1,642)
미취업	50.2	33.0	3.5	1.0	9.5	2.3	0.4	100.0 (482)

주: 각 항목별 모름, 무응답 제외

중고령자가 44.8%가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55.2%는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3-6〉 중고령자의 일반특성별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특성	즐기고 있음	즐기지 못하고 있음	전체	
전체	44.8	55.2	100.0	(2,508)
성별				
남성	45.2	54.8	100.0	(1,236)
여성	44.3	55.7	100.0	(1,272)
연령대				
50~59세	44.0	56.0	100.0	(1,606)
60~69세	46.1	53.9	100.0	(902)
학력				
중졸이하	34.3	65.7	100.0	(726)
고졸	44.9	55.1	100.0	(1,286)
대졸이상	59.9	40.1	100.0	(496)
근로활동여부				
취업	40.5	59.5	100.0	(1,938)
미취업	59.5	40.5	100.0	(570)

주: 각 항목별 모름, 무응답 제외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부족(76.5%), 여가비용 부족(45.1%), 피곤해서(38.7%) 순으로 나타나 여가 장소나 정보의 부족과 같은 인프라보다는 개인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7〉 중고령자의 일반특성별 여가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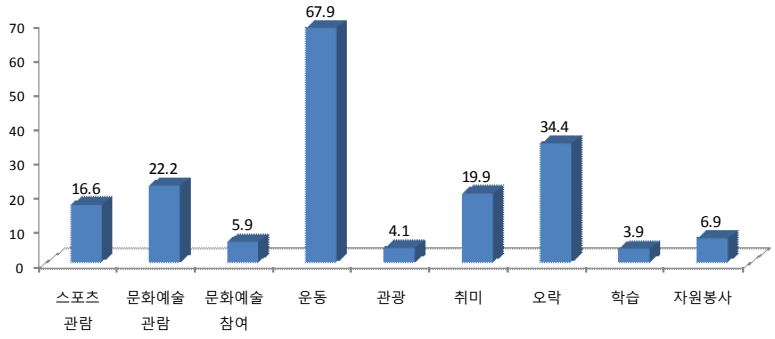
특성	여가 비용 부족	시간 부족[1)]	피곤 해서	정보 부족	여가장소·시설 부족	의지 부족	여가동반자 없음
전체	45.1	76.5	38.7	7.1	9.0	13.6	4.8
성별							
남성	45.2	78.3	40.8	5.8	8.1	13.3	4.4
여성	45.1	74.9	36.7	8.3	9.7	14.0	5.2
연령대							
50~59세	42.0	80.2	41.2	7.9	6.6	13.7	4.0
60~69세	50.8	69.8	34.2	10.9	8.0	13.6	6.4
학력							
중졸이하	48.6	73.0	36.3	9.4	6.5	13.8	5.0
고졸	44.6	78.3	40.2	9.0	7.2	12.1	4.2
대졸이상	38.7	78.9	39.2	7.5	8.0	18.6	6.5
근로활동여부							
취업	43.7	85.1	41.2	6.6	5.7	10.6	3.5
미취업	52.4	33.8	26.4	20.8	13.9	29.0	11.7

주: 각 항목별 모름, 무응답 제외

나. 여가활동 내용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18] 운동(67.9%), 오락활동(34.4%), 문화예술 관람활동(22.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활동(6.9%), 문화예술참여활동(5.9%), 관광(4.1%), 학습(3.9%)은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실태(영역별 1순위, 중복응답)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스포츠 관람활동에, 여성은 남성보다 문화예술 관람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문화예술관람 활동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50대는 26.2% 참여하고 있는 반면 60대는 15.0%가 참여하고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습활동과 문화예술 관람활동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각각의 활동에 있어서 중졸이하가 1.9%, 10.7%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대졸이상은 9.1%, 32.3%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별로는 운동과 오락활동을 제외하고는 취업자는 스포츠 관람에, 미취업자는 문화예술 참여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8)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간 참여했던 여가활동 중 6가지 여가 영역별로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을 한 가지씩 응답한 결과임(최소 0개~최대 6개).

〈표 3-8〉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별 특성(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스포츠 관람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운동	관광	취미	오락	학습	자원 봉사
전체	16.6 (416)	22.2 (556)	5.9 (149)	67.9 (1,704)	4.1 (102)	19.9 (500)	34.4 (862)	3.9 (98)	6.9 (174)
성별									
남성	27.1	15.8	3.4	71.9	3.7	23.9	31.4	3.7	5.3
여성	6.4	28.4	8.4	64.1	4.4	16.1	37.3	4.1	8.6
연령대									
50~59세	18.2	26.2	5.7	68.2	4.0	19.9	36.8	4.2	7.2
60~69세	13.7	15.0	6.3	67.5	4.1	20.0	30.0	3.4	6.4
학력									
중졸이하	13.5	10.7	4.7	61.6	3.7	16.9	29.6	1.9	4.0
고졸	16.6	24.7	4.9	67.7	4.1	19.4	37.3	3.0	7.8
대졸이상	21.0	32.3	10.5	77.8	4.4	25.8	33.7	9.1	9.1
근로활동여부									
취업	18.6	21.2	4.3	65.8	4.4	20.1	34.0	3.7	5.9
미취업	9.8	25.4	11.6	75.3	3.0	19.3	35.6	4.7	10.4

주: 1) 적극적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299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항목별 모름, 무응답 제외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별로 활동의 목적, 주요 동반자, 일상성, 지속성, 소요비용, 만족도, 지속방향 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활동목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여가활동은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스포츠 관람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의 주목적은 생활의 활력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운동은 건강유지(71.2%), 학습은 자기계발(73.7%),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50.6%)를 주요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동반자는 대부분 혼자, 가족, 친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 관람활동과 관광활동은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미활동과 학습활동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여가유형과는 다르게 자원봉사활동은 친목단체(17.5%), 종교모임(13.9%), 동호회(8.4%) 등에 소속되어있는 모임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의 일상성은 유형별로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관람활동, 운동, 취미활동은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참여활동과 학습활동은 주 1회~3회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많아 비교적 일상적인 여가유형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락은 월 1회~3회, 문화예술관람 활동은 2~3달에 1~2회씩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활동은 1년에 3~4회씩 참여하는 비율이 53.9%로 참여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성에 있어서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여가유형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스포츠 관람활동(75.2%), 오락활동(70.3%), 관광활동(58.8%), 문화예술 관람활동(57.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습활동은 1년~3년(34.7%), 10년 이상(24.2%), 1년(23.2%) 순으로 높게 나타나 아주 장기간 지속하거나 단기간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문화예술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광활동(124.7천원), 오락활동(59.6천원), 운동(21.4천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스포츠 관람활동이 4.2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도는 자원봉사활동(4.0점), 운동(3.9점), 취미활동(3.9점) 순으로 나타나 소요비용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방향은 대부분 즐거움과 재미 또는 휴식과 안정을 주는 활동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운동은 건강유지(52.5%)를 위해, 학습은 지식 및 기술습득(42.1%)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은 봉사활동(65.5%)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중고령자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제2의 직업을 발굴시키거나 사회적인 기여 등의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재미, 휴식 등 현재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별 특성(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스포츠 관람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운동	관광	취미	오락	학습	자원 봉사
전체	100.0 (416)	100.0 (556)	100.0 (149)	100.0 (1,704)	100.0 (102)	100.0 (500)	100.0 (862)	100.0 (98)	100.0 (174)
활동 목적									
생활의 활력	81.4	73.2	60.1	20.7	49.5	50.1	48.5	7.4	9.4
건강유지	1.7	2.0	6.8	71.2	16.8	7.0	3.8	9.5	0.0
관계증진	2.7	8.5	2.0	2.7	16.8	5.8	37.8	1.1	4.1
안정과 휴식	13.8	11.6	8.1	4.5	15.8	28.2	6.9	1.1	5.9
자기계발	0.5	1.4	20.9	0.6	0.0	7.2	0.6	73.7	2.9
인생의 의미 추구	0.0	3.3	1.4	0.3	1.0	1.6	2.3	3.2	27.1
사회에 기여	0.0	0.0	0.7	0.0	0.0	0.0	0.0	4.2	50.6
동반자									
혼자	45.7	7.7	39.2	41.0	4.9	52.2	8.5	78.9	25.9
가족(배우자, 자녀등)	48.1	60.8	6.8	20.6	59.8	20.6	46.0	3.2	7.2
친구(지인, 연인 등)	5.3	28.4	38.5	30.1	25.5	23.0	37.9	11.6	25.3
직장동료	0.0	0.4	10.8	0.3	1.0	1.2	2.0	2.1	1.8
동호회	0.5	1.1	3.4	5.7	1.0	2.2	0.9	0.0	8.4
친목단체	0.5	0.7	1.4	2.2	6.9	0.2	4.7	0.0	17.5
종교모임	0.0	0.9	0.0	0.2	1.0	0.6	0.0	4.2	13.9
일상성									
매일	23.6	0.9	12.8	27.7	3.9	27.4	2.6	13.7	4.7
주 2~3회	23.3	4.1	35.8	30.6	2.0	23.3	11.8	28.4	14.0
주 1회	11.3	3.4	28.4	18.1	7.8	18.5	17.2	28.4	32.7
월 2~3회	20.7	11.4	8.1	11.8	9.8	14.9	28.4	12.6	12.3
월 1회	9.1	20.5	8.1	7.4	8.8	8.2	24.8	10.5	24.0
두 세달에 1~2회	4.8	30.8	2.7	2.3	13.7	4.6	9.5	2.1	3.5
1년에 3~4회	7.2	28.8	4.1	2.1	53.9	3.0	5.7	4.2	8.8
지속성									
1년	1.7	2.0	12.9	4.8	0.0	3.4	1.3	23.2	4.7
1년~3년	4.3	6.0	20.4	10.9	6.9	10.2	4.6	34.7	14.6
3년~5년 이내	6.5	13.6	20.4	20.6	16.7	16.7	9.3	9.5	19.9
5년~10년 이내	12.3	21.4	21.8	25.8	17.6	20.7	14.6	8.4	28.1
10년 이상	75.2	57.0	24.5	37.9	58.8	49.0	70.3	24.2	32.7
소요비용(천원)	4.7	19.1	15.7	21.4	124.7	25.7	59.6	10.5	10.3
여가 만족도(점)	3.7	3.7	3.7	3.9	3.7	3.9	3.7	3.8	4.0
지속방향									
지속의향 없음	3.8	2.5	5.4	4.2	2.0	3.8	4.2	6.3	4.1
휴식과 안정	45.4	38.6	25.2	21.4	42.2	38.4	29.9	23.2	11.1
즐거움과 재미	48.3	53.7	52.4	21.3	48.0	40.4	60.3	13.7	12.9
건강유지	2.2	3.2	8.2	52.5	6.9	10.8	4.7	10.5	4.7
지식·기술습득	0.2	2.0	7.5	0.5	1.0	6.4	0.8	42.1	1.8
봉사활동 유지발전	0.0	0.0	1.4	0.1	0.0	0.2	0.0	2.1	65.5
제2의 직업 발전	0.0	0.0	0.0	0.0	0.0	0.0	0.1	2.1	0.0

지난 1년간 참여한 세부 여가활동 2가지(1순위 및 2순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41.7%는 걷기나 산책을 중심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걷기나 산책 활동은 전체 여가활동의 13.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등산이 33.0%, 외식 31.9%, 영화 29.3%, 스포츠 직·간접 관람 25.7%, 쇼핑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산책이나 등산을 하고 있는 중고령자는 전체의 74.7%에 이르며, 영화나 스포츠 관람이 55.0%, 외식이나 쇼핑이 53.0% 등으로 여가활동 건강증진, 수동적 여가활동, 소비성 여가활동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3-10〉 세부 여가활동 내용 10순위(영역별 1순위 및 2순위 활동 포함)

순위	구분	응답 빈도(명)	응답율(%)	케이스 퍼센트	1회 평균 비용(천원)
1	걷기·산책	922	13.8	41.7	8.1
2	등산	730	10.9	33.0	25.4
3	외식	705	10.6	31.9	56.0
4	영화보기	648	9.7	29.3	18.1
5	스포츠 직·간접 관람	568	8.5	25.7	4.7
6	쇼핑	465	7.0	21.1	75.4
7	관광	317	4.7	14.4	124.7
8	유흥	286	4.3	12.9	50.4
9	구기종목	212	3.2	9.6	63.6
10	자원봉사	193	2.7	8.8	10.3
11	기타	1,629	24.6	73.8	-
합 계		6,675	100.0	302.2	28.3

성별 및 근로유무 따라 참여하고 있는 세부 여가활동 내용의 차이를 보면, 미취업 남성은 주로 걷기·산책(56.8%)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다음으로 등산과 스포츠 관람 등으로 스포츠 중심 활동으로 나타났다. 취업 남성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중심활동이지만, 걷기·산책보다는 등산과 스

포츠관람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으며, 외식이나 영화관람도 4순위와 5순위로 나타나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여성과 취업 여성의 세부 여가활동 내용은 걷기·산책, 외식, 쇼핑, 여가, 등산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비율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3-11〉 성별에 따른 세부 여가활동 내용 5순위(영역별 1순위 및 2순위 활동 포함)

순위	미취업남성 (n=118)		취업 남성 (n=1,011))		미취업여성 (n=408)		취업여성 (n=672)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1	걷기·산책	56.8	등산	41.8	걷기·산책	48.5	걷기·산책	47.3
2	등산	34.7	스포츠 관람	36.7	외식	35.0	외식	37.1
3	스포츠 관람	28.8	걷기·산책	33.5	쇼핑	34.6	영화보기	36.2
4	외식	21.2	외식	28.5	영화보기	34.1	쇼핑	32.7
5	-	-	영화보기	24.9	등산	22.1	등산	26.2

주: 미취업남성이 참여하고 있는 5순위 여가활동은 유흥 및 구기 종목으로 각각 13.6%를 차지함. 유흥 및 구기종목의 비중이 다른 집단의 5순위 활동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 표에는 기입하지 않음.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 개수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평균 1.9개, 여성이 1.8개로 비슷한 여가 개수를 공유하고는 있으나, 여성의 경우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15.1%로 남성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50대의 여가개수가 1.9개로 60대의 1.7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력 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졸이하는 평균 1.5개, 고졸은 1.9개, 대졸이상은 2.1개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졸이하 응답자의 19.4%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자가 2.0개로 취업자의 1.8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13.2%가 여가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개수별 일반적 특성

(단위: %, 개)

특성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계	평균 (SD)
전체	11.9 (299)	29.0 (728)	31.9 (799)	21.6 (541)	4.2 (105)	1.0 (24)	0.5 (12)	100.0 (2,508)	1.8(1.1)
성별									
남성	8.7	30.6	32.8	23.1	4.0	0.6	0.3	100.0 (1,129)	1.9(1.1)
여성	15.1	27.5	31.0	20.0	4.4	1.3	0.6	100.0 (1,080)	1.8(1.2)
연령대									
50~59세	10.8	26.9	32.1	24.1	4.4	1.1	0.7	100.0 (1,433)	1.9(1.1)
60~69세	14.0	32.8	31.5	17.1	3.9	0.7	0.1	100.0 (776)	1.7(1.1)
학력									
중졸이하	19.4	34.3	28.9	15.0	2.2	0.1	0.0	100.0 (585)	1.5(1.0)
고졸	11.1	28.2	31.6	23.6	4.0	1.1	0.3	100.0 (1,143)	1.9(1.1)
대졸이상	3.0	23.4	36.7	25.8	7.7	1.8	1.6	100.0 (481)	2.1(1.1)
근로활동여부									
취업	13.2	29.1	31.1	21.4	4.0	0.8	0.4	100.0 (526)	1.8(1.1)
미취업	7.7	28.8	34.4	22.1	4.7	1.4	0.9	100.0 (1,683)	2.0(1.1)

다. 여가활동 동반자

여가활동 동반자는 여가활동 참여 개수와 무관하게 여가활동을 혼자만 하는 집단(=0), 가족하고만 하는 집단(=1), 친구 및 직장동료하고만 하는 집단(=2), 단체 및 모임에서만 하는 집단(=3), 그리고 가족부터 단체모임 중 2개 이상의 주체들과 함께 하는 집단(=4)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가활동을 혼자서만 하고 있는 중고령자는 전체의 19.9%, 가족하고만 하는 비중은 28.5%, 친구나 직장동료하고만 하는 비중은 25.2%, 단체나 모임에서 하는 비중은 5.3%,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단체 등 2개 이상의 여가활동 동반자를 가지고 있는 중고령자는 21.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동반자 유형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혼자서만 하는 비중이 증가하지만(50~54세 14.2%

→ 65~69세 24.1%) 복수의 동반자와 함께 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54세 24.0% → 65~69세 16.5%).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혼자서 여가활동을 즐기거나 친구·동료와 여가활동을 즐기는 비중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참여자와 복수의 동반자와 함께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고령자는 가족하고만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중고령자는 친구를 중심으로 여가활동을 하거나 다수의 여가동반자가 있는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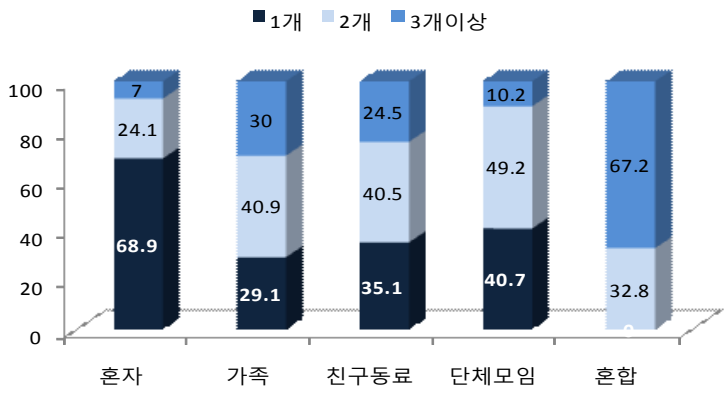
〈표 3-13〉 여가활동 동반자 유형별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혼자	가족	친구·동료	단체·모임	혼합(복수)	전체(명)
전체	19.9	28.3	25.2	5.3	21.2	100.0 (2,209)
성별						
남자	20.8	28.3	22.9	6.6	21.3	100.0 (1,129)
여자	19.0	28.4	27.5	4.0	21.1	100.0 (1,080)
연령대						
50~54세	14.2	31.5	25.7	4.5	24.0	100.0 (774)
55~59세	19.6	28.5	22.5	6.5	22.9	100.0 (659)
60~64세	27.3	25.0	25.7	4.6	17.4	100.0 (436)
65~69세	24.1	25.0	28.5	5.9	16.5	100.0 (340)
교육수준						
중졸이하	26.2	24.8	31.1	4.3	13.7	100.0 (585)
고졸	18.3	28.6	24.1	5.3	23.7	100.0 (1,143)
대졸이상	16.2	32.0	20.6	6.7	24.5	100.0 (481)
근로여부						
미취업	22.4	17.9	32.3	3.6	23.8	100.0 (526)
취업	19.1	31.6	22.9	5.9	20.4	100.0 (1,683)

여가활동 동반자 유형별 여가활동 참여개수를 분석한 결과, 혼자서만 여가활동을 즐기는 집단의 68.9%는 여가활동 개수가 1개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여가동반자를 가진 집단은 3개 이상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67.2%로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 여가활동 동반자 유형별 여가활동 참여개수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세부내용은 걷기나 산책(50.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등산(20.5%), 스포츠관람(15.0%)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걷기와 산책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식(42.5%), 영화관람(35.8%) 등의 순이었으며, 친구나 직장동료와 함께 하는 활동은 걷기·산책(37.9%), 등산(36.9%), 외식(29.1%) 등으로 나타났다. 단체 모임에서는 등산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구기종목 활동 20.3%, 외식과 걷기·산책이 19.5%로 분석되었다. 여가활동 동반자가 2개 이상인 혼합유형에서는 영화보기(57.1%)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외식(50.7%), 등산(45.2%)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4〉 세부 여가활동 내용 상위 5순위(영역별 1순위 및 2순위 활동 포함)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혼자 (n=440)	걷기·산책	등산	스포츠관람	헬스	자전거
	50.9	20.5	15.0	11.1	10.5
가족 (n=626)	걷기·산책	외식	영화	스포츠관람	등산
	43.9	42.5	35.8	29.9	29.6
친구동료 (n=556)	걷기·산책	등산	외식	영화	유흥
	37.9	36.9	29.1	21.8	21.0
단체.모임 (n=118)	등산	구기종목	외식	걷기·산책	스포츠관람
	32.2	20.3	19.5	19.5	16.9
혼합 (n=469)	영화	외식	등산	스포츠관람	걷기·산책
	57.1	50.7	45.2	42.0	40.3

라. 여가활동 일상성과 지속기간

여가활동 일상성은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중 최소 주1회 이상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있는 집단(=3), 여가활동을 월 1~3회만 참여하는 집단(=2), 그리고 여가활동을 년 1~3회만 참여한 집단(=1)으로 구분하였으며, 년 1~3회만 참여하는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가활동을 년 1~3회만 참여하는 비중은 전체의 5.5%였으며, 월 1~3회만 참여하는 응답자는 17.7%, 그리고 나머지 76.8%는 주1회 이상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1회 이상 참여하는 집단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50대에 비해 6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근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서는 여가활동 수행빈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 중 주1회 이상 여가활동 참여비율은 73.1%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월 1~3회만 참여하는 비중도 20.6%로 미취업 집단의 8.4%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3-15〉 여가활동 참여빈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년 1~3회	월 1~3회	주 1회 이상	전체(명)
전체	5.5	17.7	76.8	100.0 (2,209)
성별				
남자	4.9	20.4	74.8	100.0 (1,129)
여자	6.2	14.9	78.8	100.0 (1,078)
연령대				
50~54세	5.4	19.5	75.1	100.0 (774)
55~59세	6.4	21.0	72.6	100.0 (658)
60~64세	4.1	14.7	81.1	100.0 (436)
65~69세	5.9	11.2	82.9	100.0 (340)
교육수준				
중졸이하	6.2	17.3	76.6	100.0 (585)
고졸	5.4	18.8	75.7	100.0 (1,141)
대졸이상	5.0	15.6	79.4	100.0 (481)
근로여부				
미취업	3.2	8.4	88.4	100.0 (524)
취업	6.2	20.6	73.1	100.0 (1,683)

여가활동 참여빈도에 따른 세부 여가활동 내용을 보면, 년 1~3회만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영화, 외식, 관광 등이었으며, 월 1~3회만 참여하는 활동은 등산, 외식, 영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1회 이상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걷기나 산책, 등산, 외식 등이었다.

〈표 3-16〉 참여빈도에 따른 세부 활동 상위 5순위(영역별 1순위 및 2순위 활동 포함)

순위	년 1~3회(n=122)		월 1~3회(n=391)		주 1회 이상(n=1,694)	
	구분	응답율(%)	구분	응답율(%)	구분	응답율(%)
1	영화보기	44.3	등산	44.2	걷기·산책	46.7
2	외식	34.4	외식	40.9	등산	31.6
3	관광	29.5	영화보기	29.9	외식	29.6
4	걷기·산책	22.1	걷기·산책	26.6	영화보기	28.1
5	등산 및 쇼핑	15.6	쇼핑	22.5	스포츠관람	27.5

지속기간은 3년 미만인 집단(=1), 3년에서 9년인 집단(=2), 10년 이상인 집단(=3)으로 구분하였다. 여가활동의 지속기간이 3년 미만인 응답자는 전체의 20.8%였으며, 3년 이상 10년 미만인 응답자는 43.4%, 10년 이상 여가활동을 지속해 온 응답자는 35.8%를 차지하였다. 여가활동 지속기간이 3년 미만인 집단의 특징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 50대의 비중과 미취업 중고령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0년 이상 여가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집단은 남성, 55세 이상, 중졸 이하 집단, 그리고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7〉 여가활동 지속기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명)
전체	20.8	43.4	35.8	100.0 (2,201)
성별				
남자	19.3	41.7	39.0	100.0 (1,127)
여자	22.4	45.2	32.4	100.0 (1,074)
연령대				
50~54세	22.6	45.8	31.6	100.0 (771)
55~59세	21.6	40.5	37.8	100.0 (656)
60~64세	17.7	42.8	39.8	100.0 (435)
65~69세	19.2	44.5	36.3	100.0 (339)
교육수준				
중졸이하	17.6	44.0	38.4	100.0 (584)
고졸	20.1	44.4	35.5	100.0 (1,138)
대졸이상	26.3	40.3	33.4	100.0 (479)
근로여부				
미취업	24.9	45.9	29.3	100.0 (523)
취업	19.5	42.6	37.8	100.0 (1,678)

여가활동 지속기간에 따른 여가활동 세부내용을 보면, 걷기나 산책, 영화보기, 등산, 외식 등으로 여가활동 지속기간에 따른 여가내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가활동을 10년 이상 지속한 중고령자나 최근 3년 안에 시작한 중고령자가 참여하는 여가활동 내용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3-18〉 지속기간에 따른 세부 여가활동 5순위(영역별 1순위 및 2순위 활동 포함)

순위	3년 미만(n=458)		3년 이상 10년 미만(n=955)		10년 이상(n=788)	
	구분	응답율(%)	구분	응답율(%)	구분	응답율(%)
1	걷기·산책	45.4	걷기·산책	47.1	등산	34.6
2	영화보기	32.5	등산	34.5	외식	35.7
3	외식	31.0	영화보기	30.3	걷기·산책	33.1
4	등산	27.1	외식	29.1	영화보기	26.3
5	스포츠관람	25.3	스포츠 관람	25.7	스포츠관람	26.1

마. 여가비용

여가비용은 중고령자 1인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지출하고 있는 모든 여가비용을 합한 이후 다시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개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즉, 중고령자 1인이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1회에 소요한 평균 비용을 의미한다.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1회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약 28천원으로 최소 0원에서 최대 1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값(1,500천원)은 관광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표 3-19〉 여가활동 1회 평균 비용

(단위: 천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28.3	53.5	0	1,500

주: 여가활동 참여자 2,206명을 분석함.

여가활동 1회 지출 비용이 없는 중고령자는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1만원 이하 지출은 27.7%, 1만원에서 3만원 이하 지출은 30.6%, 1회 여가비용이 5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13.3%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여가활동 1회 지출비용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가지출 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회 여가비용이 증가하였으며, 미취업 집단(22천원)보다는 취업 집단(30천원)의 1회 여가활동 지출비용이 높았다.

〈표 3-20〉 1회 여가활동 지출비용 구간별 일반적 특성

(단위: 천원, %)

구분	평균 (천원)	없음	1만원 이하	1~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전체(명)
전체	28.3	14.5	27.7	30.6	13.9	13.3	100.0(2,196)
성별							
남자	30.8	15.9	25.7	30.3	14.4	13.6	100.0(1,129)
여자	25.8	13.0	29.9	30.9	13.4	12.9	100.0(1,080)
연령대							
50~54세	32.3	8.5	26.8	32.0	15.4	17.3	100.0(774)
55~59세	29.8	14.8	23.6	32.0	16.3	13.4	100.0(659)
60~64세	26.6	17.6	30.0	28.4	14.1	9.9	100.0(436)
65~69세	18.7	23.7	34.9	27.5	5.9	8.0	100.0(340)
교육수준							
중졸이상	20.5	22.0	30.8	30.8	9.3	7.1	100.0(585)
고졸	29.1	12.6	26.6	31.0	16.8	13.0	100.0(1,143)
대졸이상	36.0	9.9	26.6	29.4	12.8	21,4	100.0(481)
근로여부							
미취업	22.1	16.9	32.9	29.2	9.4	11.5	100.0(526)
취업	30.3	13.7	26.1	31.0	15.3	13.8	100.0(1,683)

여가활동별 1회 여가비용을 분석한 결과, 관광의 1회 여가비용이 124.7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쇼핑이 75.4천원, 구기종목 1회 참여비용이 63.6천원, 낚시 58.1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순위 외에 중고령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걷기나 산책의 1회 평균비용은 8.1천원이었으며, 스포츠 관람은 4.7천원, 자원봉사는 10.3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1〉 세부 여가활동별 1회 여가지출비용 상위 10순위

순위	구분	빈도	지출비용(천원)
1	관광	102	124.7
2	쇼핑	209	75.4
3	구기종목	163	63.6
4	낚시	109	58.1
5	외식	483	56.0
6	유흥	165	50.4
7	공연관람	19	38.6
8	요리·다도·생활공예	40	34.0
9	수영	87	32.8
10	등산	469	25.4

바. 희망 여가활동

중고령자의 희망여가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관광(20.2%), 등산(10.7%), 수영(8.2%), 댄스체조(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희망 동반자로는 친구(44.4%), 가족(32.7%), 혼자(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는 가족(38.9%), 여성의 경우는 친구(53.1%)와 함께 하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희망 빈도는 주 2~3회(25.2%), 주 1회(23.8%), 월 1회(16.5%), 월 2~3회(13.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조금 더 일상성을 지니는 여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과 50대는 주 1회를, 여성과 60대는 주 2~3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의 성향으로는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34.5%), 건강증진(28.9%), 휴식과 안정(25.0%),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취미(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 연령별, 근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고령자가 여가활동 비용으로 지출할 의향이 있는 최대 비용은 월평균 20.6만원으로 현재 지출하고 있는 월평균 비용인 13.9만원보다 높게 나타나, 비용을 더 투자해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고령자의 여가 욕구를 짐작해볼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현재 지출하고 있는 월평균 여가비용은 남성이 24.7만원, 여성이 11.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지출의향이 있는 최대비용은 남성이 16.1만원, 여성이 16.7만원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다. 특이할 점은 남성은 현재 지출 비용보다 희망 비용이 약 10만원 정도 더 낮게 나타나 여가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별로는 50대가 60대에 비해 현재 지출비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여가 비용도 같은 패턴을 보였으며 특히, 50대의 희망 여가 비용은 22.4만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 별로는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현재 여가비용을 약 3만원 정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각각 21.7만원, 16.9만원을 지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중고령자의 희망 여가활동의 특성

(단위: %, 명)

특성	성별		연령별		근로활동 여부		전체
	남성	여성	50-59세	60-69세	취업	미취업	
전체	100.0 (1,236)	100.0 (1,272)	100.0 (1,606)	100.0 (902)	100.0 (1,938)	100.0 (570)	100.0 (2,508)
희망여가활동 종류[1]							
관광	19.7	20.7	19.1	22.2	20.5	19.1	20.2 (507)
등산	14.6	6.9	10.7	10.8	11.7	7.4	10.7 (269)
수영	4.3	11.9	8.0	8.5	7.9	9.1	8.2 (205)
댄스체조	2.1	9.7	5.9	6.9	5.2	8.4	5.9 (149)
희망 여가활동 동반자							
가족	38.9	41.5	33.5	30.8	34.1	28.0	32.7 (809)
혼자	18.5	15.2	16.6	17.2	16.5	17.7	16.8 (415)
친구	35.4	53.1	43.1	46.7	42.7	50.2	44.4 (1,097)
동호회	4.7	1.7	3.5	2.6	3.5	2.0	3.2 (78)
친목단체	2.1	1.7	1.8	1.9	1.9	1.6	1.9 (46)
종교모임	0.2	1.2	0.8	0.6	0.8	0.5	0.7 (18)
직장동료	0.2	0.4	0.4	0.2	0.4	0.0	0.3 (8)
희망 여가활동 빈도							
매일	7.0	8.7	6.8	9.8	7.0	10.7	7.9 (194)
주 2~3회	20.2	30.1	24.3	26.8	22.2	35.4	25.2 (623)
주 1회	26.7	21.0	25.5	20.7	24.8	20.4	23.8 (588)
월 2~3회	15.1	12.3	14.0	13.2	14.9	9.5	13.7 (338)
월 1회	18.3	14.7	16.8	15.8	17.6	12.5	16.5 (407)
두 세달에 1~2회	5.1	5.6	5.2	5.7	5.6	4.5	5.3 (132)
1년에 3~4회	7.6	7.7	7.4	8.1	7.8	7.1	7.6 (189)
희망 여가활동의 성향							
휴식과 안정	25.4	24.5	25.3	24.3	26.4	20.0	25.0 (626)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	33.3	35.7	35.1	33.4	33.3	38.6	34.5 (865)
건강 증진	29.1	28.6	27.5	31.4	28.9	28.6	28.9 (724)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취미	8.5	6.7	7.7	7.3	7.7	7.0	7.6 (190)
전문지식이나 기술습득	1.9	2.0	1.9	1.9	1.7	2.8	1.9 (48)
타인·지역사회에 도움	1.3	2.0	1.8	1.3	1.4	2.5	1.6 (41)
제2의 직업 발전 및 기타	0.6	0.6	0.7	0.4	0.6	0.6	0.5 (14)
희망 여가 비용(월평균, 만원)							
최대 지출 의향 여가비용[2]	16.1	16.7	22.4	17.6	21.7	16.9	20.6 (2,502)
현재 지출 여가비용[3]	24.7	11.5	14.9	12.0	14.7	11.3	13.9 (2,192)
차이(희망비용-현재비용)	-8.6	5.2	7.5	5.6	7.0	5.6	6.7

주: 1) 희망여가활동 종류는 상위 4순위까지만 제시한 것으로 합은 100이 아님.
2) 응답자가 여가활동을 위해 한 달에 최대 지출할 의향이 있는 비용(모든 응답자 대상)
3) 여가활동을 위해 한 달에 지출하는 평균적인 비용으로 교통비, 물품구입(의복, 생필품 등)은 제외하고 순수한 여가활동에 드는 비용을 의미함(적극적 여가활동 참가자 대상).

3. 중고령자 여가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여가만족도는 '귀하는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단일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응답범주는 매우만족(=1)에서 매우 불만족(=5)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역코드화하여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점 척도인 여가만족도는 3.52점으로 보통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단체나 모임의 구성원들과 같이 하거나 복수의 여가 동반자가 있는 집단의 여가 만족도가 높았다. 마찬가지로 주 1회 이상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과 여가비용 지출이 없는 집단보다 지출이 있는 집단의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23〉 여가특성에 따른 여가만족도

구분	평균	SD	구분	평균	SD
전체	3.52	.85	전체	3.52	.85
여가동반자			1회 여가비용		
혼자	3.37	.90	없음	3.18	.94
가족	3.41	.87	1만원 이하	3.57	.81
친구동료	3.56	.85	1~3만원 이하	3.56	.80
단체모임	3.83	.81	3~5만원 이하	3.58	.86
혼합	3.67	.71	5만원 초과	3.62	.82
일상성			지속성		
연 1~3회	3.18	.87	3년 이내	3.60	.78
월 1~3회	3.30	.87	3~10년 미만	3.51	.83
주 1회 이상	3.59	.83	10년 이상	3.59	.83

주: 여가만족은 5점 리커트 척도임

중고령자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순위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위로짓분석은 주로 결과변수가 몇 개의 범주로 구성되고, 이 범주들 사이에 서열이 있을 때 사용되는 모형이다. 이 분석은 순서형 혹은 서열형 종속변수에 대한 선택 확률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다항로짓분석과 차이가 있다(최열·박성오, 2009; Pindyck & Rubinfeld, 2001; 강은나·맹진영, 2011 재인용).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서열화된 다항의 선택 확률을 다루는 방법으로 여가만족도는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으로 이루어진 서열척도로서 순위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의 대상은 여가활동 유형 아홉 가지 중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 2,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의 여가활동은 이분변수로 '미참여=0, 참여=1'로 구성되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만을 모형에 투입하였을 때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 근로여부, 그리고 가구소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OR=1.03, $p<.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OR=1.40, $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OR=1.67, $p<.001$), 근로를 하지 않는 집단이(OR=0.54, $p<.0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OR=1.73, $p<.01$) 여가만족도가 높았다.

두 번째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여가활동 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모델2에서는 모델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교육수준(OR=1.22, $p<.001$), 주관적 건강수준(OR=1.61, $p<.001$), 그리고 근로여부(OR=.79, $p<.05$)와 함께 여가활동 종류, 동반자, 일상성, 1회 평균 여가비용 등이 여가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여가활동 종류에서는 스포츠 관람(OR=.57, $p<.001$)과 오락 참여자(OR=.66, $p<.001$)는 비참여자보다 여가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예술활동(OR=2.01, p<.001)과 운동(OR=1.67, p<.001), 그리고 자원봉사활동(OR=1.40, p<.05)은 여가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공연관람, 관광, 취미, 그리고 학습활동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성 중고령자 중심의 스포츠 관람 활동과 외식, 쇼핑, 유흥 중심인 오락활동은 여가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여가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음악활동(악기연주, 노래 등)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과 등산,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는 중고령자의 여가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누구와 하는지에 따라서도 여가만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가족하고만 하는 집단(OR=1.31, p<.05), 친구와 직장동료하고만 하는 집단(OR=1.57, p<.01), 그리고 단체나 모임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OR=3.00, p<.001), 그리고 복수의 주체와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OR=1.88, p<.001)의 여가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단체나 모임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집단의 여가만족도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또는 규칙적으로 하는지도 여가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년에 2-3회 여가활동을 수행한 집단과 월 1~3회 한 집단간의 여가만족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년에 2~3회 여가활동을 한 집단에 비해 주1회 이상 여가활동을 한 집단이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2.27, p<.001). 또한, 여가활동에 드는 비용이 높은 집단일수록 여가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R=1.00, p<.01).

〈표 3-24〉 중고령자의 여가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순위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모델1(인구사회학적 요인)		모델2(여가활동 요인 추가)	
	OR	CI	OR	CI
성별	.94	(0.79-1.09)	1.05	(0.87-1.27)
연령	1.03**	(1.01-1.04)	1.01	(1.00-1.03)
교육수준	1.40***	(1.27-1.53)	1.22***	(1.10-1.35)
배우자유무	1.14	(0.89-1.45)	1.17	(0.88-1.54)
주관적 건강	1.67***	(1.51-1.84)	1.61***	(1.44-1.80)
근로여부	0.54***	(0.41-0.61)	0.79*	(0.64-0.99)
가구소득	1.73**	(1.30-1.36)	1.32	(0.93-1.87)
스포츠관람			0.57***	(0.45-0.72)
문화공연관람			0.99	(0.79-1.23)
문화예술참여			2.01***	(1.42-2.85)
운동			1.67***	(1.32-2.11)
관광			1.40	(0.90-2.16)
취미			1.02	(0.82-1.28)
오락			0.66***	(0.54-0.82)
학습			0.83	(0.55-1.24)
자원봉사			1.40*	(1.01-1.93)
동반자(기준: 혼자)				
가족			1.31*	(1.00-1.70)
친구·동료			1.57**	(1.21-2.04)
단체·모임			3.00***	(1.98-4.54)
혼합(복수)			1.88***	(1.37-2.58)
일상성(기준: 년 1-3회)				
월1-3회			1.23	(0.83-1.84)
주1회 이상			2.27***	(1.55-3.32)
지속기간(기준: 3년 미만)				
2~9년			0.93	(0.74-1.15)
10년 이상			1.10	(0.87-1.39)
1회 평균 여가비용			1.00**	(1.00-1.00)
유효수(N)	2,209		2,192	
Likelihood X^2(df)	157.70(7)***		356.73(25)***	
Log Likelihood	-2604.4609		-2485.7746	
Pseudo R^2	.0294		.0670	

주: 1) 배우자 유무(없음=0, 있음=1), 근로여부(미취업=0, 취업=1), 여가참여여부(미참여=0, 참여=1)
2) * p<.05, ** p<.01 *** p<.001. CI: 95% confidence interval

제2절 은퇴전환기 일과 여가 특성분석

1. 중고령자의 근로활동 현황

본 절에서는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더불어 생애주된일자리, 유사주된일자리, 가교일자리 등의 특성과 함께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의 변화 등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생애주된일자리란 만 15세 이후 가진 일자리 중에서 근속년수가 가장 긴 일자리 혹은 근속년수가 같다면 소득이 더 많았던 일자리를 의미한다. 또한, 유사주된일자리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하였으나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이나 근로소득이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가교일자리는 생애주된일자리와 근로조건이 전혀 다른 일자리를 의미한다.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7.3%는 현재 취업 중이며, 17.9%는 과거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으며, 4.8%는 평생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약 90%는 현재에 일을 하고 있으며, 여성은 약 65%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약 9.4%는 평생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의 경제활동 현황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중졸이하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과거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 경우가 25.5%로 고졸(14.5%), 대졸이상(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25〉 중고령자의 일반적 특성별 경제활동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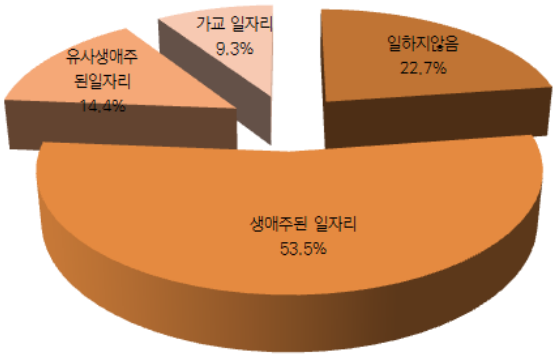
(단위: %, 명)

특성	현재 일을 하고 있음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음	평생 일안함	계(명)
전체	77.3	17.9	4.8	100.0(2,508)
성별				
남성	90.0	9.9	0.1	100.0(1,236)
여성	64.9	25.7	9.4	100.0(1,272)
연령대				
50~59세	83.8	12.5	3.7	100.0(1,606)
60~69세	65.6	27.5	6.9	100.0(902)
학력				
중졸이하	68.5	25.5	6.1	100.0(726)
고졸	80.9	14.5	4.7	100.0(1,286)
대졸이상	80.8	15.7	3.4	100.0(49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3.7	62.9	2.5	100.0(89)
100~200만원 미만	66.9	28.2	4.8	100.0(354)
200~300만원 미만	74.4	19.5	6.2	100.0(437)
300~400만원 미만	82.0	13.0	5.1	100.0(494)
400만원 이상	83.4	12.2	4.3	100.0(1,127)

주: 각 항목별 모름, 무응답 제외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22.7%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53.5%,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했지만 근로조건이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는 14.4% 그리고 생애주된일자리에서 은퇴하여 근로조건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9.3%로 나타났다.

〔그림 3-3〕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형태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하지 않는 비중 또한 증가하며, 중졸 이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생애주된일자리 근무자는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고졸 이상인 학력을 가진 집단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유사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는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교일자리 종사자는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크며, 대졸이상 학력을 지닌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참여형태별 직종을 보면(〈표 3-27〉 참조), 경제활동참여형태에 관계없이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애주된일자리 및 유사생애주된일자리의 경우 기능원 직종의 비중이 가교일자리보다 높은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는 유사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았으나, 생애주된일자리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컸으며, 무급가종사자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용근로자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비율은 유

사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에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26〉 중고령자의 근로활동 참여 형태별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생애주된 일자리	유사생애 주된일자리	가교 일자리	미취업	계(명)
전체	53.5	14.4	9.3	22.7	100.0(2,508)
성별					
남성	61.7	15.3	13.0	10.0	100.0(1,236)
여성	45.6	13.5	5.7	35.1	100.0(1,272)
연령대					
50~59세	59.2	15.3	9.3	16.2	100.0(1,606)
60~69세	43.5	12.7	9.4	34.4	100.0(902)
학력					
중졸이하	47.9	13.2	7.3	31.5	100.0(726)
고졸	56.1	15.5	9.3	19.1	100.0(1,286)
대졸이상	55.0	13.3	12.5	19.2	100.0(496)
가구형태					
독거가구(1인가구)	49.4	11.9	10.1	28.6	100.0(168)
부부가구	48.3	13.5	7.5	30.7	100.0(747)
부부+자녀가구	57.1	14.8	10.1	17.9	100.0(1,449)
기타	49.3	17.4	10.4	22.9	100.0(144)

주: 각 항목별 모름, 무응답 제외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근속기간은 생애주된일자리가 19.1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유사생애주된일자리 9.8년, 가교일자리 4.4년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서는 경제활동참여형태별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월평균 근로소득은 생애주된일자리 약 262만원, 유사생애주된일자리 약 229만원, 그리고 가교일자리 약 211만원으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비해 근로활동 참여형태별 근로소득의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7〉 경제활동참여자의 일자리 특성

(단위: %)

구분	생애주된 일자리	유사생애주된 일자리	가교 일자리	전체(명)
전체	69.3	18.6	12.1	100.0 (1,938)
직종				
관리자	4.7	3.9	4.7	4.5 (88)
전문가	3.0	3.0	1.3	2.8 (54)
사무종사자	7.1	4.4	4.3	6.3 (122)
서비스종사자	27.3	26.9	28.2	27.3 (530)
판매종사자	31.5	28.3	25.2	30.1 (584)
기능원	14.8	15.5	6.4	13.9 (270)
농림어업숙련	2.0	0.3	2.1	1.7 (33)
장치·기계·조작·조립	3.1	1.1	1.7	2.6 (50)
단순노무종사자	6.4	16.6	26.1	10.7 (207)
계	100.0	100.0	100.0	100.0 (1,938)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4.4	29.0	27.4	25.6 (495)
임시근로자	4.1	14.5	15.4	7.4 (143)
일용근로자	3.5	7.2	7.7	4.7 (91)
고용주	4.9	1.9	3.8	4.2 (82)
자영업자	58.4	46.2	44.0	54.4 (1,053)
무급가족종사자	4.7	1.1	1.7	3.7 (71)
계	100.0	100.0	100.0	100.0 (1,935)

구분(단위)	생애주된 일자리	유사생애주된 일자리	가교 일자리	평균(표준편차)
현재종사기간(년)	19.1	9.8	4.4	15.6
주당 근무일수(일)	5.9	5.7	5.6	5.8
주당 근무시간(시간)	56.3	53.7	53.7	55.5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262.4	229.7	211.4	250.1
일만족도(5점 기준)	3.4	3.3	3.3	3.4

평소에 여가활동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을 하지 않는 자가 5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가교일자리 참여자의 44.4%, 유사생애주된일자리 참여자 41.3%, 그리고 생애주된일자리 참여자 39.5%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는 일하지 않는 집단은 여가비용 부족 38.5%, 여가시간 부족 22.5%, 피곤해서 11.3%, 의지부족 10.4% 등으로 여가제약요인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여가시간 부족이 60~70%로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여가비용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8〉 근로활동 참여형태에 여가즐김 여부 및 즐기지 못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일하지 않음	생애주된 일자리	유사생애주된 일자리	가교 일자리	전체(명)
여가즐김	59.5	39.5	41.3	44.4	44.8 (1,123)
즐기지 못함	40.5	60.5	58.7	55.6	55.2 (1,3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508)
즐기지 못하는 이유					
여가비용 부족	38.5	15.8	16.5	20.8	20.1 (279)
여가시간 부족	22.5	70.9	67.0	61.5	61.4 (850)
피곤해서	11.3	7.4	9.4	10.8	8.7 (120)
장소정보부족	8.2	1.2	0.9	2.3	2.5 (34)
장소, 시설부족	6.9	1.7	1.9	2.3	2.7 (37)
의지부족	10.4	1.7	3.8	2.3	3.5 (49)
함께 할 사람 없음	2.2	1.2	0.5	-	1.6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385)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동반자를 보면, 일을 하지 않는 집단은 주로 혼자 또는 친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 집단은 가족과의 여가활동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1회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중은 일을 하지 않는 집단이 88.4%로 월등히 높았으며,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은

72% 안팎(가교일자리 71.8%~생애주된일자리 73.7%)으로 분석되었다. 여가활동 개수는 일을 하지 않는 집단과 가교일자리 참여집단은 평균 2.0개의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생애주된일자리 혹은 유사생애주된일자리 참여자는 1.8개와 1.7개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가활동 1회에 지출되는 비용이 없는 비중은 일을 하지 않는 집단과 가교일자리 참여집단이 각각 16.9%와 16.4%로 많았으며, 여가활동 1회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일하지 않는 집단이 22천원으로 가장 적고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가 31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근로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일하지 않음	생애주된 일자리	유사생애주된일자리	가교 일자리	전체(명)
여가동반자					
혼자	22.4	19.0	19.6	19.1	19.9(440)
가족	17.9	32.2	34.0	25.5	28.3(626)
친구·동료	32.3	23.1	22.2	23.2	25.2(556)
단체모임	3.6	5.1	6.9	8.6	5.3(118)
혼합	23.8	20.7	17.3	23.6	21.2(4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2508)
일상성					
연 1~3회	3.2	6.2	7.2	5.0	5.5(122)
월 1~3회	8.4	20.1	20.9	23.2	17.7(391)
주 1~3회	88.4	73.7	71.9	71.8	76.8(16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2508)
참여활동개수(SE)	2.0(1.1)	1.8(1.2)	1.7(1.1)	2.0(1.1)	1.8(1.1)
1회 여가비용 없음(%)	16.9	13.3	13.2	16.4	14.5(318)
1회 평균 여가비용 (표준편차, 천원)	22.1 (34.5)	31.3 (65.8)	30.8 (39.4)	24.2 (29.0)	28.3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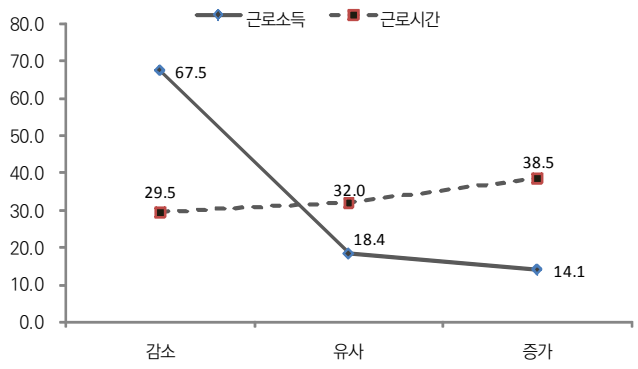
생애주된일자리 퇴직 이후 종사하고 있는 가교일자리의 근로조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67.5%, 근로소득이 증가한 비율은 14.1%였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감소한 비율은 29.5%인 반면 근로시간이 유사하거나 증가한 비율은 70.5%로 나타났다. 즉, 생애주된일자리와 비교할 때 근로시간이 유사하거나 증가한 비율이 70.5%이지만, 근로소득이 증가한 비중은 14.1%로 가교일자리는 근로시간보다는 근로소득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0〉 가교일자리의 근로조건 변화

(단위: 명, %)

구분	소득감소	소득유사	소득증가	계
근로시간감소	64(92.8)	1(1.4)	4(5.8)	69(100.0)
근로시간유사	46(61.3)	22(29.3)	7(9.3)	75(100.0)
근로시간증가	48(53.3)	20(22.2)	22(24.4)	90(100.0)
계	158(67.5)	43(18.4)	33(14.1)	234(100.0)

[그림 3-4] 가교일자리의 근로소득 및 근로시간 변화



2. 성별 및 경제활동 참여경험과 여가특성

성별 및 경제활동 참여여부별 주중 및 주말 여가시간 활용 및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중 여가시간과 주말 여가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남성이 5.0시간과 4.9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주말 여가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이 3.7시간으로 두 번째로 길었으며, 주말 근로시간은 일하는 남성이 4.3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을 하는 여성의 경우, 주중 하루 여가시간은 0.8시간으로 가장 적었으며, 주말 여가시간도 2.6시간으로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여가만족도 역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기반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경제활동 참여경험에 따른 여가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31〉 성별 및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른 여가시간활용 및 여가만족도

구분	미근로 남성	미근로 여성	근로남성	근로여성	전체 평균	F
주중1일 여가시간	5.0	3.7	1.1	0.8	1.7	441.8***
주말1일 여가시간	4.9	3.2	4.3	2.6	3.6	56.1***
여가활동 개수	1.8	2,0	1.9	1.7	1.8	9.225***
여가만족도	3.4	3.5	3.4	3.2	3.4	12.653***

주: 1) 주중1일 여가시간 및 주말1일 여가시간은 설문문항(문4-4와 문4-5)의 '친교활동'과 '적극적 여가활동'에 투입된 시간의 합임.
2) *** p<.001

가.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남성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유형은 퇴직한지 5년이 초과한 집단(4.9%), 퇴직한지 5년 이내인 집단(5.0%), 시간제 근로집단(6.5%), 임금근로 집

단(33.3%), 그리고 비임금 근로집단(50.4%)으로 구분하였다.[19] 각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퇴직한 집단 및 시간제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50대보다 60대가 높고, 임금근로자는 5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중졸 이하인 비중은 퇴직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임금근로자는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퇴직한 집단의 가구소득이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32〉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미취업		시간제	전일제		계(평균)
	퇴직한지 5년이상	퇴직한지 5년이내	시간제 근로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	
전체(명)	4.9 (60)	5.0 (62)	6.5 (80)	33.3 (410)	50.4 (621)	100.0 (1,233)
연령대						
50~59세	1.5	1.6	5.4	37.1	54.5	100.0(803)
60~69세	11.2	11.4	8.6	26.0	42.8	100.0(430)
평균연령	62.8	63.0	59.0	56.7	57.1	57.6
교육수준						
중졸이하	9.8	8.4	10.5	24.7	46.5	100.0(275)
고졸	2.7	3.7	5.5	30.6	57.5	100.0(621)
대졸이상	4.7	4.7	5.0	45.1	40.4	100.0(337)
가구원수	2.4	2.5	2.7	3.2	3.2	3.1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211.4	217.8	354.7	407.7	387.8	375.8

19)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 평생 일을 하지 않은 사례가 1케이스로 분석에서 제외함.

퇴직자의 주중 여가시간이 시간제 혹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많았으며, 근로자의 주말 여가시간은 주중보다 많아졌지만, 비임근근로자의 주말근로시간이 타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퇴직자의 여가시간 활용을 비교해 보면, 주중과 주말 여가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퇴직한지 5년 이내인 집단에 비해 퇴직한지 5년 이상인 집단의 여가시간이 주중과 주말 모두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추가분석 결과, 퇴직한지 5년 이상인 중고령자의 여가시간 축소는 TV 시청 시간 증가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개수는 시간제근로자와 임금근로자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한지 5년 이내인 집단과 비임금근로자의 여가활동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가활동 1회에 소요되는 여가비용은 경제활동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여가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3.4점으로 안팎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33〉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구분	미취업		시간제	전일제		계(평균)	F
	퇴직한지 5년이상	퇴직한지 5년이내	시간제 근로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		
전체(명)	4.9 (60)	5.0 (62)	6.5 (80)	33.3 (410)	50.4 (621)	100.0 (1,233)	-
주중1일 여가시간	4.5	5.3	2.4	1.1	1.0	1.5	147.3***
주말1일 여가시간	4.4	5.3	5.8	4.8	3.8	4.4	10.89***
여가활동개수	1.9	1.7	2.0	2.0	1.8	1.9	3.994**
1회 여가비용	9.2	19.5	51.2	28.7	32.8	30.7	3.960**
여가만족	3.4	3.4	3.5	3.5	3.4	3.4	.800

주: ** p<.01, *** p<.001

남성의 여가활동은 걷기·산책과 등산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퇴직한 집단의 경우 걷기·산책에 참여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경제활동참여자의 경우 30%대로 걷기·산책은 퇴직한 남성 중고령자의 주된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등산은 퇴직한 집단(35% 안팎)보다는 경제활동참여자(40% 상회)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그 밖에 남성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유형에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활동을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스포츠 관람, 구기종목 참여, 낚시, 유흥 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스포츠관람과 외식, 비임금근로자는 외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4〉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요약 I (평균 기준)

구분	공통 활동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활동	주요 동반자	주1회 이상참여
퇴직한지 5년 이상	걷기·산책, 등산	-	혼자	94.9
퇴직한지 5년 이내		음악활동	혼자, 친구·동료	84.5
시간제근로		스포츠관람, 구기종목, 낚시, 유흥	친구·동료, 복수	78.7
임금근로		스포츠관람, 외식	가족	76.6
비임금근로		외식	가족, 복수	69.8

여가시간, 여가활동 개수, 관계망, 일상성을 기준으로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의 질을 종합적으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여가생활이 가장 활발하고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는 주말을 활용하여 운동, 스포츠관람이나 외식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을 함께 할 주체가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여가관계망이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는 남성 중고령자 집단에서 여가의 질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여가시간 및 일상성 부분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이후 과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면, 퇴직 이후 참여하는 여가개수는 적지만 친구나 전 직장동료와 여가활동을 지속 혹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퇴 이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가활동의 개수는 조금 증가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동반자 범위는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된다.

〈표 3-35〉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요약Ⅱ(평균 기준)

구분	여가시간	여가다양성 (개수)	여가관계망 (동반자)	일상성	여가만족
퇴직한지 5년 이상	상	중	하	상	유사 수준
퇴직한지 5년 이내	상	하	중	상	
시간제근로	상	상	상	중	
임금근로	중	상	하	중	
비임금근로	하	중	중	하	

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을 평생일하지 않은 유형, 퇴직한지 5년이내인 유형, 퇴직한지 5년이 안된 유형, 시간제 근로유형, 임금근로 유형, 그리고 비임금 근로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유형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평생일을 하지 않았거나 퇴직한지 5년이 넘은 유형의 평균연령은 59.5세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근로자(56.0세)와 비임금로자(57.3세)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고,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가구소득은 임금근로자와 평생일하지 않은 집단,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퇴직한지 5년 이내인 집단의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미취업			시간제	전일제		계(평균)
	평생 비근로	퇴직한지 5년이상	퇴직한지 5년이내	시간제 근로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	
전체(명)	9.4 (120)	16.1 (205)	9.6 (122)	9.3 (118)	15.1 (192)	40.4 (514)	100.0 (1,271)
연령대							
50~59세	7.4	9.7	12.2	9.0	18.1	43.6	100.0(802)
60~69세	13.0	9.4	22.8	9.8	10.0	35.0	100.0(469)
평균연령	59.5	59.5	58.0	58.5	56.0	57.3	57.8
교육수준							
중졸이하	9.8	11.4	18.7	10.0	11.6	38.5	100.0(449)
고졸	9.0	9.0	12.9	9.2	16.4	43.5	100.0(665)
대졸이상	10.2	7.0	22.3	7.6	19.7	33.1	100.0(157)
가구원수	3.2	2.8	2.8	3.1	3.2	2.9	3.0
가구소득(만원)	368.9	333.3	291.8	333.8	404.2	384.8	364.3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의 주중 여가시간은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보다 많았으며, 주말 여가시간은 비임금 근로자를 제외하고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개수는 퇴직한지 5년 이상자가 2.2개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제 근로자 2.0개, 퇴직한지 5년 이내 1.9개 등이었으며, 임금근로자가 1.5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만족도는 비임금 근로자가 가장 낮고, 평생 일하지 않은 집단이 가장 높았다.

〈표 3-37〉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구분	미취업			시간제	전일제		계(평균)	F
	평생 일하지 않음	퇴직한지 5년이상	퇴직한지 5년이내	시간제 근로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		
전체(명)	9.4 (120)	16.1 (205)	9.6 (122)	9.3 (118)	15.1 (192)	40.4 (514)	100.0 (1,271)	-
주중1일 여가시간	3.9	3.8	3.6	1.7	0.8	0.6	1.9	166.6***
주말1일 여가시간	3.1	3.5	2.9	3.0	3.3	2.2	2.8	8.7***
여가활동 개수	1.8	2.2	1.9	2.0	1.8	1.5	1.8	10.3***
1회 여가비용	26.2	25.8	20.3	23.8	28.0	26.8	25.8	.8
여가만족	3.7	3.6	3.3	3.6	3.3	3.1	3.3	14.9***

주: *** p<.00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유형에 관계없이 영화보기, 걷기·산책 등의 활동은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활동을 살펴보면, 퇴직한지 5년 이상인 유형은 자원봉사활동이나 문화예술활동(음악, 미술)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퇴직한지 5년이내인 유형은 헬스나 수영 등과 같은 건강유지 활동이나 자격증취득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다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가시간에 자원봉사활동이나 정보화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기여활동이나 학습활동 비중이 높았으며, 관광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금근로자는 주로 오락 중심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는 화초 가꾸기를 제외하고 특이할만한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가활동을 주로 같이 하는 동반자는 일을 하지 않은 여성이나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친구와 복수의 주체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는 가족이나 친구로 여가활동 관계망이 축소되어 있으며, 비임금근

로자는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가활동의 일상성도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시간제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주1회 이상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여가활동 일상성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38〉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요약 I (평균 기준)

구분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활동	주요 동반자	주1회 이상참여
평생일하지 않음	댄스체조, 요리·공예	친구, 복수	95.5
퇴직한지 5년 이상	자원봉사. 문화예술참여, 화초가꾸기, 댄스체조, 쇼핑	친구, 복수	82.5
퇴직한지 5년 이내	화초가꾸기, 헬스, 수영, 자격증취득교육	친구, 복수	87.5
시간제근로	자원봉사, 관광, 정보화교육, 등산	친구, 복수	85.0
임금근로	유흥. 외식, 쇼핑, 등산	가족, 친구	72.7
비임금근로	화초 가꾸기	가족, 친구, 혼자	70.5

평생 일을 하지 여성은 여가에 투자하는 시간도 높고, 여러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으나,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다양성은 부족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새로운 여가활동에 대한 도전과 경험이 필요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퇴직한지 5년 이상이 되는 여성의 경우, 여가활동의 다양성부터 여가만족까지 높은 수준으로 여가활동을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퇴직한지 5년이 안된 여성은 여가 시간과 여가관계망 폭도 넓고, 정기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중도 높지만,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개수와 여가 만족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에 참여하는 여

성은 여가시간은 중간 수준이지만, 참여하고 있는 여가개수와 활동내용 등이 다양하고, 여가만족도도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전일제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의 여가활동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근로자의 여가관계망, 그리고 일상적 여가활동 참여수준은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 개수는 타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39〉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특성 요약II (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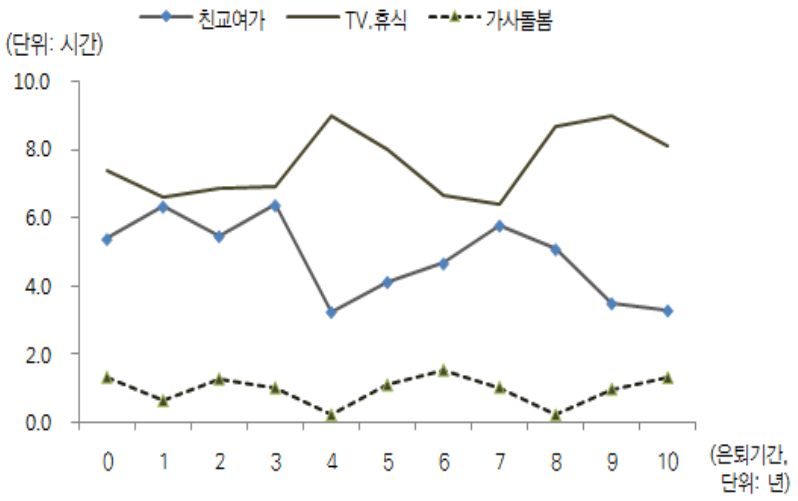
구분	여가 시간	여가다양성 (개수)	여가관계망 (동반자)	일상성	여가만족
평생일하지 않음	상	중	상	상	상
퇴직한지 5년 이상	상	상	상	상	상
퇴직한지 5년 이내	상	중	상	상	중
시간제근로	중	상	상	상	상
임금근로	중	중	하	하	중
비임금근로	하	하	하	하	하

다. 은퇴적응기간과 일상생활 시간활용 변화

과거에 일한 경험이 있는 중고령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 시점이 10년 이내인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한 기간에 따른 여가시간, 휴식시간(TV 시청 포함), 그리고 가사·돌봄 시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가사·돌봄시간의 격차가 크며, 여성의 경우 가사·돌봄시간과 휴식 혹은 여가시간이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남성 은퇴자의 시간활용 변화를 보면, 은퇴 시점과 관련없이 휴식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여가시간, 가사·돌봄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은퇴시점에 따른 가사·돌봄시간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은퇴시점이 4년인 중고령자의 여가시간이 급감하고 휴식시간이 급증한 이후 여가시간이 증가하다가 은퇴시점이 8년 이후부터는 여가시간이 다시 급감하고 휴식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은퇴한지 8년 이후로 중고령자의 여가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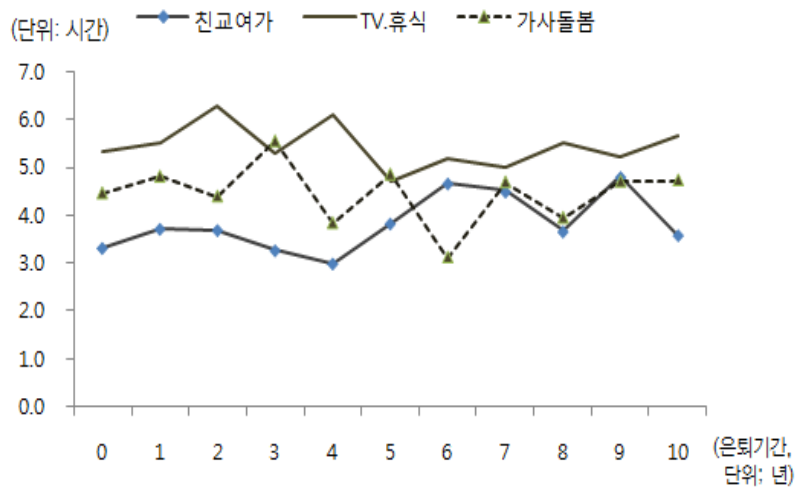
[그림 3-5] 남성 은퇴자의 주중 일상생활 시간활용 변화(n=100)



여성 은퇴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휴식시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은퇴 시점에 따라 가사·돌봄시간과 여가시간의 역전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은퇴 후 4년까지는 가사·돌봄시간이 여가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은퇴 후 5년부터는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휴식

시간과 가사·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6] 여성 은퇴자의 주중 일상생활 시간활용 변화(n=186)



3. 경제활동참가자의 일-여가 균형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일과 여가 균형을 시간활용의 측면과 일-여가균형에 대한 인식측면을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중고령자의 주중 하루 여가시간은 4.0시간인데 비해 경제활동참여자의 주중 하루 여가시간은 1.0시간으로 근로여부에 따른 주중 여가시간 차이가 컸지만, 주말 여가시간은 3.6시간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참가자의 경우, 주로 주말에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성별, 경제활동참여형태, 근로형태, 직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여가시간을 분석하였다. 일을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시간활용 차이를 보면, 근로남성이 근로여성에 비해 주중 여가

시간이 0.3시간정도 많았으며, 주말 여가시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1.7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을 하고 있는 중고령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가생활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참여형태에서는 가교일자리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주중 및 주말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전일제 근무자가 시간제 근무자에 비해 주중 및 주말 여가시간이 적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중 여가활동 시간이 2.0시간으로 전일제 근무자보다 1.1시간 더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판매종사자와 기능원의 주중 하루 근로시간이 10.2시간과 10.0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이로 인해 주중 하루 여가시간도 0.8시간과 0.9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판매종사자와 농림어업종사자의 주말 근로시간이 4.2시간과 5.4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마찬가지로 이들 직종에 속한 중고령자의 주말 여가시간은 2.7시간과 2.8시간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주중 여가시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주말 여가시간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주말 여가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경제활동 참여특성과 일-여가시간 활용

구분	주중 하루		주말 하루	
	근로시간	여가시간	근로시간	여가시간
전체평균				
전체응답자(n=2,508)	7.6	1.7	2.0	3.6
경제활동참여자(n=1,938)	9.8	1.0	2.6	3.6
성별				
근로남성	10.2	1.1	2.5	4.3
근로여성	9.3	0.8	2.8	2.6
경제활동 참여형태				
일하지 않음	0.0	4.0	0.0	3.6
생애주된일자리	9.8	1.0	2.8	3.5
유사생애주된일자리	9.6	1.0	2.3	3.3
가교 일자리	9.7	1.2	2.1	4.1
근로형태				
전일제	10.2	0.9	2.9	3.5
시간제	6.4	2.0	0.6	4.1
직종				
관리자	9.3	2.1	1.1	5.6
전문가	8.7	1.9	0.5	5.1
사무종사자	9.5	1.5	0.3	5.4
서비스종사자	9.8	0.9	2.7	3.3
판매종사자	10.2	0.8	4.2	2.7
기능원	10.0	0.9	1.7	4.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5	1.6	5.4	2.8
장치기계조립	9.9	0.9	1.5	4.3
단순노무종사자	9.2	0.9	1.6	3.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9.6	1.1	0.9	4.5
일용근로자	8.3	1.1	1.1	3.1
임시근로자	9.1	1.0	1.5	4.4
고용주	9.2	1.6	2.6	3.9
자영업자	10.3	0.9	3.7	3.2
무급가족종사자	8.4	0.9	3.3	2.2

종사 직종별 주당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로소득,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여가개수, 일-여가 균형수준[20]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관리자, 전문가, 그리고 사무종사자 그룹의 경우, 주당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월평균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참여하고 있는 여가개수와 일-여가균형 수준도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밖의 직종에 종사하는 중고령자는 대체적으로 주당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길지만, 월평균 근로소득은 적고, 평균 2개 미만의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여가 균형수준은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무시간은 단순노무종사자(46.7시간)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50.8시간)가 적었으며, 여가활동 개수에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1.2개로 여가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종사 직종에 따른 근로현황 및 일-여가균형 수준

구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농림 어업	장치 기계	단순 노무
비율(명)	4.5 (88)	2.8 (54)	6.3 (122)	27.3 (530)	30.1 (584)	13.9 (270)	1.7 (33)	2.6 (50)	10.7 (1,938)
주당 근무일수	5.4	5.3	5.2	5.9	6.2	5.7	6.2	5.7	5.1
주당 근무시간	47.2	42.9	44.4	57.1	62.9	54.5	50.8	51.5	46.7
월평균 근로소득	416.0	439.1	326.8	234.9	251.4	241.5	183.2	248.6	142.9
여가개수	2.2	2.4	2.2	1.7	1.6	1.9	1.2	1.7	1.7
일-여가 균형	3.2	3.3	3.3	2.7	2.7	2.7	2.7	2.8	2.7

주: 일-여가균형은 5점 척도로 구성됨(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20) 일-여가균형은 휴먼경영연구원·명지대학교(2007)에서 수행한 '일과 삶의 균형정책 도입 방안 연구'의 '일과 여가간의 균형' 수준을 묻는 8가지 문항을 활용함(부록1의 설문 문항 18번 참조).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현황 및 일-여가균형 수준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주당근무일수와 주당 근무시간이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적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고용주와 상용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에 비해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개수는 상용근로자가 평균 2.0개, 일용근로자와 고용주가 평균 1.9개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는 평균 1.7개로 여가참여활동이 가장 낮았다. 종사상 지위별 일-여가균형 수준은 상용근로자와 고용주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일-여가균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2〉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현황 및 일-여가균형 수준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평균)
비율(명)	25.6 (495)	7.4 (1443)	4.7 (91)	4.2 (82)	54.4 (1,053)	3.7 (71)	100.0 (1,935)
주당 근무일수	5.3	5.1	4.9	5.9	6.1	6.2	5.8
주당 근무시간	48.3	43.2	43.3	54.3	61.7	54.7	55.5
월평균 근로소득	274.0	127.7	151.5	415.2	265.8	-	250.2
여가개수	2.0	1.8	1.9	1.9	1.7	1.8	1.8
일-여가 균형[1)]	3.0	2.8	2.8	3.0	2.7	2.6	2.8

주: 1) 일-여가균형은 5점 척도로 구성됨(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전일제와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는 약 1일정도 차이가 있으며(전일제 5.9일, 시간제 4.9일), 주당 근무시간은 전일제 58.5시간, 시간제 29.1시간으로 약 28시간 차이를 보였다. 여가활동 개수는 전일제 종사자가 1.8개, 시간제 종사자는 2.0개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중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여가활동참여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일제보다 시간제 종사자가 일-여가 균형수준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43〉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현황 및 일-여가균형 수준

구분	전일제	시간제	계(전체평균)
비율(명)	69.4	10.2	100.0(1,938)
주당근무일수	5.9	4.9	5.8
주당근무시간	58.5	29.1	55.5
월평균 근로소득	260.9	155.7	250.2
여가개수	1.8	2.0	1.8
일-여가 균형	2.8	3.1	2.8

중고령자의 근로형태와 일-여가균형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근로활동 변인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활동참여자의 일과 여가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종, 주당근무시간, 그리고 여가활동개수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여가균형도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직종에서는 관리자를 기준집단으로 할 때,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그리고 단순노무종사자의 일과 여가균형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종에 속한 응답자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약 82%에 해당되며,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전체평균보다 긴 직종이라 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일-여가균형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여가균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개수가 많을수록 일-여가균형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고령자의 성별, 종사상지위, 근무형태(전일제, 시간제), 주당근무일수, 근로소득, 그리고 현재 직장 종사기간은 일-여가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4〉 근로특성이 일-여가균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n=1,935)

구분	Coef.	Std. Err.	t	P>t
성별	-0.033	0.0	-0.94	0.349
연령	0.008*	0.0	2.42	0.015
교육수준	0.126***	0.0	6.15	0.000
로그가구소득	0.205**	0.1	2.86	0.004
직종(기준: 관리자)				
전문가	-0.098	0.1	-0.89	0.374
사무종사자	0.038	0.1	0.42	0.677
서비스종사자	-0.175*	0.1	-2.23	0.026
판매종사자	-0.192*	0.1	-2.42	0.016
기능원	-0.232**	0.1	-2.84	0.005
농림어업숙련	-0.078	0.1	-0.55	0.584
장치기계조작	-0.109	0.1	-0.96	0.340
단순노무종사자	-0.192*	0.1	-2.12	0.034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48	0.1	-0.73	0.468
일용근로자	-0.086	0.1	-1.05	0.293
고용주	0.147	0.1	1.82	0.068
자영업자	0.050	0.0	1.13	0.257
무급가족종사자	-0.328	0.2	-1.79	0.073
근무형태	0.114	0.1	1.79	0.074
주당근무일수	-0.037	0.0	-1.62	0.105
주당근무시간	-0.009***	0.0	-7.06	0.000
로그근로소득	0.044	0.0	1.3	0.194
종사기간	-0.001	0.0	-0.53	0.595
여가활동개수	0.126***	0.0	9.01	0.000
상수	1.841	0.4	5	0.000
유효수		1876		
F(df)		24.98(23)***		
R-squared		.2368		
Adjusted R^2		.2273		

주: 1) 근무형태: 전일제=1, 시간제=2
2) * p<.05, ** p<.01, *** p<.001.

4. 근로활동 참가자의 여가유형분석

가. 분석 개요

1) 여가활동유형 지표

여가활동 종류는 9개로 세분화하였으며, 스포츠 직·간접 관람여부, 영화·공연 관람 여부, 문화예술활동 참여 여부, 운동 여부, 관광 활동 여부, 취미활동 참여여부, 오락활동 참여여부, 학습활동 참여여부, 자원봉사 참여여부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활동은 이분 범주로 참여(=1)와 미참여(=0)로 재코드화하였다. 이와 함께 본 분석에서는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있는 성별과 연령을 LCA 모형에 포함하여 최적의 여가활동 유형을 결정하였다.

〈표 3-45〉 여가활동 지표 설명

지표	주요활동
1, 스포츠 관람	스포츠 경기 직접 혹은 간접관람 등
2. 문화예술 관람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보기 등
3. 문화예술 참여	문예활동, 음악활동, 미용활동, 무용
4. 운동	구기종목, 댄스, 걷기·산책, 등산, 수영 등
5. 관광활동	나들이, 여행 등
6. 취미활동	독서, 요리, 낚시, 놀이, 화초·텃밭 가꾸기 등
7. 오락	외식, 쇼핑, 유흥 등
8. 학습 및 자기계발	어학, 자격증, 정보화, 교양교육 등
9. 자원봉사 활동	사회복지, 문화, 체육, 교통질서 등

2) 여가활동 유형 분석

자료분석방법은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이하 LCA)을 활용하였다.[21] LCA는 연속형이 아닌 범주형 자료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잠재집단 분류에 있어 Maximum likelihood 추정방식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통계적 기준들을 통해 가장 적합한 모형 혹은 잠재집단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 과정은 집단의 개수를 한 개씩 증가시켜 n-1개 집단모형과 n개 집단모형간의 적합도 지수, Entropy 지수, 집단간 통계적 유의성 비교 등을 통해 최적의 잠재집단 개수를 결정하게 된다. 통계적 진단기준은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그리고 SSABIC(sample-size adjusted BIC)가 있으며, AIC, BIC, 그리고 SSABIC 값이 적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집단개수 선택의 통계적 유의성은 Lo-Mendell-Rubin LRT(Lo et al., 2001)를 통해 검증하며, p값이 0.05보다 작으면 k-1개 잠재집단 모델은 기각되고, k개 잠재집단 모델이 채택되게 된다. 엔트로피(entropy; Jedidi et al., 1993)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잠재 집단간 분류가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각각의 잠재집단을 이루는 표본 비율은 전체 표본 대비 최소 1%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ll et al., 2000).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Mplus 7.3을 이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

21) 강은나·이민홍(2014),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양시설 외부 관계자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2). pp.141-142.내용을 참고함.

나. 남성 근로활동 참여자의 여가활동유형

여가활동별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잠재집단이 1개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고, 이후 잠재집단 개수를 한 개씩 증가시켜 가장 적합 모형을 선택하였다. 아래 표를 보면, 잠재집단 개수 1개인 모형에서부터 5개인 모형까지는 AIC, BIC, SSABIC 값이 감소하였으나, 6개 모형에서는 BIC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Entropy 지수는 모두 0.8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표본수의 비율도 모두 1%를 상회하고 있다.

〈표 3-46〉 남성 근로자 여가활동유형의 잠재집단 모델별 적합도(n=1,113)

집단 개수	Akaike (AIC)	Bayesian (BIC)	SSABIC	Entropy	Lo, Mendell, Rubin test	집단별 표본수(%)
1	7781.69	7826.82	7798.23	-	-	1,113(100.0)
2	7528.57	7623.85	7563.50	1.000	0.000	358(32.2), 755(67.8)
3	7409.51	7554.94	7462.83	1.000	0.000	185(16.6), 280(25.2), 648(58.2)
4	7318.93	7514.50	7390.63	1.000	0.000	173(15.5), 269(24.2) 627(56.3), 44(4.0)
5	7251.79	7497.52	7341.99	.869	0.000	125(11.2), 45(4.0), 386(34.7), 44(4.0), 513(46.1)
6	7216.28	7512.16	7324.76	.836	0.000	44(4.0), 470(42.2) 345(30.1), 40(3.6), 124(11.1), 90(8.0)

주: 1) Sample-size adjusted BIC

본 분석에서는 BIC의 값이 6개 잠재집단 모형에서 증가하여 모델 적합도 기준에 어긋나므로 5개 잠재집단을 최적의 여가활동 모델로 선정하고자 한다. 5개 집단모형에서 집단1은 125명(11.2%), 집단2는 45명(4.0%), 집단3은 386명(34.7%), 집단4는 44명(4.0%), 집단5는 513명(46.1%)을 차지하고 있다.

잠재집단1의 특성을 보면, 스포츠 관람활동과 오락활동은 집단내 모든 응답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운동에 참여할 확률은 0.75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예술관람이나 관광, 취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잠재집단2에 속한 응답자 모두 문화관람활동과 취미활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을 하고 있는 확률도 0.889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집단은 잠재집단1와 대조적으로 스포츠 관람활동과 오락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3은 운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역의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은 낮으며, 취미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0.458로 운동 다음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잠재집단3에 속한 응답자 비중은 34.7%로 운동과 취미활동을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잠재집단4는 여가활동이 관광으로 점철되는 집단으로 관광 이외의 여덟 가지 여가활동의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5는 다섯 가지 여가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46.1%)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주된 여가활동은 운동이며, 오락활동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 3-47〉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n=1,113)

여가참여 지표		Class 1 (11.2%)	Class 2 (4.0%)	Class 3 (34.7%)	Class 4 (4.0%)	Class 5 (46.1%)
스포츠관람	미참여	0.000	1.000	0.635	0.705	1.000
	참여	**1.000**	0.000	0.365	0.295	0.000
문화예술 관람	미참여	1.000	0.000	1.000	0.727	0.712
	참여	0.000	**1.000**	0.000	0.273	0.288
문화예술 참여	미참여	0.984	0.911	0.978	0.932	0.964
	참여	0.016	0.089	0.022	0.068	0.036
운동	미참여	0.248	0.111	0.314	1.000	0.233
	참여	**0.752**	**0.889**	**0.686**	0.000	**0.767**
관광	미참여	1.000	1.000	1.000	0.000	1.000
	참여	0.000	0.000	0.000	**1.000**	0.000
취미	미참여	1.000	0.000	0.542	0.750	1.000
	참여	0.000	**1.000**	0.458	0.250	0.000
오락	미참여	0.000	1.000	1.000	0.636	0.512
	참여	**1.000**	0.000	0.000	0.364	0.488
학습	미참여	0.968	0.733	0.984	0.932	0.969
	참여	0.032	0.267	0.016	0.068	0.031
자원봉사	미참여	0.936	0.867	0.964	0.932	0.940
	참여	0.064	0.133	0.036	0.068	0.060

남성 경제활동참여자의 다섯 가지 여가활동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잠재집단1은 50대 비중, 고졸 이상자, 전일제, 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전체 평균보다 낮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평균소득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세부 여가활동으로 스포츠 간접관람, 걷기나 등산, 외식이나 유흥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잠재집단1은 여가활동 범위도 넓고, 여가동반자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여가만족도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즉, 여가활동의 범위나 관계망 등이 넓은 것에 비해 여가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잠재집단1을 '소모적다양형'이라고 하였다.

잠재집단2는 대졸 이상자 비중과 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적으며, 월평균 근로소득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활동으로는 문화활동관람은 영화관람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취미활동에서는 독서와 화초·텃밭 가꾸기 비중이 높았다. 운동은 등산과 걷기·산책이 주를 이루며, 여가만족도 및 일-여가 균형은 5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잠재집단의 여가만족도가 가장 높고, 참여하는 여가활동 범위 및 다양한 동반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집단2를 '안정적 다양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3은 중졸이하 학력을 가진 중고령자 비중이 높으며, 주당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비중이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여가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비중도 26.4%(102명)에 이르고 있다. 여가만족도는 3.1점으로 다섯가지 여가유형 중 가장 낮았다. 즉, 다섯 가지 여가유형 중 가장 열악한 유형으로 이 집단의 명칭을 '개인중심 운동형'으로 하였다.

잠재집단4는 관광에 참여한 적이 있는 중고령자로 구성되며,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여가활동 참여율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와 임금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장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가족하고만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며, 여가만족도는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잠재집단3의 이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가족중심 관광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5는 전체의 4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자와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당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혼자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비중과 단체모임을 통해 여가활동을 하

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가만족도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잠재집단은 '자기만족운동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3-48〉 경제활동참여 남성의 여가유형별 특성

(단위: %)

구분	소모적 다양형	안정적 다양형	개인중심 운동형	가족중심 관광형	자기만족 운동형	계(평균)
전체	11.2	4.0	34.7	4.0	46.1	100.0(1,113)
연령대						
50대	79.2	77.8	66.8	63.6	69.8	66.9(778)
60대	20.8	22.2	33.2	36.4	30.2	30.1(335)
교육수준						
중졸이하	15.2	17.8	24.1	18.2	19.1	20.3(226)
고졸	57.6	42.2	53.4	52.3	50.9	52.2(581)
대졸이상	27.2	40.0	22.5	29.5	30.0	27.5(306)
종사지위						
임금	45.8	45.9	38.6	50.0	37.8	39.7(410)
비임금	54.2	54.1	61.4	50.0	61.9	60.1(621)
근무형태						
전일제	94.4	82.2	92.0	90.9	92.2	92.8(1,033)
시간제	5.6	17.8	8.0	9.1	5.8	7.2(80)
동반자						
혼자	0.0	6.7	27.5	2.3	21.4	19.0(192)
가족	29.6	33.3	27.8	50.0	27.9	29.3(296)
친구·동료	26.4	15.6	20.4	15.9	23.8	22.5(227)
단체	4.0	6.7	7.0	4.5	8.4	7.2(73)
복수	40.0	37.8	17.3	27.3	18.5	22.1(223)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011)
주당 근무시간(시간)	54.4	50.4	56.9	52.6	56.2	55.9
월평균가구소득(만원)	415.1	425.4	366.9	448.9	398.7	392.6
여가활동개수(범위)	2.9 (2~6)	3.4 (2~6)	1.6 (0~4)	2.4 (1~5)	1.7 (1~6)	1.9 (0~6)
여가만족도	3.3	3.8	3.1	3.4	3.6	3.4
일-여가균형	2.8	3.3	2.8	2.8	2.9	2.9

주: 여가만족 및 일-여가균형은 5점 리커트 척도임.

다. 여성 근로활동 참여자의 여가활동유형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중고령자의 여가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1개 집단 모델부터 4개 집단 모델까지의 AIC, BIC, SSABIC값은 집단 개수가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있으나, 엔트로피값은 1보다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3개 집단과 4개 집단간의 유의성에서는 4개 집단의 모델 적합도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여성 근로활동 참여자의 여가활동유형은 3개 유형으로 선정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전체 여성근로자의 14.4%, 두 번째 유형은 49.1%, 세 번째 유형은 3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9〉 여성 근로자 여가활동유형의 잠재집단 모델별 적합도(n=825)

집단 개수	Akaike (AIC)	Bayesian (BIC)	SSABIC	Entropy	Lo, Mendell, Rubin test	집단별 표본수(%)
1	5660.63	5703.06	5674.48	-	-	825(100.0)
2	5502.01	5591.60	5531.27	1.000	0.000	301(36.5), 524(63.5)
3	5425.99	5562.74	5470.64	.821	0.001	119(14.4), 405(49.1), 301(36.5)
4	5351.36	5535.26	5411.41	.795	0.108	333(40.3), 87(10.5), 364(44.1), 41(4.9)

주: Sample-size adjusted BIC

여성 근로활동 참여자의 여가유형은 남성 근로활동 참여자의 여가유형에 비해 다양하지 않고,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범위도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잠재집단1은 영화나 공연 관람, 운동, 그리고 취미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오락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잠재집단1을 '상대적 다양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2는 아홉 가지 여가활동에서 참여도가 높은 활동은 하나도 없으며, 특히 오락이나 학습활동 참여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전체의 49.1%로 여가활동수준이 매우 열악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잠재집단2를 '여가취약형'으로 하였다.

잠재집단3은 집단1과 집단2에서 참여하지 않는 오락활동을 모두 참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운동 참여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의 36.5%가 잠재집단3에 포함되어 '여가취약형'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3의 여가활동은 주로 운동과 오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동·오락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3-50〉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n=825)

여가참여 지표		Class 1 (14.4%)	Class2 (49.1%)	Class 3 (36.5%)
스포츠관람	미참여	0.902	0.974	0.894
	참여	0.098	0.026	0.106
문화예술관람	미참여	0.477	0.897	0.631
	참여	**0.523**	0.103	0.369
문화예술참여	미참여	0.908	0.953	0.944
	참여	0.092	0.047	0.056
운동	미참여	0.215	0.528	0.352
	참여	**0.785**	0.472	**0.648**
관광	미참여	0.930	0.987	0.914
	참여	0.070	0.013	0.086
취미	미참여	0.367	0.910	1.000
	참여	**0.633**	0.090	0.000
오락	미참여	1.000	1.000	0.000
	참여	0.000	0.000	**1.000**
학습	미참여	0.862	1.000	0.963
	참여	0.138	0.000	0.037
자원봉사	미참여	0.883	0.961	0.924
	참여	0.117	0.039	0.076

상대적다양형은 대졸 이상자와 시간제 근무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타 유형에 비해 적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친구나 동료와 여가활동을 즐기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으며, 혼자하거나 단체에 소속되어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은 평균 비중보다 낮았다. 여가활동개수는 평균 2.8개이며, 여가활동 만족도 및 일-여가균형 수준 모두 세가지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가취약형은 60대, 중졸 이하, 비임금 근로자, 전일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당 근무시간은 가장 길었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장 낮은 유형이었다. 여가활동을 혼자 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참여하는 여가활동 개수는 0.8개로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비중도 37.8%를 차지하고 있다.

운동·오락형은 고졸 학력 및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여가동반자가 2개 이상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여가활동 내용은 걷기·산책, 관광 비중이 높은 편이며, 오락에서는 외식과 쇼핑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3-51〉 경제활동참여 여성의 여가유형별 특성

(단위: %)

구분	상대적 다양형	여가취약형	운동·오락형	계(평균)
전체	14.4	49.1	36.5	100.0 (825)
연령대				
50대	73.1	66.7	70.1	68.8 (568)
60대	26.9	33.3	29.9	31.2 (257)
교육수준				
중졸이하	23.5	37.8	29.9	32.8 (271)
고졸	58.8	51.6	59.8	55.6 (459)
대졸이상	17.6	10.6	10.3	11.5 (95)
종사지위				
임금	28.6	21.9	33.9	27.2 (192)
비임금	71.4	77.8	66.1	72.7 (514)
근무형태				
전일제	82.4	86.0	86.5	85.7 (707)
시간제	17.6	13.1	14.6	14.3 (118)
동반자				
혼자	14.3	37.3	6.3	19.3 (130)
가족	36.1	31.0	38.2	35.1 (236)
친구동료	28.6	23.0	22.3	23.7 (159)
단체	1.7	5.2	5.0	3.9 (26)
복수	19.3	5.2	28.2	18.0 (121)
소계	100.0	100.0	100.0	100.0 (672)
주당 근무시간(시간)	52.3	57.0	53.2	54.9
월평균가구소득(만원)	407.2	368.7	390.1	382.0
여가활동개수(범위)	2.8 (2~6)	0.8 (0~2)	2.4 (1~6)	1.7 (0~6)
여가만족도	3.6	3.0	3.4	3.2
일-여가균형	2.9	2.6	2.8	2.7

주: 여가만족 및 일-여가균형은 5점 리커트 척도임.

제3절 여가활동의 경제적 평가

1. 여가비용의 형평성분석

가. 분석방법

1) 빈곤률 측정

본 절에서는 Foster, Greer, 그리고 Thorbecke이 제안한 FGT지수를 사용하여 여가지출의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를 이용한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각각의 지표를 개인특성별로 분해하였다. FGT지수가 단조성 공리와 이전민감성 공리, 그리고 가법성 공리를 만족할 뿐 아니라, 소득원천별-인구집단별 분해에도 쉽게 활용가능하다. FGT 지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at{P}(z;\alpha) = \frac{\sum_{i=1}^{n} w_i (z - y_i)_+^{\alpha}}{\sum_{i=1}^{n} w_i}$$

단, z:빈곤선, $x_+ = \max(x, 0)$,
w_i: 관측치 i(가구)의 표본가중치와 관측치 i의 규모(가구원수)를 곱한 값
y_i: 관측치 i의 소득(가처분소득)

FGT지수는 일반적으로 그 값이 0~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정규화 하여 제시하며, 정규화한 FGT 지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hat{\bar{P}}(z;\alpha) = \hat{P}(z;\alpha)/(z)^{\alpha}$$

FGT 지수는 모수 α 값에 따라 빈곤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즉, $\alpha = 0$일 때는 빈곤율(headcount ratio)을 의미하며, $\alpha = 1$일 때는 빈곤율과 정규화된 빈곤갭 비율의 곱으로 표현된 빈곤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때 표본을 구성하는 각 집단별로 FGT지수를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hat{P}(z;\alpha) = \sum_{g=1}^{G} \hat{\phi}(g)\hat{P}(z;\alpha;g)$$

$\hat{P}(z;\alpha;g)$: 표본의 하부집단의 FGT지수
$\hat{\phi}(g)$: 추정된 하부집단의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hat{\phi}(g)\hat{P}(z;\alpha;g)$: 총빈곤율에 대한 하부집단의 절대적 기여도
$\hat{\phi}(g)\hat{P}(z;\alpha;g)/\hat{P}(z;\alpha)$: 총빈곤율에 대한 하부집단의 상대적 기여도

2) 불평등 측정

지니계수(Gini index)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화된 지표로 절대적 평등선인 45도선과 로렌츠 곡선 간의 차이의 비율(ratio), 즉 사선 아래쪽의 삼각형 지역이 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된다.

$$Gini = 1 - \sum_{i=1}^{n} (y_i + y_{i+1})(n_{n+1} - n)$$

이를 전체 표본의 하부집단별로 분해하여 각 하부집단이 전체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기위해 지니계수를 각 집단별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Gini = \sum_{g=1}^{G} \phi_g \varphi_g I_g + \bar{I} +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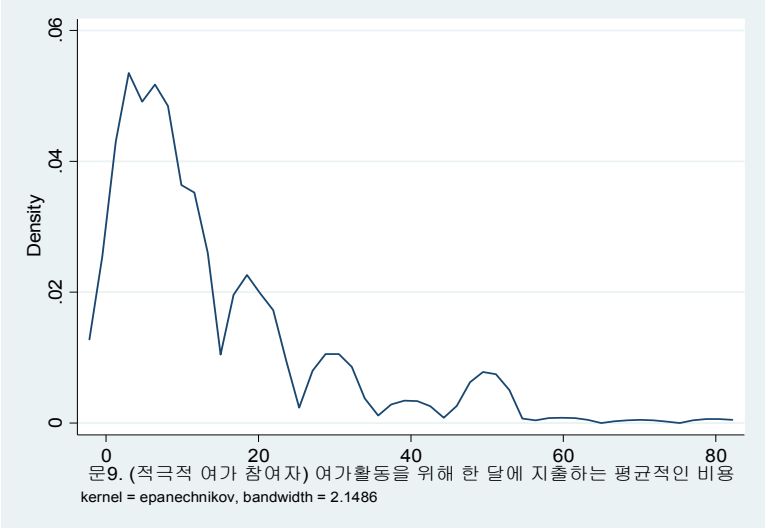
ϕ_g는 하부집단 g가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φ_g는 하부집단 g가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여가지출 점유율, $\bar{I}$는 집단간의 불평등도(between -group inequality), 그리고 R은 잔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부집단 g가 전체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φ_g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나. 분석결과

1) 여가지출의 상대빈곤율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응답한 50~69세의 2,508명중 적극적 여가에 참여하고 있는 2,192명만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을 위해 한 달에 지출하는 평균적인 비용, 즉 교통비, 물품구입(의복, 생필품 등)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가활동에 드는 비용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금액은 0원에서 80만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참여를 위해 월지출금으로 0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지출액은 13.85만원이지만 중위지출액은 10만원으로 나타나 우측으로 꼬리가 긴 분포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적극적 여가 참여자의 월평균 여가지출비용의 밀도함수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월평균 여가지출액을 살펴보면, 남성의 여가지출액이 여성보다 4.63만원 더 높은 16.1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가지출비용은 줄어들어 50~54세는 15.85만원을 지출하는데 반해 65~69세는 9.68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학력수준에서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여가지출액이 늘어나 중졸이하가 9.74만원인데 반해 전문대졸이상은 18.54만원으로 두 배에 달했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대도시 거주자의 여가지출액이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1.66만원 높은 14.55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14.65만원, 과거근로활동참여자는 10.95만원, 그리고 평생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12.71만원으로 과거근로활동참여자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장 낮은 1분위에서 8.97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4분위에서는 19.44만원으로 거의 두 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

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독거가구가 9.73만원으로 가장 낮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가구에서 14.6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별로 살펴보면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 17.78만원, 매우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9.87만원으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여가지출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지출 상대빈곤율의 기준으로 중위지출액의 50%수준인 5만원을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율의 기준으로 중위값의 50%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은퇴전환기에 있는 50~69세 응답자의 22.5%가 월평균 5만원 이하의 여가지출비용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살펴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분해(decomposition)하여 각 집단의 빈곤율에 미치는 기여율을 살펴본다. 특정집단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그 집단내부의 빈곤율 또는 불평등도를 낮춘다면 전체 빈곤율 또는 불평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집단별 빈곤율과 상대적 기여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상대빈곤율은 24.8%로 남성의 20.3%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전체 빈곤율에 대한 상대기여율도 53.8%로 남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50~54세의 빈곤율은 19.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여 55~59세의 19.7%, 60~64세의 26.9%, 그리고 65~69세에 35.1%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 빈곤율에 대한 집단별 상대적 기여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50~54세는 26.4%로 65~69세의 23.9%보다 더 높은데 이는 50~54세 집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35.0%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학력수준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32.8%, 고졸 20.7%,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이 14.4%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지출이 높아

져 빈곤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빈곤율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고졸이 47.5%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이상에서는 14.0%로 가장 낮은 기여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한 중소도시에서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상대적 기여율은 대도시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현재근로활동 참여자는 20.2%로 가장 낮고 과거근로활동 참여자는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상대적 기여도는 현재근로활동참여자가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1분위에서 36.3%를 나타냈으며 4분위에서는 14.7%를 나타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상대빈곤율은 낮아지고 기여율도 1분위가 42.6%로 가장 높고 4분위가 1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이 전체 여가 빈곤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독거가구에서 30.5%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나타냈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구에서 20.1%로 가장 낮은 빈곤율을 나타냈다.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부부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구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별로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낮은 수록 빈곤율이 높아지지만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빈곤율은 19.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상대적 기여도는 5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현재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학력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출을 지원해준다면 전체적 빈곤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5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가지출액

(단위: 명, %, 만원)

구분		명(%)	평균(SD)
전체		2,186 (100.0)	13.85 (14.12)
성별	여자	1,070 (48.8)	11.48 (11.56)
	남자	1,122 (51.2)	16.11 (15.87)
연령대	50세~54세	768 (35.0)	15.85 (14.75)
	55세~59세	656 (29.9)	13.73 (13.96)
	60세~64세	432 (19.7)	13.72 (14.44)
	65세~69세	336 (15.3)	9.68 (11.40)
학력	중졸이하	579 (26.4)	9.74 (10.82)
	고졸	1,133 (51.7)	13.97 (13.49)
	전문대졸 이상	480 (21.9)	18.54 (17.28)
지역	대도시	1,268 (57.9)	14.55 (14.67)
	중소도시	924 (42.2)	12.89 (13.29)
경제활동	현재 근로활동 참여자	1,671 (76.2)	14.65 (14.58)
	과거 근로활동 참여자	414 (18.9)	10.95 (12.10)
	평생일안함	107 (4.9)	12.71 (12.59)
가구소득	1분위	578 (26.4)	8.97 (10.05)
	2분위	554 (25.3)	13.72 (13.13)
	3분위	701 (32.1)	15.25 (14.40)
	4분위	353 (16.2)	19.44 (17.80)
가구형태	독거가구	141 (6.4)	9.73 (10.75)
	부부가구	638 (29.1)	13.28 (13.40)
	부부+자녀	1,296 (59.1)	14.60 (14.70)
	부모+부부+자녀(손자녀)	87 (4.0)	13.82 (14.89)
	기타	30 (1.4)	13.03 (12.28)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232 (10.6)	17.78 (16.53)
	건강한 편임	1,300 (59.3)	14.20 (13.84)
	보통	467 (21.3)	12.59 (13.71)
	건강하지 않은	155 (7.1)	9.85 (11.47)
	매우 건강하지 않음	38 (1.7)	9.87 (16.08)

〈표 3-5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여가지출의 상대빈곤율 분해

(단위: %)

구분		빈곤율	점유율	절대빈곤율	상대기여율
전체		22.5	100.0	22.5	100.0
성별	여자	24.8	48.8	12.1	53.8
	남자	20.3	51.2	10.4	46.2
연령대	50세~54세	16.9	35.0	5.9	26.4
	55세~59세	19.7	29.9	5.9	26.2
	60세~64세	26.9	19.7	5.3	23.5
	65세~69세	35.1	15.3	5.4	23.9
학력	중졸이하	32.8	26.4	8.7	38.5
	고졸	20.7	51.7	10.7	47.5
	전문대졸 이상	14.4	21.9	3.1	14.0
지역	대도시	20.3	57.8	11.7	52.1
	중소도시	25.5	42.2	10.8	47.9
경제활동	현재 근로활동 참여자	20.2	76.2	15.4	68.4
	과거 근로활동 참여자	31.4	18.9	5.9	26.4
	평생일안함	24.3	4.9	1.2	5.3
가구소득	1분위	36.3	26.4	9.6	42.6
	2분위	20.9	25.3	5.3	23.5
	3분위	16.1	32.0	5.2	22.9
	4분위	14.7	16.1	2.4	10.5
가구형태	독거가구	30.5	6.4	2.0	8.7
	부부가구	25.4	29.1	7.4	32.9
	부부+자녀	20.1	59.1	11.9	52.9
	부모+부부+자녀(손자녀)	20.7	4.0	0.8	3.7
	기타	30.0	1.4	0.4	1.8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18.1	10.6	1.9	8.5
	건강한 편임	19.6	59.3	11.6	51.7
	보통	25.7	21.3	5.5	24.3
	건강하지 않은	36.8	7.1	2.6	11.6
	매우 건강하지 않음	50.0	1.7	0.9	3.9

2) 여가지출의 불평등도

집단별 불평등도와 상대기여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지니계수가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상대적 기여도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

대별로도 50~54세의 불평등도는 0.47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65~69세에 0.550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 기여도는 빈곤율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서처럼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50~54세는 13.2%로 65~69세의 1.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0.534, 고졸 0.485,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이 0.482%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상대적 기여도는 고졸이 25.8%로 가장 높고 중졸이하에서 5.2%로 가장 낮은 기여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상대적 기여율은 대도시가 34.9%로 16.7%의 중소도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과거근로활동 참여자가 0.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상대적 기여도는 현재근로활동참여자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1분위에서 0.535를 나타냈으며 4분위에서는 0.483을 나타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불평등도는 다소 낮아지지만 기여율은 3분위에서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독거가구에서 0.532로 가장 높은 불평등도를 나타냈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구에서 0.501%로 기타를 제외한 가장 낮은 불평등도를 나타냈다. 반면 상대적 빈곤율은 부부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구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별로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낮은 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져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불평등도가 0.487이지만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불평등도는 0.678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 기여도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현재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학력이 고졸수준인 대도시에 살고 있는 중상층(3분위)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출을 지원해준다면 전체적 불평등도를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54〉 개인특성별 여가지출의 불평등도 분해

(단위: %)

구분		지니계수	집단구성 점유율	여가지출 점유율	절대 기여율	상대 기여율
전체		0.507	100.0	100.0	50.7	100.0
성별	여자	0.489	48.8	40.5	9.7	19.0
	남자	0.507	51.2	59.5	15.4	30.4
연령대	50세~54세	0.475	35.0	40.1	6.7	13.2
	55세~59세	0.499	29.9	29.7	4.4	8.7
	60세~64세	0.526	19.7	19.5	2.0	4.0
	65세~69세	0.550	15.3	10.7	0.9	1.8
학력	중졸이하	0.534	26.4	18.6	2.6	5.2
	고졸	0.485	51.7	52.1	13.1	25.8
	전문대졸 이상	0.482	21.9	29.3	3.1	6.1
지역	대도시	0.503	57.9	60.8	17.7	34.9
	중소도시	0.512	42.2	39.2	8.5	16.7
경제활동	현재 근로활동 참여자	0.499	76.2	80.6	30.7	60.4
	과거 근로활동 참여자	0.535	18.9	14.9	1.5	3.0
	평생일안함	0.489	4.9	4.5	0.1	0.2
가구소득	1분위	0.535	26.4	17.1	2.4	4.8
	2분위	0.483	25.3	25.0	3.1	6.0
	3분위	0.474	32.0	35.2	5.3	10.5
	4분위	0.483	16.1	22.6	1.8	3.5
가구형태	독거가구	0.532	6.4	4.5	0.2	0.3
	부부가구	0.510	29.1	27.9	4.1	8.2
	부부+자녀	0.501	59.1	62.3	18.5	36.4
	부모+부부+자녀(손자녀)	0.507	4.0	4.0	0.1	0.2
	기타	0.488	1.4	1.3	0.0	0.0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0.487	10.6	13.6	0.7	1.4
	건강한 편임	0.486	59.3	60.8	17.5	34.5
	보통	0.530	21.3	19.4	2.2	4.3
	건강하지 않은	0.557	7.1	5.0	0.2	0.4
	매우 건강하지 않음	0.678	1.7	1.2	0.0	0.0

2. 여가비용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방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가지출액은 좌측으로 기울어 우측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출액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도 6.16%로 여가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인 최소자승법을 사용할 경우 편의가 있는 추정치를 얻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자승법(OLS)을 기준으로 토빗분석(tobit)과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함께 실시한다.

Koenker와 Bassett(1978)에 의해 처음 소개된 분위회귀분석모형(Quantile Regression)은 반응변수 분포의 모든 수준(quantile)에서의 변화율의 추정을 위한 선형모형의 확장으로, 조건부 평균함수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와 일련의 독립변수들간의 평균관계를 나타내는 OLS같은 고전적인 선형회귀분석과 달리 분위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조건부 τ-분위를 중심으로 하는 선형모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좀 더 일반적이다. 독립변수의 영향도를 통제한 후의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일 그 분포의 각 분위별로 종속변수의 결정요인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평균적' 결정요인만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회귀분석으로는 각 분위별 결정요인을 식별할 수 없다. 분위회귀모형은 모형의 오차항(ε)에 대해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OLS와 달리 어떠한 모수적 분포형태(정규분포, 포아송분포, 음이항분포 등)에 대한 가정도 하지 않지만 모형의 결정계수에 대해서는 모수적 형태를 가정한다는 의미에서 준모수적이다. 또한 평균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의 다른 분포수준에서도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수준에서의 분석만으로는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상치(outlier)가 존재하거나 오차항의 분포에 대한 이질적 분산(heterogeneous variance), 즉,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이 자주 나타나는 사회과학에서 분위회귀분석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가지출의 결정요인에 사용된 모형과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n W_i = \alpha + \beta_i X_i + \varepsilon_i$$

$\ln W_i$는 1개월당 평균 여가지출액의 자연대수값이며, X_i는 여가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경제활동, 가구소득, 가구형태, 그리고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로 이루어진 독립변수들을 나타낸다. ε_i는 오차항으로 iid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나. 분석결과

먼저 OLS추정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17.9%더 높은 여가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빗분석에서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17.2%가 나타났지만 분위회귀분석에서는 q2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q50에서 24.2%, q75에서 34.7%로 여가지출분위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는 50~54세를 기준으로 OLS와 토빗분석에서는 55~59세와 65~69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부호가 점차 크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가지출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분위회귀분석으로 살펴보면, q25에서는 65~69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나타냈고 q75에서는 55~59세와 65~69세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부호가 더 크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여가지출은 감소하지만 여가지출 분위가 높아질수록 감소효과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

학력은 중졸이하를 기준으로 학력이 고졸, 전문대졸로 높아질수록 OLS와 토빗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가 커져 학력과 여가지출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분위회귀분석에서는 q50에서는 0.242로 계수의 차이가 없어 중졸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이 높게 나타나지만 거의 비슷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q75에서 전문대졸이상의 계수가 0.220으로 q50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전문대졸의 중졸이하 학력효과는 q50이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 차이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약 15% 내외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OLS와 토빗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가 더 커져 소득과 지출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분위회귀분석결과 여가지출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분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부호가 더 커져 여가지출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5〉 여가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변수		최소자승 (OLS)	토빗 (Tobit)	분위회귀(Quantile)		
				q25	q50	q75
성별 (여성기준)	남성	0.179*** (0.0447)	0.172*** (0.0473)	0.0579 (0.0627)	0.242*** (0.0635)	0.347*** (0.0595)
연령대 (50~54세 기준)	55~59세	-0.099* (0.0517)	-0.106* (0.0546)	-0.116 (0.0709)	-0.0418 (0.0708)	-0.127* (0.0682)
	60~64세	-0.0623 (0.0628)	-0.0673 (0.0664)	-0.116 (0.0903)	0.000 (0.0933)	-0.0148 (0.0818)
	65~69세	-0.271*** (0.0731)	-0.291*** (0.0773)	-0.348*** (0.124)	-0.163 (0.104)	-0.296*** (0.105)
학력 (중졸이하 기준)	고졸	0.157*** (0.0539)	0.166*** (0.0571)	0.0579 (0.0857)	0.242*** (0.0782)	0.0937 (0.0750)
	전문대졸 이상	0.296*** (0.0691)	0.314*** (0.0730)	0.174 (0.110)	0.242*** (0.0830)	0.220** (0.0949)
지역 (대도시기준)	중소도시	-0.159*** (0.0414)	-0.171*** (0.0438)	-0.174*** (0.0657)	-0.0794 (0.0542)	-0.127** (0.0596)
경제활동 (현재경제활동참가기준)	과거근로 활동	-0.0488 (0.0576)	-0.0643 (0.0610)	-0.0579 (0.0863)	0.000 (0.0728)	0.0515 (0.0994)
	평생일안함	0.075 (0.0993)	0.0853 (0.105)	0.000 (0.124)	0.121 (0.156)	0.178 (0.140)
가구소득 (1분위 기준)	2분위	0.314*** (0.0624)	0.330*** (0.0661)	0.348*** (0.102)	0.326*** (0.0859)	0.281*** (0.0836)
	3분위	0.440*** (0.0652)	0.462*** (0.0690)	0.463*** (0.0852)	0.485*** (0.0915)	0.375*** (0.0922)
	4분위	0.584*** (0.0780)	0.603*** (0.0825)	0.521*** (0.135)	0.606*** (0.106)	0.670*** (0.118)
가구형태 (독거가구 기준)	부부가구	0.113 (0.0919)	0.118 (0.0975)	0.116 (0.157)	0.0794 (0.106)	0.16 (0.131)
	부부+자녀	-0.0969 (0.0928)	-0.0988 (0.0984)	-0.116 (0.146)	-0.163 (0.108)	-0.00909 (0.137)
	부모+부부+자녀 (손자녀)	-0.104 (0.136)	-0.0986 (0.144)	-0.116 (0.169)	-0.284* (0.164)	-0.177 (0.227)
	기타	0.0753 (0.193)	0.0676 (0.204)	-0.116 (0.268)	0.201 (0.260)	0.38 (0.234)
건강상태 (매우건강 기준)	건강한 편임	-0.128* (0.0682)	-0.133* (0.0720)	-0.174 (0.110)	-0.0794 (0.0848)	-0.153 (0.0935)
	보통	-0.186** (0.0777)	-0.196** (0.0821)	-0.232* (0.123)	-0.121 (0.104)	-0.171 (0.111)
	건강하지 않음	-0.284*** (0.102)	-0.296*** (0.108)	-0.405*** (0.148)	-0.251 (0.160)	-0.322** (0.148)
	매우 건강하지 않음	-0.543*** (0.171)	-0.605*** (0.182)	-0.693* (0.414)	-0.488** (0.191)	-0.673** (0.309)
관측수		2,186	2,186	2,186	2,186	2,186

주: * p<.05, ** p<.01 ***, p<.001.

3. 여가의 금전적 가치추정

가.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비용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고 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개발되어 있다. 문제는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다. 편익을 비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표현해야 한다. 표준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서는 시장자료를 또는 조건부가치분석(Contingent Valuation Analysis)을 통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WTP) 또는 수용의사액(WTA)을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금전적 가치를 추정한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여가향유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시장자료를 조사하거나 사람들에게 여가에 대한 WTP 또는 WTA에 대한 조건별 질문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50~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금액의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여가활동과 일자리참여를 선택하도록 질문했다.[22] 그리고 만일 응답자가 여가를 선택한다면 처음에 주어진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일자리를 선택한다면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매식 조건부 가치를[23] 이용해 여가의 기회

22) 본 연구에서는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을 2,508명의 10%씩 임의 할당하여 조사함. 가령 1단계에서 5만원의 추가적 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를 제안 했을 때 만일 응답자가 여가를 선택한다면 처음에 주어진 금액보다 높은 8만원을 제시하고 일자리를 선택한다면 더 낮은 3만원을 제시하여 각각에 대해 여가와 근로를 선택하도록 함.

23) 이 방법은 인터뷰된 사람들에게 제시된 가설적 시나리오에 따라 이끌어낸 가치라는 사실에서 유래됨. 최악의 기름유출사건으로 기록된 1989년 3월 24일에 발생한 Exxon Valdez사의 기름유출에 따른 비사용가치손실(non-use value loss)의 추정을 위해 Carson et al.(1992)에 의해 가상가치추정법이 사용됨. 이후 미국정부는 가상가치주정법이 환경재난에 따른 손실추정으로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했으며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은 가상가치추정법은 법정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유용하다는 결론과 함께 가상가치추정법의 사용시

비용을 추정했다. 비록 경매식 조건가치추정법이 가장 오래되고 많이 이용되지만 처음에 제시된 금액이 응답자의 지불용의액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출발점 편의(bias)가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제시된 금액의 크기를 확대하여 여가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한다. 여가활용의 편익에 대한 소득보상함수는 다음과 같은 지불의사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WTP(L) = f(w, X)$$

w는 현재 활용하고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제시된 추가소득이며 X는 응답자의 특성이나 기호를 나타내는 벡터로 성별, 연령, 학력, 지역, 가구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가구유형, 건강상태를 포함한다.

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표 3-56〉처럼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을 2,508명의 10%씩임의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추가적 근로소득으로 1만원을 제시 했을 경우 여가를 선택한 비율이 82.9%, 근로를 선택한 비율이 17.1%로 여가선택이 월등히 높았으며 다시 3만원을 제시했을 경우 여가를 선택했던 209명중에 84.8%가 여전히 여가를 선택하고 15.3%만이 근로를 선택했다. 반면 추가적인 근로소득으로 50만원을 제시한 집단에서는 여가를 선택한 비율이 15.8%, 근로를 선택한 비율이 84.2%로 근로선택이 월등히 높고 근로를 선택한 집단에게 1단계 제시액보다 낮은 40만원을 제시 했을 경우 여가를 선택한 비율은 5.4%, 여전히 근로를 선택한 비율은 94.6%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사항과 가이드를 제시함(Arrow et al., 1993).

〈표 3-56〉 제시액별 설문 표본개수 및 응답비율

(단위: 명, %)

구분	1단계			2단계			전체
	제시액	응답	명 (%)	제시액	응답	명 (%)	명 (%)
1	1만원	여가	209(82.9)	3만원	여가	177 (84.7)	252 (10.1)
					근로	32 (15.3)	
		근로	43(17.1)	설문 종료	-	- -	
					-	- -	
2	3만원	여가	189(55.6)	5만원	여가	143 (75.7)	250 (10.0)
					근로	46 (24.3)	
		근로	61(24.6)	1만원	여가	27 (44.3)	
					근로	34 (55.7)	
3	5만원	여가	152(59.8)	8만원	여가	106 (69.7)	254 (10.1)
					근로	46 (30.3)	
		근로	102(40.2)	3만원	여가	32 (31.4)	
					근로	70 (68.6)	
4	8만원	여가	115(45.3)	10만원	여가	83 (72.2)	254 (9.8)
					근로	32 (27.8)	
		근로	139(54.7)	5만원	여가	39 (28.1)	
					근로	100 (71.9)	
5	10만원	여가	100(40.7)	15만원	여가	75 (75.0)	246 (10.1)
					근로	25 (25.0)	
		근로	146(15.4)	8만원	여가	15 (15.0)	
					근로	131 (85.0)	
6	15만원	여가	72(28.5)	20만원	여가	55 (76.4)	253 (10.0)
					근로	17 (23.6)	
		근로	181(71.5)	10만원	여가	17 (9.4)	
					근로	164 (90.6)	
7	20만원	여가	70(27.7)	30만원	여가	51 (72.9)	253 (10.1)
					근로	19 (27.1)	
		근로	183(72.3)	15만원	여가	10 (5.5)	
					근로	173 (94.5)	
8	30만원	여가	60(23.7)	40만원	여가	48 (80.0)	253 (10.0)
					근로	12 (20.0)	
		근로	193(76.3)	20만원	여가	14 (7.3)	
					근로	179 (92.7)	
9	40만원	여가	47(18.7)	50만원	여가	35 (74.5)	252 (10.1)
					근로	12 (25.5)	
		근로	205(81.4)	30만원	여가	(0.0)	
					근로	(0.0)	
10	50만원	여가	38(15.8)	설문 종료	-	- -	241 (9.6)
					-	- -	
		근로	203(84.2)	40만원	여가	11 (5.4)	
					근로	192 (94.6)	
총계							2,508 (100.0)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여가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7.82만원에서 10.4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1회 여가지출액이 3.8만원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응답자는 최대 10.45만원의 가치를 두는 여가에 3.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합리적으로 여가를 향유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57〉 여가의 금전적 가치추정 결과

(단위: 만원)

1단계 최대 제시액	WTA	SE	95% 신뢰구간
50만원	10.40	(0.51)	9.39 - 11.41
40만원	10.45	(0.53)	9.42 - 11.48
30만원	9.96	(0.44)	9.09 - 10.83
20만원	9.20	(0.35)	8.52 - 9.88
10만원	7.82	(0.24)	7.36 - 8.28

제4절 소결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은 운동으로 걷기나 산책, 등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외식이나 쇼핑 중심의 오락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습, 관광, 문화예술참여활동 참여율은 저조하였다. 남성의 여가활동은 등산, 걷기·산책, 스포츠 관람으로 대표되며, 여성의 여가활동은 걷기·산책, 외식, 영화보기로 대표된다.

둘째, 전체의 약 12%는 지난 1년간 여가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들 집단의 특징은 남성보다는 여성, 50대보다는 60대, 저학력, 그리고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자의 특성으로는 혼자하는 중고령자는 약 20%에 이르며, 전체의 약 76.8%는 최소 주1회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참가자의 약 14.5%는 여가활동에 드는 비용이 없었으며, 전체의 약 58.3%는 1회 여가활동 비용이 3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활동 내용과 관련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는가가 여가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 제시한 9개의 여가활동 중 문화예술참여, 운동,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포츠 관람과 쇼핑이나 외식, 유흥 중심의 오락활동은 여가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가특성과 관련해서 여가활동을 혼자하는 중고령자의 여가의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나 동료, 단체나 모임에서 타인과 함께 하는 활동의 여가만족 수준이 높았다. 여가의 일상성과 관련해서 최소 주1회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이 월 2~3회 혹은 년 1~3회하는 사람보다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가비용 지출이 없는 사람보다 여가비용 지출이 있거나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가지속기간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고령자의 은퇴전환기적 근로특성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의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의 현황과 일-여가 균형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하지 않는 중고령자의 여가의 질이 일하는 중고령자보다 높았으며, 경제활동 참여형태(생애주된일자리, 유사생애주된일자리, 가교일자리)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50대와 60대의 생애

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를 비교해보면, 직종이나 종사상의 지위는 가교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이에 따라 월평균 근로소득의 차이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 종사자의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생애주된일자리에 근무하든, 가교일자리에 근무하든 관계없이 여가생활의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참여여부와 관련하여 50대의 일하는 중고령자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의 여가의 질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중고령자가 남성에 비해 주중 및 주말 여가시간이 적고, 일-여가 균형수준도 낮아 여가생활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 이후 남성과 여성의 적응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은퇴후 남성은 주로 휴식이나 TV 시청으로 늘어난 자유시간을 보내며, 은퇴기간이 길어질수록 여가시간과 휴식시간의 격차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퇴 여성은 가사·돌봄시간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은퇴 이후 5년을 기점으로 적극적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휴식시간과 가사·돌봄시간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일-여가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종,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로소득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일-여가 균형도가 높고,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여가균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에서는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기계장치조립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무종사자의 여가환경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종에 속한 응답자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해당되며,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전체평균보다 긴 직종이라 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근로자의 여가시

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인이며, 가구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도 여가시간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하였다.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은 성별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바,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를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남성 경제활동참여자의 여가유형은 총 다섯가지 유형으로 소모적다양형(11.2%), 안정적다양형(4.0%), 개인중심운동형(34.7%), 가족중심관광형(4.0%), 그리고 자기만족운동형(46.1%)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개수와 관계망 등을 볼 때 여가취약계층은 개인중심운동형과 자기만족운동형으로 전체 남성 근로자의 약 80%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모적 다양형의 경우, 여가활동 개수나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나 여가만족도나 일-여가균형도는 보통수준으로 안정적다양형에 비해 여가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여성 경제활동참여자의 여가유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상대적다양형(14.4%), 여가취약형(49.1%), 운동·오락형(36.5%)로 남성의 여가유형에 비해 여성의 여가활동 패턴이 단로조운 것을 볼 수 있다. 상대적 다양형은 평균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지만 가구소득도 높다는 특징을 보이며, 여가취약형은 상대적다양형과 대조적으로 평균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여가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은퇴전환기에 있는 50~69세의 중고령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여가취약계층을 선별하고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여가이용자의 여가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위지출액의 50%에 해당하는 여가지출의 상대적 빈곤선은 월

평균 5만원 수준으로 22.5%가 5만원 미만의 여가지출로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분해하면, 현재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학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여가지출 빈곤율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불평등도는 0.50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학력이 고졸수준인 대도시에 살고 있는 중상층(3분위)의 경우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높았다. 따라서 여가지출의 빈곤계층과 불평등수준이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여가지출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지출이 높고 여가지출의 분위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여가지출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가지출은 감소하지만 여가지출 분위가 높아질수록 감소효과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 학력과 여가지출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여가지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약 15% 내외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여가지출 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분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부호가 더 커져 여가지출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여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을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여가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7.82만원에서 10.4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1회 여가지출액이 3.8만원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응답자는 최대 10.45만원의 가치를 두는 여가에 3.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합리적으로 여가를 향유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 4 장

중고령자 여가인식 유형 및 사례조사

제1절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분석
제2절 여가서비스 제공기관 사례조사

4 중고령자 여가인식 유형 및 사례조사

본 장에서는 은퇴 전후에 있는 남성 중고령자가 여가에 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식의 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공급의 측면에서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에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1절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 인식 유형분석

우리나라 남성 중고령자들은 퇴직을 겪으면서 사회적 역할 상실이나 소득중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퇴전 20~40년 시간의 대부분을 경제활동에 투입하였으나, 퇴직과 함께 새롭게 생겨난 자유시간, 잉여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퇴전환기에 있는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전환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남성 중고령자가 희망하는 여가생활의 특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Q방법론에 대한 개괄적인 기술과 연구절차, 연구결과와 함께 유형별 해석결과를 통한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가. Q방법론

Stephenson에 의해 만들어진 Q방법론은 주관성(subjectivity) 측정을 통해(McKeown & Thomas, 1988) 인간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연구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 태도 등을 갖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관성의 세계이며, 주관성은 사람들 간의 소통에 중요한 매개이다(김흥규, 2008). Q방법을 적용할 때 연구자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마음을 확인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Q방법론을 적용하는 이유이다.

과학적 지식의 성립에 있어 설명과 이해라는 양측의 상이성은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뿌리 깊은 논쟁으로 이어져 왔다(박순영, 2012). 양적 방법론은 하나의 현상을 이루는 쪼개어진 여러 변인의 값을 측정하고 일반화를 위한 변수 간의 관계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Q방법론은 인간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주관적 세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인간은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의미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전제하기에 가능한 일이다(김현정, 2014). 즉, 현상을 견인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가는 의미라고 본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쪼개어 질 수 없는 행위적 총체인 주관성을 측정하여 도출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Wittenborn, 1961). 첫째는 변인들 간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 간의 관계(correlations between people)이고, 둘째는 한 개인의 다른 조건들 간의 관계성(correlations between different conditions for the same person)이다. 즉, 하나의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사람들 사이의 서로 다른 생각들 혹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 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생각들을 찾아내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가설 설정에서 가설의 진위를 가리는 양적 방법과는 달리 가설을 추론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 인식 유형과 각 유형의 특성은 추론된 가설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 연구 절차

Q방법론의 적용절차는 〔그림 4-1〕과 같이 Q모집단 구축, Q표본 선정, P표본 선정, Q분류, 자료분석, 자료해석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그림 4-1〕 Q방법론 연구 절차

1단계	Q모집단 구축	⇨	❖ 심층면접 : 중고령자 10명 ❖ 인터넷 조사 : 신문기사, 블로그 등 ❖ 문헌 조사
2단계	Q표본 선정	⇨	❖ 중복문항 가려내기 ❖ 예비조사를 통한 문항 검토 ❖ 전문가의 문항 검토
3단계	P표본 선정	⇨	❖ 연령대와 생애 주된 일자리의 퇴직 여부를 고려하여 총 40명
4단계	Q분류	⇨	❖ 일대일 면접조사, 우편조사 등으로 진행 ❖ 1인당 소요시간 약 25~40분 ❖ 분류결과에 대한 후속질문과 설문지 작성
5단계	자료분석	⇨	❖ PC용 QUANL 프로그램 활용 ❖ 주요인분석
6단계	자료해석	⇨	❖ 1단계 심층면접자료, 4단계의 면접자료 활용 ❖ P표본 중 전형성이 높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추가 전화인터뷰 ❖ 전문가의 해석내용 검토

1) Q모집단 구축과 Q표본 선정

본 연구에서 Q모집단은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에 대한 인식의 총체이다. Q모집단 구축을 위해 심층면접, 신문기사와 블로그 등 인터넷 조사, 문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은 여가에 대한 포괄적인 생각들을 진술문으로 뽑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만을 주목하기보다는 뜻밖의 의견들까지 모두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흥규(2008)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 뿐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서 관심을 보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것이 Q모집단 구축에 유익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은 주로 50대에서 60대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되 퇴직 후에서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인 여가활동 중인 70대 남성 1명과 여성이지만 배우자와 같은 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50대 여성 1명도 포함시켰다.

심층면접은 귀납적 면접방법을 적용하였다. 50대에서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때는 먼저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 후 면접대상자가 언급한 각각의 여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일상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가급적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묻고 그에 대한 생각, 느낌, 감정 등을 다각도로 탐색하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50대 여성에게는 남편과 여가활동을 함께 하게 된 계기, 여가활동 공유 전후의 변화, 남편의 여가활동에 대한 배우자 입장에서의 생각 등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70대 남성의 경우는 퇴직 후 경험, 여가활동 참여 동기, 활동 내용 등을 중심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대상자 모집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복지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지역사회 동호회 모임에 참여 중인 남성 중고령자를 추천받았다. 추천받은 대상자 중 심층면접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전에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후 연구참여와 녹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 심층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45분에서 60분 정도였다.

녹음한 자료는 전사하였고 전사된 자료를 근간으로 Q모집단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을 추출하였다. 진술문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당위적 표현을 담고 있는 문장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투사되어 있으면서 호불호를 가려낼 수 있는 문장들이다. 진술문들 중에는 심층면접 대상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의 문장 혹은 한 개 이상의 단락에서 표출되는 주관성을 복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등 정제된 언어로 재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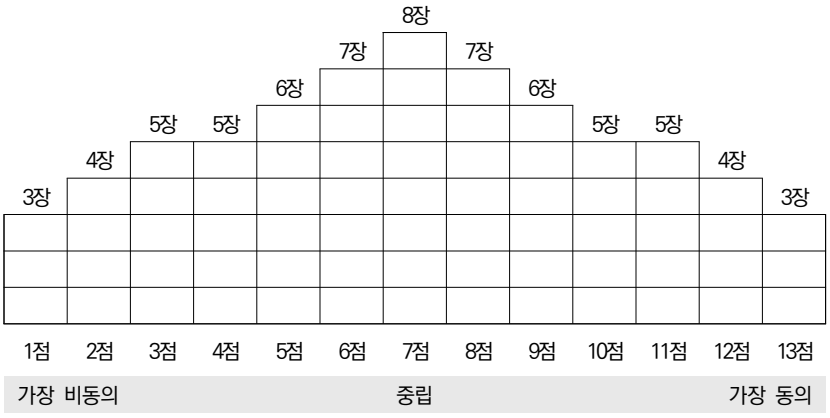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실시한 인터넷 조사와 문헌조사는 심층면접에서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새로운 진술문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인터넷 조사와 문헌조사에서 더 이상 새로운 진술문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축적된 문항은 326개였다. 326개의 문항들에서 의미의 중복성이 없는지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문장의 통합과 해체를 거듭하여 최종적으로 68개의 Q표본을 확정하였다.

Q표본의 개수를 몇 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며, 다만 Q표본은 연구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주로 40개에서 60개의 Q표본이 일반적이며(Watts & Stenner, 2005) 국내의 학계에서는 30개에서 100개 이상까지 허용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Q분류에 참여할 P표본이 50대와 60대 남성이므로 호불호를 가려내야 하

는 진술문의 수가 60개 이상이라 해도 무리가 없으리라는 판단하였다.

최종적인 Q표본의 수를 확정하기 위해 정규분포 모양의 Q분류표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이때 중립에 해당하는 0점을 가정하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종형인 정규분포와 유사한 모양이 되도록 [그림 4-2]와 같은 분포를 확정하였다. 분포도를 확정한 후 최종적인 Q표본의 수는 68개로 하였다.

〔그림 4-2〕 Q분류 분포도



2) P표본 선정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서 Q모집단 구축에 비해 P표본의 선정은 수월한 작업이다. P표본의 선정을 위해서는 연구 주제에 관해 인식의 다양성을 야기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표집하게 된다. 하지만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일부 검증된 변수라 하더라도 재논의의 여지가 있는 변수들까지 고려하는 것은 Q방법론의 과학 이론에 위배된다. 즉, 사람

이 변인이고 항목이 표본이 되므로 피험자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Q방법론은 소표본 원칙을 따르므로 P표본 표집단계에서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표본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요인별로 그 특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김흥규, 2008).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와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여부를 기준으로 총 40명을 표집하였다.

〈표 4-1〉 Q분류에 참여한 P표본 현황

구분	50대	60대	소계
생애주된 일자리 퇴직 전	9	11	20
생애주된 일자리 퇴직 후	7	13	20
계	16	24	40

3) Q분류

Q분류는 한 응답자가 Q표본을 분류하여 각 진술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김흥규, 2008).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 장의 카드에 하나의 진술문이 기록된 68개의 카드를 제작하였다.

Q분류의 진행절차는 연구참여자가 주어진 68개의 진문술 카드를 동의, 중립 혹은 모름, 비동의로 3개 군으로 1차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동의에 속하는 카드 중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부터 순차적으로 가려내게 된다. 동의에 속하는 카드가 소진되기 전에 비동의 진술문들을 앞선 방식과 동일하게 비동의 수준이 높은 진술문에서 낮은 진술문으로 분포도에 할당된 카드 수만큼을 반복적으로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진술문 카드들은 다시 동의수준에 따라 재배열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연구참여자는 하나의 문항을 반복적으로

읽고 반응하게 되고 단지 각 문항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이 아니라 주어진 68개의 진술문에 대한 의견을 구조화시키는 과정이 된다. 이처럼 진술문에 대한 동의수준에 따른 반복적인 분류를 위해서는 분류의 기준이 되는 지시문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Q분류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지시문〕

다음의 68개 진술문 카드에는 퇴직으로 인한 생애전환기를 지나는 남성 중고령자들이 여가와 관련하여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여가생활 혹은 원하는 여가생활의 모습을 떠올리며 분포표의 동의 수준과 할당할 문항 개수를 고려하여 분류하여 주십시오.

Q분류 과정은 피험자에게는 관련 주제에 대한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이며(김흥규, 2008) 연구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일대일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 참여에 응해 왔으나 면접조사가 아닌 우편조사를 원하는 경우에 진행절차를 유선으로 설명하고 Q분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매뉴얼을 동봉하여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매뉴얼에는 단계별 진행절차를 상세히 기술하였고 조사결과 응답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P표본 40명에 대한 Q분류 자료는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QUANL 프로그램에 의한 요인분석은 응답이 유사한 P표본들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연구참여자에 대한 요인값과 각 요인별로 진술문들에 대한 전형성을 나타내는 표준점수를 제공한다.

연구결과의 해석은 상호주관성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Q방법

론의 일반적인 해석방법은 각 요인별로 제시된 문항 중 표준점수의 절대치가 1 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해당요인의 의미를 해석한다.

그러나 상호주관성 연구방법은 각 요인 집단별 찬반이나 호불호를 나타내는 상하위 양극의 문항이 실제로는 한 요인 안에서 공존하고 있으나 그 속성이 완전히 다르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여 해석한다. 이를 위해 표준점수의 절대치가 높은 대표문항을 상하위 각각 10개를 추출하여 해석에 반영한다. 대표문항의 개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10개로 정한 것은 한 유형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10개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로써 기존의 방식을 적용할 때 3개 유형을 해석한다면, 상호주관성 연구방법에서는 해석해야 할 유형이 6개로 늘어난다. 상호주관성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해석할 경우 한 요인 내에서 부각되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드러내고 양측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보다 다양한 가설을 만들어내고 설명력을 높이며, 향후 변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다(김정숙, 2012).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서 해석의 과정은 마치 지저분하게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주어진 단서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형상으로 재구조화시키는 과정과 유사하다. 해석은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해석된 결과가 납득할 만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해석한 내용의 타당도 및 유형별 명명화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Q방법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각 요인별로 대표성이 강한 연구참여자 총 4인에게 전화면접을 통해 유형별 해석된 내용의 주요 특성을 설명하고 그 내용이 자신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았다. 이때, 각 요인의 상위유형은 강하게 동의하는 의견인 반면, 하위유형은 쉽게 표출하기 어려운 생각임을 사전에 밝히고 해석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연구자의 일방적 해석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검증으로 해석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었다.

2. 연구결과

가. 자료분석 결과

자료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에서 급격한 차이가 나타나다가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기점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이순묵, 2000)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요인 3에 적재된 Q 분류 중 약 48.1%가 반대 극에 적재되어 있어 이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독립시켜 네 번째 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전체 변량의 34%를 설명한다.

〈표 4-2〉 요인별 통계치

구분	1요인	2요인	3요인
eigen value	9.5	2.2	1.9
요인별 변량 비율(%)	23.8	5.4	4.8
누적 변량 비율(%)	23.8	29.2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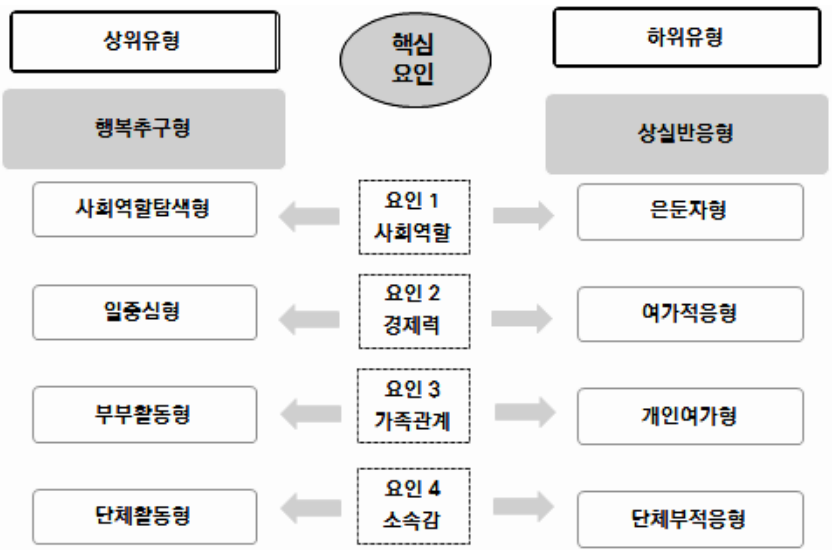
Q분류에 참여한 P표본들의 특성과 어느 요인에 속하는지를 보여준다. P표본의 평균 연령은 60.3세이고 40명 중 38명이 유배우 상태이며,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3명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2명이 보통, 25명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21명이 만족하고 있으며, 18명이 보통, 1명이 불만족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자료분석결과 1요인에는 17명, 2요인에 4명, 3요인에 15명, 4요인에 4명이 포함되었다.[24]

24) P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부표 1-2〉 참고

나.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 인식의 구조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인식의 구조를 도식화 하면 [그림 4-3]과 같다. 여가에 관한 인식을 결정하는 4개의 핵심 요인으로는 1요인에서 사회역할, 2요인에서 경제력, 3요인에서 부부관계 중심의 가족관계, 4요인에서 소속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핵심요인들은 은퇴로 인해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요인들로서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생활에도 이러한 요인들을 배제될 수 없으며,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유형



또한, 각 요인별로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의 세부 특성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은퇴라는 생애전환의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느냐가 여가에 대한 상위유형과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핵심요인으로 작동한다. 은퇴라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반응과 태도로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된다. 은퇴를 수용하는 유형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여가를 생각한다. 반면, 은퇴를 상실로 받아들이고 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가를 생각하는 유형도 있다. 이처럼 은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여가에 대한 인식을 세분화 하는 거시요인(mega factor)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위유형과 하위유형을 가름하는 은퇴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4개의 핵심요인들에 의해 총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1요인은 상위유형에서 사회역할추구형, 하위유형에서 은둔자형으로, 2요인에서는 상위유형은 일중심형, 하위유형에서는 여가적응형으로, 3요인에서는 상위유형은 부부활동형, 하위유형에서는 개인적 여가추구형, 4요인에서는 상위유형은 단체활동형, 하위유형으로 단체부적응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4개의 핵심요인에 대한 상위유형과 하위유형의 구분과 그 특성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행복에 대한 추구 경향을 보이는 상위요인은 긍정적이라 보고, 상실에 대한 반응 경향성을 보이는 하위유형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지만 여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행동양식이 적응적인 유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은퇴라는 상실의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여가에 집중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적응적인 유형과 비적응적인 유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다. 행복추구형(상위유형)과 상실반응형(하위유형)에 대한 해석

1) 행복추구형

행복추구형의 여가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들의 행복 추구는 여가 외에서도 일, 가정, 사회관계 등 다양한 국면에서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중에서 행복추구형이 여가생활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이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잉여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일이나 노동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을 이들은 여가활동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잘 하려고 애쓰거나 경쟁하지 않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통한 일상생활의 여유를 여가활동에서 만끽하고자 한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긴장과 성취감이 행복추구형에게 긍정적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여가에서까지 같은 경험을 원하지는 않는 것이다.

행복추구형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전혀 모르는 활동을 배우고 도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 활동에 재미를 느낀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 여가활동이란 특정 운동이나 거창한 취미활동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남들은 여가활동으로 여기지 않는 사소한 활동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몰입하여 자신만의 재미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행복추구형의 여가생활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이 즐겨하는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과 취미가 같은 사람과 친교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 감사와 행복 등 정서적 만족을 느낄 정도로 대인관계의 상호 친밀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정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다면 이들

은 모임 안에서 성실성과 구성원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활동이든 경쟁심을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관계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더욱이 한 번 시작한 활동은 오랫동안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모임의 구성원들에게 성실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표 4-3〉 행복추구형 대표문항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39. 취미가 같은 사람과 친해지면서 관계로 인해 일상의 감사와 행복을 느낀다	40	9.35	2.38
36. 열정적으로 몰입하다 보면 복잡한 현실을 잊을 수 있어서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40	9.30	2.50
20. 남이 보기에 하찮은 일일지라도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이 들면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겠다	40	9.18	2.88
41. 성인이 된 자녀와도 대화의 소재를 찾으려면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0	9.15	2.37
30.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내를 혼자 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40	9.05	2.48
48. 배우는 일에 돈을 들이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40	9.03	2.71
11. 아내와 여가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대화 시간이 늘고 아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40	9.00	3.49
45. 규칙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40	8.90	2.47
40. 여가활동은 잘 하려고 애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욕심을 버리고 즐기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낫다	40	8.88	2.62
01. 나는 어떤 활동이든지 한 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지속하며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편이다	40	8.83	2.41

행복추구형의 경우 자신이 즐겨하는 여가활동을 가족과 공유할 때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관계의 질이

향상되는 경험을 한다. 가족구성원과 여가생활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함께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행복추구형 중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면 이들은 개인적인 여가활동 대신 가족과의 시간을 적극 할애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면 다른 가족구성원과 선호하는 활동이 다를 때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행복추구형이 상당히 뚜렷하게 활동 중심의 여가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은 규칙적인 활동과 즐거운 몰입의 경험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궁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추구형이 보이는 삶의 태도이다.

2) 상실반응형

여가생활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복추구형과 달리 상실반응형은 여가는 생활 속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로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은신처로 여가생활을 떠올린다. 상실반응형은 여가는 기본적으로 사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반응형이 여가에 보이는 중요한 행동 특성은 스스로 여가에 중독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일상의 행복을 위해 여가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여가를 사치라고 생각하는 상실반응형의 기본적인 가정과도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상실반응형이 이러한 행동적 특성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있다. 이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이라면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정서적인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으로 여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표 4-4〉 상실반응형 대표문항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44.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소감을 관련 사이트에 올린다	40	3.05	1.68
24.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 같다	40	3.35	2.71
15. 매달 저축액이 줄고, 대출금을 빨리 갚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일상의 행복을 위해 여가활동을 포기할 수는 없다	40	4.20	3.18
19. 사람들에게 내놓을 명함이 없이는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다	40	4.35	2.68
23. 나는 남아도는 시간 무엇을 하며 보낼까를 생각하는 것이 괴롭다	40	4.50	3.58
17. 동창회 가면 부자인 친구들이 술값도 먼저 계산하겠다고 하니 나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다	40	4.53	2.86
05. 젊어서는 부모님 부양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까지 챙겨야 하니 나에게 여가는 사치다	40	4.55	2.86
33.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가활동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40	4.55	3.03
12. 나는 운동을 하면서 화와 폭력성을 기분 좋게 분출한다	40	4.95	3.00
38. 모임 활동을 오래 하면서 리더 그룹에 속했다가 후배들에게 밀려 빠지게 되면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다	40	4.98	2.71

상실반응형에게 부정적인 상황은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가에 적극적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땀을 흘릴 수 있는 다소 격렬한 운동에 참여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보다 주목할 것은 은퇴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상실반응형에게는 중대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

가생활을 누릴 만한 심리적, 물리적 여유 없이 경제활동에만 주력하며 중장년기를 맞이한 이들에게 갑자기 맞게 된 남아도는 시간은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따라서 상실반응형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무엇인가 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동안 사치라고만 여겼던 여가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대체로 상실반응형은 일에 만족하고 바쁜 일상을 보낸다면 이들은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실반응형이 여가에 적극적인 것은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여가생활에 주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실반응형이 여가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정서를 행복추구형이 추구하는 행복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실반응형은 여가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의 안도감과 위안을 얻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상실반응형의 주된 여가활동은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로 소일삼아 규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동호회 등 단체 활동에 적극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행복추구형과는 달리 상실반응형은 무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 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단체생활도 불편하게 여긴다. 또한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리더 그룹에 속했다가 그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할 때에는 소외감을 느끼는 등 모임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의식한다. 따라서 혼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소감문을 관련 사이트에 올릴 정도로 이들의 여가생활은 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상실반응형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을 잘 아는 동창생들을 만나서 부담 없이 술을 마시는 정도에 불과하다.

라. 세부유형에 대한 해석

1) 요인 1 상위유형: 사회역할 탐색형

사회역할 탐색형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일상을 보내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일과 여가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일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일이 여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사회역할 탐색형은 일이 즐겁고 일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사회역할 탐색형이 원하는 일은 남들이 하찮게 여길지라도 자신이 그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들이 언급하는 일은 경제활동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자원봉사나 공익형 일자리와 같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면 더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회역할 탐색형은 여가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단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활동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재미추구 수준의 여가에 만족하지 않는다. 사회역할 탐색형은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이라면 그것은 여가보다는 일에 가깝다고 규정하고 자신은 여가가 아닌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생애전환기에 있는 사회역할 탐색형은 과거 일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노년기까지 지속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관심과 흥미가 있다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활동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여가는 의미 있는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표 4-5〉 요인 1 상위유형: 사회역할 탐색형 대표문항

문항	평균	표준편차	z-core 절대치
40. 여가활동은 잘 하려고 애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욕심을 버리고 즐기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낫다	9.88	1.83	1.53
39. 취미가 같은 사람과 친해지면서 관계로 인해 일상의 감사와 행복을 느낀다	9.94	1.68	1.47
01. 나는 어떤 활동이든지 한 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지속하며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편이다	9.41	2.45	1.42
36. 열정적으로 몰입하다보면 복잡한 현실을 잊을 수 있어서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9.47	2.24	1.35
29. 자녀들 출가 후에는 캠핑카를 사서 아내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손자손녀 구경시켜주는 재미로 살고 싶다	8.41	4.14	1.25
48. 배우는 일에 돈을 들이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9.12	3.10	1.23
18.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일에 대한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9.47	2.03	1.23
20. 남이 보기에 하찮은 일일지라도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이 들면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겠다	9.41	2.81	1.19
41. 성인이 된 자녀와도 대화의 소재를 찾으려면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94	2.38	1.15
63. 솔선수범 하여 사회공익활동에 앞장설 때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9.71	2.23	1.12

사회역할 탐색형은 현재 사회적 역할을 재탐색하는 생애과업에 몰두하여 가치 있는 활동을 여가로 여기며 살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일이나 사회적 역할 탐색 외에도 순수하게 활동과 대인관계 중심의 여가생활의 일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부수적일 뿐이다. 또한,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가에서도 아내와 자녀와의 공유를 원지만 실제로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는 먼 미래의 계획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이들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자신이 만족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역할 탐색이기 때문이다.

2) 요인 1 하위유형: 은둔자형

은둔자형은 가족 부양의 책임을 다하느라 여가를 사치라 여기며 살아왔다. 이로 인해 은퇴 후 남아도는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낼지 계획하지 못하였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기준이 명확하고 까다로워서 여가활동에서조차 자신이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선뜻 선택하지 못한다.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의 유의미성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는 이들에게 퇴직 후 자신을 소개할 만한 명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모임 활동에서 리더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불편해서라도 단체활동에 가입하지 않는다.

물론 은둔자형은 막연하게 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나이든 티가 나는 것을 싫어한다. 일이든 여가활동이든 '노인적합형'이라고 하면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쉽고 단순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은둔자형은 자신이 기대하는 역할과 실제로 주어지는 기회의 괴리로 은퇴 후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지가 고심해야 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표 4-6〉 요인 1 하위유형: 은둔자형 대표문항

문항	평균	표준편차	z-core 절대치
44.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소감을 관련 사이트에 올린다	3.00	1.54	2.04
24.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 같다	2.88	2.03	1.94
33.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가활동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3.41	2.27	1.87
23. 나는 남아도는 시간 무엇을 하며 보낼까를 생각하는 것이 괴롭다	4.00	3.26	1.78
19. 사람들에게 내놓을 명함이 없이는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다	4.00	1.97	1.59
38. 모임 활동을 오래 하면서 리더 그룹에 속했다가 후배들에게 밀려 빠지게 되면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다	4.65	2.89	1.55
05. 젊어서는 부모님 부양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까지 챙겨야 하니 나에게 여가는 사치다	4.35	2.18	1.53
15. 매달 저축액이 줄고, 대출금을 빨리 갚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일상의 행복을 위해 여가활동을 포기할 수는 없다	4.00	3.43	1.49
35. 게이트볼 같은 노인적합형 운동은 시시해서 못하겠다	4.29	1.53	1.37
59. 모임명에 나이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티가 나면 그 모임에는 가고 싶지 않다	4.24	2.36	1.35

한편, 은둔자형이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여가활동에 중독될 정도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의 가상적인 상황일 뿐 현재 은둔자형의 모습은 자신의 기준에 맞는 여가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소 고립된 삶의 모습을 보인다. 즉, 은둔자형은 별 여가활동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제한된 활동 밖에 하지 못하고 일상을 보낸다.

3) 요인 2 상위유형: 일중심형

일중심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일을 여가와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하고 있는 일을 퇴직 후에는 여가활동으로 전향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거나,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오랫동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여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는 기대를 강하게 표출한다. 앞서 사회역할 탐색형이 정의한 일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본다면 일중심형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한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일중심형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을 한다면 금세 또 다른 일을 찾아서 취업을 서두르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에 비해 여가활동은 지극히 부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일 중심으로 살아왔지 여가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에 변화를 경험하기는 어려운 유형이다.

일중심형이 이처럼 여가를 등한시하고 일중심의 삶을 고수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어 실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여가활동에까지 지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가활동은 평일동안 일을 하다가 주말에 잠깐 할 수 있는 활동 정도이다. 시간과 돈, 에너지를 들여서 여가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여가라고 생각한다.

〈표 4-7〉 요인 2 상위유형: 일중심형 대표문항

문항	평균	표준편차	z-core 절대치
50.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여가활동으로 지출을 늘이고 싶지는 않다	12.50	0.58	2.44
30.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내를 혼자 둔 것 같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11.50	1.29	1.90
41. 성인이 된 자녀와도 대화의 소재를 찾으려면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1.50	1.73	1.87
26. 주말 농장에서 키운 열무로 김치를 담가 먹는 일은 일상의 보람이자 기쁨이다	10.75	1.71	1.77
45. 규칙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11.00	0.82	1.64
27. 자녀들이 부모에게 재미있는 여가활동으로 인도해 주는 것도 효도 중에 중요한 효도다	9.75	2.50	1.58
28. 행복의 비결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돈 때문에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쓸 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9.41	1.29	1.57
04.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서 행정적인 (예: 회비관리, 소식전달, 모임공지 등)을 맡긴다	10.25	3.10	1.36
09. 나는 소일로 하는 나의 일이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이다	9.50	1.73	1.34
52. 나의 직업과 관련된 일을 퇴직 후에는 여가활동으로 전향해 보고 싶다	9.75	2.50	1.18

일중심형은 돈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돈 때문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일을 돈보다 우선시 하고 원하는 일이라면 돈이 얼마이든 그 일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행복을 찾겠다는 의미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시간을 들이며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이 그토록 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일은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활동이 있다면 여가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가를 생각하지 않고도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건강한 노후의 충분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일중심형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친구나 지인 등과의 친교모임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모임에서는 신뢰를 얻어서 행정적인 일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특정 모임에서의 유대관계에서 상당한 즐거움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러한 친교모임은 남성들만의 모임이고 아내와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의 모임은 아니며 아내와 부부모임으로 모임에 나가는 것을 선호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막연하게 자녀들과 대화의 소재를 찾기 위해 취미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먼저 여가활동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제안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관계보다는 일 중심의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과의 유대보다는 친구 및 지인들과의 친교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중심형이 중고령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가족과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은 낯설고 어색한 일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아내나 자녀 등 가족들이 일중심형의 생활을 지켜본 상태라면 먼저 여가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유형이다.

4) 요인 2 하위유형: 여가적응형

여가적응형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흥미를 끄는 여러 여가활동을 즐기는 유형이다. 이들은 특정 활동에 깊이 몰입하였다가 새로운 관심사가 등장하면 이전에 집중하던 활동 대신 새로운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여가적응형은 다양한 취미활동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여가활동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활동에서부터 소수만이 즐기는 특이한 활동까지 매우 다양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활동이라면 상당한 실력을 가질 정도로 몰입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익숙해지면 새로운 활동을 탐색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일단 현재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중독되

어 있다고 느낄 정도로 몰입하고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금전적인 지출까지 아끼지 않는다. 이들의 여가생활 패턴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 없이는 지속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

여가적응형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며 여가활동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보다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활동을 선호한다. 세계의 정치, 경제, 역사 등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과 토론할 때 생기를 느낀다는 반응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도 소감을 관련 사이트에 올린다는 반응은 혼자 즐기기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여가적응형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혼자서 하는 운동보다는 다소 과격하거나 게임으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게이트볼과 같은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은 여가적응형의 열정적인 에너지 수준에 잘 맞지 않다.

〈표 4-8〉 요인 2 하위유형: 여가적응형 대표문항

문항	평균	표준편차	z-core 절대치
21. 사람을 사귀어야겠다 생각이 들면 사람이 모이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편이다	2.75	1.50	2.00
15. 매달 저축액이 줄고, 대출금을 빨리 갚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일상의 행복을 위해 여가활동을 포기할 수는 없다	3.50	1.73	1.63
44.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소감을 관련 사이트에 올린다	3.00	2.00	1.62
12. 나는 운동을 하면서 화와 폭력성을 기분좋게 분출한다	4.00	2.16	1.57
33.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가활동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3.75	2.75	1.56
47. 세계의 정치경제 역사 등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과 토론할 때 생기가 느껴져서 좋다	2.75	2.36	1.54
66. 고상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따라 해보고 싶다	3.75	1.50	1.49
38. 모임 활동을 오래 하면서 리더그룹에 속했다가 후배들에게 밀려 빠지게 되면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다	4.50	3.11	1.34
35. 게이트볼 같은 노인적합형 운동은 시시해서 못하겠다	4.75	2.87	1.33
19. 사람들에게 내놓을 명함이 없이는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다	3.75	0.96	1.29

여가적응형의 생활에서 여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가활동을 뺀 일상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렇듯 여가를 생활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여기는 것은 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들이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고상한 활동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따라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격상시키고자 한다. 즉, 여가생활이 이들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여가적응형이 모임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떨어졌다고 느끼거나 은퇴 등의 이유로 자신에게 내놓을 명함이 없다고 느낄 때는 모임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고 잘 참여하던 모임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5) 요인 3 상위유형: 부부활동형

부부활동형은 평생 열심히 일을 하며 보냈으니 퇴직 후에는 일에서 벗어나 편히 쉬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막연하게라도 아직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 열정을 쏟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이 필수적인데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새롭게 여가생활을 시작하여 지출을 늘이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져서 생각에만 그칠 뿐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부부활동형은 충분한 연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여가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최고의 노후로 여긴다. 반대로 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퇴직 후 여가생활에만 집중하기보다 경제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퇴직 후 구직 노력을 하지 않고 부부활동형의 모습을 보이려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 성립될 수 있다.

부부활동형은 은퇴 후에 집에서 빈둥거리며 일상을 보내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하릴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아내와의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은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 유익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은퇴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아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새로운 과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활동형은 은퇴 후에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아내와 함께 외부활동을 하고자 적극적인 탐색에 나서게 된다. 부부가 설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찾아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나름의 실천을 한다. 특히, 부부관계의 질이 좋은 상태라면 여가활동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은퇴 후 부부관계가 질적으로 향상된 국면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활동형이 현실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여가활동을 선택하여 그 활동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점 맞춰지지는 않는다. 다만 부부가 함께 규칙적인 활동을 하면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무난한 여가생활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4-9〉 요인 3 상위유형: 부부활동형 대표문항

문항	평균	표준편차	z-core 절대치
36. 열정적으로 몰입하다보면 복잡한 현실을 잊을 수 있어서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10.33	2.38	1.93
11. 아내와 여가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대화 시간이 놀고 아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9.40	3.60	1.79
31. 퇴직 후 경제활동 없이 여가활동만 하는 것도 지루해서 못할 일이다	10.00	2.14	1.79
50.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여가활동으로 지출을 늘이고 싶지는 않다	9.87	2.53	1.65
30.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내를 혼자 둔 것 같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9.13	2.67	1.62
06.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아내와 관계만 악화될 뿐, 남자는 놀더라도 집 밖에서 노는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다	9.41	3.00	1.46
25. 연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여가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생활 같다	8.53	3.40	1.34
62.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을 쏟아보고 싶다	8.53	3.68	1.13
55. 평생 열심히 일 했으니 퇴직 후에는 편히 쉬면서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	9.00	3.34	1.08
45. 규칙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8.93	2.94	1.08

6) 요인 3 하위유형: 개인적 여가추구형

개인적 여가추구형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때 젊어서는 부모 부양하고 나이 들어서까지 자녀 교육과 출가 등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연스레 여가는 사치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한편, 현재의 개인적 여가추구형은 과거의 가치관을 수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몰입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필요에 따라 과감한 경제적인 지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들은 영화를 감상하면서 아마추어 평론가의 수준으로 심취할 수

도 있고, 우연한 기회로 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여가활동을 체험하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 활동에도 매료될 수 있다.

개인적 여가추구형은 단체활동에 가입하여 친교중심의 여가활동을 즐기지는 않는다. 동창생들과의 술자리에서조차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관계 중심의 활동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나 개인적 여가추구형은 자신이 어떤 여가활동을 새롭게 배우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동호회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단체활동도 서슴지 않는다. 퇴직 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내놓지 못할 상황이라면 모임에 나가서 활동하기를 꺼려하지만 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심리적인 부담은 감수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들의 여가생활은 살아오면서 다양한 여가활동의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신선한 자극을 즐기고 탐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알고 익숙한 범위에서 여가생활을 영위해 나가다가 점차로 보다 큰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을 새롭게 탐색한다.

따라서 개인적 여가추구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가활동을 풍부하게 즐기게 되고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활동한다고 느낄 정도로 다채로운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신을 위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여가생활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표 4-10〉 요인 3 하위유형: 개인적 여가추구형 대표문항

문항	평균	표준편차	z-core 절대치
24.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 같다	2.87	2.67	2.35
44.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소감을 관련 사이트에 올린다	2.75	1.91	2.30
08. 종편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다	3.87	2.10	1.76
17. 동창회 가면 부자인 친구들이 술 값도 먼저 계산하겠다고 하니 나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다	4.60	3.79	1.64
05. 젊어서는 부모님 부양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까지 챙겨야 하니 나에게 여가는 사치다	4.07	3.22	1.60
15. 매달 저축액이 줄고, 대출금을 빨리 갚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일상의 행복을 위해 여가활동을 포기할 수는 없다	3.87	3.11	1.59
60.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더 좋다	5.13	3.00	1.53
14. 나는 여러 가지의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컨디션에 따라 선택해서 활동한다	5.00	3.12	1.11
19. 사람들에게 내놓을 명함이 없이는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다	4.93	3.71	1.11
33.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가활동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4.87	2.95	1.10

7) 요인 4 상위유형: 단체활동형

단체활동형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운동이든 자원봉사든 관심이 있어서 가입한 동호회가 있다면 성실하게 참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잘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이들은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임의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면서 그 모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단체활동형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여가활동을 탐색한다. 이들은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여가활동을 통해 보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명확하게 선택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 돈을 쓸 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단체활동형은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신중하게 선택한 다음에는 그 활동이 매우 일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자신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킨다. 여가생활이 일상생활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활동에 중독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매우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혼자보다는 단체에 소속되기를 즐기고 그 모임에서의 사회관계가 단체활동형의 사회관계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의 모임에 집중한다. 그래서 단체활동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라 할지라도 원래 모임의 성격과는 무관한 활동도 그 모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신중하게 선택한 모임인 만큼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자 먼저 노력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지나면 단체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들의 영향력은 모임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체활동형이 갖고 있는 대인관계의 친화력은 모임에서 좋은 입지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표 4-11〉 요인 4 상위유형: 단체활동형 대표문항

문항	평균	표준편차	z-core 절대치
46.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9.41	1.71	1.78
58. 삶의 지혜를 후손에게 전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10.50	2.38	1.77
48. 배우는 일에 돈을 들이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10.00	0.82	1.69
13. 남녀가 섞여 있는 모임(예. 배드민턴, 테니스 등)이 남성만 있는 모임(예. 조기축구 등)보다 재미있다	11.25	0.96	1.65
39. 취미가 같은 사람과 친해지면서 관계로 인해 일상의 감사와 행복을 느낀다	10.75	1.26	1.64
01. 나는 어떤 활동이든지 한 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지속하며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편이다	10.75	0.96	1.53
18.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일에 대한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10.75	0.96	1.43
62.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을 쏟아보고 싶다	9.50	4.43	1.33
02.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모임의 성격이 변하는 것 같다(예: 풍물동아리가 봉사활동을 함)	9.50	1.91	1.26
33.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가활동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9.00	2.94	1.17

8) 요인 4 하위유형: 단체부적응형

단체부적응형은 남아도는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떠한 활동이든 하고자 한다. 이들에게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죽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단체부적응형의 활동반경은 때로는 자신의 가치나 기호 등을 무시한 채 무작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명확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을 때 단체부적응형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혼자서 영

화보기, 드라마 보기 등의 활동으로 여가생활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서 이들은 이전에는 재미와 흥미를 주던 활동이 시간 죽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과 다른 새로운 활동들을 탐색해 나간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관련 사이트에 소감문을 올리기도 하면서 이전의 활동을 변형해 나간다.

그러나 활동에 익숙해지면 그 활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찾던 중에 자신의 원래 기호에는 맞지 않는 단체활동도 시작하게 된다. 이들은 은퇴를 사회적 역할 상실이라고 여기며 사람들에게 내놓을 명함이 없이는 모임에 나가기를 꺼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잉여 시간을 쾌감을 주는 활동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단체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는 선택사항이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떤 모임에 소속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들은 특정 모임에 소속되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원활하게 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노력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도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활동의 적극성은 견딜 수 없는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쾌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싫증을 쉽게 느낀다. 이들은 즐거움을 대신할 관계에서의 친밀감이나 유대감, 소속감을 경험하기 어렵다.

〈표 4-12〉 요인 4 하위유형: 단체부적응형 대표문항

문항	평균	표준편차	z-core 절대치
23. 나는 남아도는 시간 무엇을 하며 보낼까를 생각하는 것이 괴롭다	1.25	0.50	2.34
24.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 같다	2.50	2.38	1.82
12. 나는 운동을 하면서 화와 폭력성을 기분좋게 분출한다	2.75	1.50	1.71
17. 동창회 가면 부자인 친구들이 술 값도 먼저 계산하겠다고 하니 나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다	3.25	2.06	1.69
60.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더 좋다	3.25	1.71	1.67
34. 직장 다니는 자녀를 위해 손자녀를 돌봐주는 일도 나의 여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3.75	4.27	1.61
3. 아내와 나는 봉사활동, 운동동호회 등에 참여하지만 각자 다른 모임 나가는 게 행동의 제약이 없어서 좋다	3.75	2.22	1.55
44.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소감을 관련 사이트에 올린다	3.75	1.50	1.43
19. 사람들에게 내놓을 명함이 없이는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다	4.25	2.06	1.29
67. 승리의 쾌감 때문에 프로스포츠경기를 좋아한다	4.00	1.63	1.26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체부적응형의 노력은 매번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지속성은 낮다. 정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찾아서 삶의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가활동도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단체부적응형이 원하는 만족감을 주지는 못한다. 이들에게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은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했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잡다한 일로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자신의 생활을 비하하여 표현한 것에 가깝다. 단체부적응형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성인자녀를 위해 손자녀를 돌봐 주는 일이 자신이 퇴직 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일들보다 보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새로운 활동에 대한 쾌감 추구 매우 광범위한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여가생활을 어렵게 한다.

라. 세부유형별 비교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에 대한 인식유형은 퇴직에 대한 태도를 근간으로 하여 사회역할(요인 1), 경제력(요인 2), 가족관계(요인 3), 소속감(요인 4)에 대한 인식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여 8개의 서로 다른 인식유형을 형성하게 한다.

먼저 요인 1에 해당하는 사회역할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회역할 탐색형과 은둔자형으로 구분된다. 두 유형 모두 중년기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전자는 생애주된일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전 수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새로운 역할을 추구해 나가는 유형이다. 사회역할 탐색형은 일과 전혀 다른 속성의 여가활동으로 자원봉사나 공익형 일자리와 같은 새로운 활동을 탐색한다. 반면에 은둔자형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원하고 그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스레 은둔자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요인 2로는 경제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일중심형과 여가적응형으로 구분하였다. 요인 2에 속하는 사람들은 은퇴 후 경제적 위기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일중심형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퇴직 후에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일 중심의 생활양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여가활동이라 생각하며 퇴직 이후 즉각적으로 소일거리를 찾는다.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벌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게 되면 여가활동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한편, 여가적응형은 은퇴와 동시에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이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가에 몰입한다. 이들은 신상품을 쇼핑하듯이 새롭거나 고

상해 보이는 여가활동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요인 3으로는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부활동형과 개인적 여가추구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부부활동형은 현재까지 가족중심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지속해 나가는 유형이다. 특히 부부활동형은 은퇴 이후에는 무엇보다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주된 과업이라 생각한다. 결국 이들은 부부중심의 여가활동을 통해 상호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반대로 개인적 여가추구형은 은퇴를 기점으로 가족중심의 생활을 철회하고 자신만을 위한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추구한다. 이들은 익숙한 여가활동을 시작으로 점차 새로운 활동을 탐색하며 마치 탐험가적인 태도로 여가생활을 개척해 나간다. 개인적 여가추구형에게 은퇴라는 상실의 경험은 오히려 삶의 태도를 완전히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이들의 시도는 신선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요인 4로는 소속감이 단체활동형과 단체부적응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두 유형은 어떠한 활동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단체활동형은 혼자하는 활동보다는 집단 소속되어 그 단체에서 만나는 사람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그 집단의 구성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활동도 그들과 공유하기를 원한다. 한편, 단체부적응형은 소속감보다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특성을 보인다. 단순한 즐거움을 찾아서 익숙해지면 또 다시 새로운 활동을 찾는 모습이다. 단체부적응형은 일상 속에서 깊은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느낄 수 있는 유대의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4-13〉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별 특성

구분			주요특성
사회역할	행복추구형	사회역할탐색형	-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추구 -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 관심 있는 단체 활동에 적극적, 사교적인 성향 - 자원봉사, 공익형 일자리 등의 생산적 활동을 선호
	상실반응형	은둔자형	- 선호하는 활동에 대한 기준이 명확 - 자신이 원하는 활동과 할 수 있는 활동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여가를 통한 역할탐색이 어려움 - 기호에 맞는 활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집중하나, 그러한 활동을 찾기가 어려움 - 혼자 할 수 있는 활동 선호
경제력	행복추구형	일중심형	- 경제활동 중심으로 살아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음 - 소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기를 원하며, 그런 일이 있다면 여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 여가활동에 대한 지출에 부담을 느낌 - 돈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가활동을 제한 - 업무상 혹은 친구와의 술자리 친교모임 참여
	상실반응형	여가적응형	-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확인 - 다양한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신상품을 쇼핑하듯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변화함 -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낌 - 모임에서 존재감을 상실했을 경우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 - 각종 토론 모임, 운동 등 다채로운 단체 활동에 참여
가족관계	행복추구형	부부활동형	- 못 이룬 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으나 실제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은 어려움 - 어떤 여가활동을 하는가보다 퇴직 후 배우자와의 질 좋은 관계 형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여김 -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주력하는 경향
	상실반응형	개인적 여가 추구형	- 가족중심의 삶에서 탈피하여 자신만을 위한 자유로운 여가활동 추구 - 탐험가적인 자세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여가활동을 찾고, 배우고, 즐김 - 여러 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음 - 단체활동에서 관계에 몰두하지는 않음 - 관심이 가고 새로운 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여가로 즐기며, 다채로운 여가 경험

구분			주요특성
소속감	행복추구형	단체활동형	- 자신의 기호에 맞는 여가활동을 하되, 집단에 소속되어 참여 선호 - 일상생활 중 여가활동을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으로 고정시킴 - 소속된 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활동으로 확장해 나감. - 친교적인 성향
	상실반응형	단체부적응형	- 남아도는 시간과 일상의 무료함을 견디기 어려움 -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보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라면 가리지 않고 참여함 - 새로 시작한 활동에 익숙해지면 싫증을 잘 느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활동으로 전향함

3. 소결

Q방법론을 적용하여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확인하여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경험하는 남성 중고령자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다면적인 탐색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성 중고령자를 위한 여가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퇴직이라는 인생의 주요 사건을 기점으로 생애전환기를 맞게 되는 남성 중고령자가 성공적인 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퇴직이후의 삶에 대한 안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여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지만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는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은퇴를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여가활동의 양상도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 중고령자를 위한 여가지원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상실을 보완할 만한 다양한 사회참여프로그램, 일 중심의 기업과 사회 전반의 분위기 쇄신,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수립,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지원하는 정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남성 중고령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미비한 가운데 직장생활 중심의 삶을 살아온 세대로서 이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은퇴 준비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은퇴 후 여가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기회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여가생활로 전향할 만한 유형은 사회역할 탐색형, 개인적 여가추구형, 단체활동형, 부부활동형 정도이고, 그 밖의 다른 유형들은 여가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여가중심의 삶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은퇴 준비과정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아진 잉여 시간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실제적인 교육이 부족했던 탓으로 사료된다. 현재의 중고령자들은 압축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세대로 여가보다는 경제활동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코호트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성 중고령자를 위한 여가교육의 도입이 중요하다.

셋째, 남성 중고령자를 타겟으로 한 다양한 여가활동 단체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노년층과는 분리된 활동 공간과 활동 내용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령자 중심의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린 소속감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는 남성 중고령자가 보유한 유능한 인적자원을 공익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획일화된 여가지원 계획보다는 현재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다채로운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노인의 특성별로 위한 다각적인 여가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내의 기존 동호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필요에 따라 새로운 동호회가 조직되는 것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부부 혹은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여가서비스 제공기관 사례조사

본 절은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현황을 공급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 사례기관 선정 및 개요

사례연구 참여기관은 공공영역의 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종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0개 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기관 선정은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논의를 통해 1차적으로 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례참여기관에서 추천한 기관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고령자 개인은 공공영역 또는 민간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영리적 성격이 강한 민간기관도 고려하였지만, 사례연구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설 학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 민간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최종적으로 사례연구기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25)]

중고령자의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종교기관을 포함한 것은 종교가 중고령층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정경희 외, 2013, p.149),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안경제

25) 실제로 일부 민간 문화센터와의 면담을 시도하였지만, 프로그램이 연령대별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별 현황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면담을 실시하지 못함.

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협동조합도 사례연구기관으로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중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우수사례 협동조합[26]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로 중고령자의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형으로 제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최종 분석에는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한편 공공영역의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 등 특수한 목적하에 설립된 경우에는 60세 이상 으로 이용자격요건[27]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과 의 경우, 연령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에 대한 자격요건에 상관없이, 50~60대 중고령자가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종교기관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정경희 외(2010)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중 58.2%가 종교가 있으며, 이중 불교가 가장 많은 26.6%이며 그 다음 개신교 20.7%, 천주교 10.0% 순이기 때문이다. 사례연구기관 유형별 주요 특성이 〈표 4-14〉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사례기관의 지역에 대한 고려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프로그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주로 대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신설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례로 판단되는 곳은 중소도시와 군지역(전주, 순창 등)도 포함하였다. 조사기간은 7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이루어졌다.

---

26)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한 협동조합으로 지역의 사람·환경·문화와 공동체의 되살림을 업사이클링 비즈니스를 통해 조합원 스스로 운영하는 대안기업을 지향하며 2013년 설립됨. 총직원 11명 중 4명이 50~60대, 2명이 70대 이상으로 중고령 직원 채용에 적극적임.

2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 의하면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어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음.

면담은 ① 기관 운영 현황과 특성, ②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형태, ③ 사업 및 프로그램 이용자의 특성과 변화 등을 주요 질문으로 기관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표 4-14〉 여가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및 기관별 주요 특성 요약

유형	기관명	주요특성
연령제한 있는 공공기관 (7)	참여기관 A1	· 후기노인 이용자 많음(70대 이상 78%) · 국내 노인복지관 최초 공식 후원 단체 신설 및 자조 운영 ·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어르신 강사 양성하여 학교 파견 · 정규프로그램에서 발전하여 무용과 악기 등의 공연단 활동중
	참여기관 A2	· 기관 운영 위한 자치회 구성 · 야간 및 주말 복지관 공간 개방(평일 22시, 토요일 18시까지) · 이용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카페·음식점 등 운영
	참여기관 A3	· 후기노인 많음(전체의 약 30% 60대) · 프로그램 이수 후 자원봉사·재능기부로 연계 · 바리스타·도슨트 등 과정 개설 및 기관 내 일자리사업과 연계되기도 함
	참여기관 A4	· 50~64세 중장년층 대상 사회적 참여활동 지원 · 퇴직후 사회참여(커뮤니티, 사회적경제)·사회공헌형 일자리·일자리·교육사업 실시
	참여기관 A5	· 지자체 최초 연구소 · 베이비부머 대상 노후준비를 위한 캠프형 교육 실시(3박4일, 1박2일) · 40대 이상 은퇴이전 중장년층이 주대상이나 실제 참여자는 은퇴 이후 60대가 대부분
	참여기관 A6	· 후기노인 이용자 많음(70대 이상 62%) · 동양 최대 규모 시설(수영장, 골프장) · 프로그램 수 전국 최대(89종 214반) · 재단 정체성 확립중(장애인 등 이용대상 확대 예정)
	참여기관 A7	· 후기노인 많음(평균 연령 75세) · A6과 A7은 동일 재단이며, A6은 실내활동과 프로그램, A7은 화훼와 영농 등 실외활동과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연령제한 없는 공공기관 (7)	참여기관 B1	· 40~60대 이용자 비율 높음 · 직업능력향상교육 중점(40대 위주) · 접근성 고려한 배달강좌 지원 · 재능기부뱅크 및 학습동아리 지원
	참여기관 B2	· 연령제한 없는 기관이나 지역의 높은 노인인구 비중('14 기준 65세 이상 17.06%)때문에 2011년 개관 · 중고령자 이용율 높음(50-60대 47%, 70대 이상 28%)

유형	기관명	주요특성
		· 편의시설(체력단련실, 인터넷실, 도서관) 야간 및 주말운영(평일 20시 30분, 토요일 16시 30분까지)
	참여기관 B3	· 2004년 지자체 노인기능특화복지관 지정 · 복지관 최초 시니어카페 운영 · 주5일제 확산에 따라 2012년부터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지원위해 토요일 프로그램 개설
	참여기관 B4	· 최근 야간강좌 도입(21시 30분까지) · 40~60대 이용자 비율 높음(50-60대 55.9%, 70대 이상 10.3%) · 여성 취업 · 창업을 위한 지원(기본 프로그램 이외에 직종개발과 양성 등)
	참여기관 B5	· 기관 설립 취지에 맞춰 전통문화 강좌 비중 높음(민요, 한국무용 등) · 회원의 약 50%가 50~60대이며 70대 이상 비율도 높음 · 문화나눔봉사단 운영
	참여기관 B6	· 4~5년 전부터 야간 강좌 운영, 주민자치활동 · 초기부터 노인 대상 이외 프로그램 유료화(인근 유사기관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중)
	참여기관 B7	· 야간·주말 강좌 · 기관 접근성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부수적으로 실시 · 중고령자 참여 비율 높음 · 수강료로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지역연계사업 등 비예산 사업으로 이루어짐
종교기관 (6)	참여기관 C1	· 개인수행 중심 · 입문자 체험교육 · 사업 및 프로그램의 상당부분 자원봉사로 운영
	참여기관 C2	· 노인대학 이용연령 70세 이상 · 사업 및 프로그램의 상당부분 자원봉사로 운영 · 북한 관련 자원봉사 특화
	참여기관 C3	· 시니어평생대학 지도자(운영자)를 위한 교육 주기적으로 실시 · 1년 2학기제, 후기노인 중심 · 사업 및 프로그램의 상당부분 자원봉사로 운영
종교기관 (6)	참여기관 C4	· 템플스테이, 불교대학, 경전공부반 등 · 고령자 중심(60~70대 60~70%) · 일요 정기 모임 있으나 참여 자율성 높음 · 사업 및 프로그램의 상당부분 자원봉사로 운영
	참여기관 C5	· 고령층과 분리하여 별도의 중장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베이비부머 세대의 신도 제안으로 기획·운영 중 · 50~60대 대상이지만 60대 다수 · 사업 및 프로그램의 상당부분 자원봉사로 운영
	참여기관 C6	· 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양성(사이버대학 강의 위탁) 및 보수교육(워크숍, 연 1~2회)

2. 연구 사례기관 분석결과

사례기관의 일반현황에 대한 소개는 최소화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연구기관에서 다수의 특성이 포착될 수 있다. 사례기관 분석결과 도출되는 주요 특성은 베이비부머 등 중고령자를 지원대상으로 한 기관의 설립, 연령제한이 있는 공공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역단위 시설공유 및 세대교류를 위한 자원 활용, 직장인 등을 위한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후원·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회참여 및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와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도출되었다.

가. 베이비부머 등 중고령자를 지원대상으로 한 기관의 설립

연령제한이 있는 기존의 공공 여가서비스 제공기간은 주로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중고령자 대상 일부 신규 기관은 기존 기관에 비해 일자리 관련 역할이 상당한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다.

참여기관 A4는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시점에 맞춰 2013년 지자체의 예산지원 하에 개관하였다. 해당 지자체 거주 퇴직 시니어 자원의 특징과 욕구에 맞춰 사회적 참여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퇴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 50~64세가 지원대상이며, 생애 전환점에 필요한 교육, 사회공헌활동, 커뮤니티 활동 지원, 세대 적합형 일자리 발굴 등 크게 4개 영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설립 초기에는 이들의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역점을 두었으나, 사회적으로 베이비부머들의 일자리 요구가 많아

서 현재는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가 강조되고 있다.

참여기관 A5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자체 노화·장수 관련 연구소로서 건강분야를 특화한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전국 40세 이상을 대상이며, 1박2일 또는 3박4일 등 숙박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근 군지역 중고령자 보다는 서울, 부산, 대전 등 도시거주 은퇴자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다.

참여기관 C5에는 모든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니어 아카데미가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참여하는 연령층은 70~80대라는 점에서 50~60대를 위한 프로그램 욕구가 있었다. 이로 인해 9년 전 베이비부머인 신도의 제안으로 50~60대 영시니어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퇴직후 사회적응이 어렵고 낀 세대로서 베이비부머의 어려움을 종교기관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영시니어 아카데미는 2년 4학기제로 운영되며, 신도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조직적인 기획과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연령제한이 있는 공공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역단위 시설공유 및 세대교류를 위한 자원 활용

60세 이상의 자로 연령제한이 있는 공공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더라도 공공시설은 지역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세대에게 개방되는 특성이 엿보였다. 해당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은 법정 운영시간에 이루어지되 그 이외의 시간에 시설을 개방하여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가 있었으며, 기관 자체의 설립목적을 변경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형태도 있었다. 이러한 특성이 포착된 기관은 참여기관 A2와 참여기관 A6, 참여기관 A7이다.

참여기관 A2는 법적으로 60세 이상을 이용대상으로 하지만 '아이부터 노인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마을주민,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여기관 A2의 근무시간 이외-야간, 주말-에는 연령에 제한없이 마을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학교는 마을의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A2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기관 A2가 위치한 지자체의 인근 8개 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등-을 연계하여 복지서설을 통합관리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기관이 공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종합, 노인, 장애인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되는 것 보다는 수요자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여기관 A6과 A7은 동일한 재단에서 운영되며, 해당 지자체 거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기관 A6는 동양최대 규모의 노인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다. A6은 실내활동과 다양한 여가교육프로그램, A7은 상대적으로 화훼와 영농 등 실외활동과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기관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 노인에서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전반으로 확장하자는 요구에 따라 재단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재단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참여기관 A3의 세대통합캠프, 참여기관 A7의 1·3세대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세대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직장인 등을 위한 주말 · 야간 프로그램 운영

일반적인 기관 운영시간의 프로그램은 주부나 은퇴자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비교적 근로시간이 자유로운 일부 프리랜서의 경우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직장인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간을 다양화하는 특성이 포착되었다. 또는 이미 주말 ·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상당수의 중고령자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참여기관 B3은 2012년 지역의 맞벌이 가정 욕구에 의해 토요일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재도 운영중이다. 2012년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서 주 5일제가 모두 적용되어 어린이집 등도 주5일 운영이 일반화되었지만, 여전히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일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져서 참여기관 B3에서 이들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하였다.

참여기관 B6은 4~5년 전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이 좋아 추가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에서 참여기관 B6은 주택지개발지구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거지역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며, 지역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지방교육청 산하기관인 참여기관 B7은 기관 설립 3년 이후부터 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문화강좌)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과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하는 기관의 특성상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 및 주말강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인문학스터디는 지명도 높은 참여기관 B7의 인문학 브랜드 강좌로 매주 목요일 야간(19:00~21:00)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베이비부머 인생설계아카데미는 비예산 사업으로 4개월 간 주1회 저녁 19:00~21:00 (2시간) 운영되고 있었다.

라. 후원 ·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종교기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형태가 있으며, 보다 고급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욕구를 동아리 활동으로 유도한 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종교기관 내 상당수의 프로그램들은 신도들의 자원봉사 참여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신도들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련 특성이 있는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A1, 참여기관 B2, 참여기관 A3, 참여기관 B5이다. 종교기관은 모든 참여기관인 C1~참여기관 C6이다.

참여기관 A1은 국내 노인복지관 최초로 어르신들의 공식 후원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어르신이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이외에도 어르신 운영 임원진 주도로 정기적인 모금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어르신 강사를 양성하여 학교에 파견하여 세대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규 프로그램에서 발전하여 무용과 악기 등의 공연단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IT봉사단, 안내봉사팀, 레인보우기자팀, 공연팀, 세대교류봉사팀 등 다양한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참여기관 B2는 비교적 최근인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령제한이 없는 기관이지만 지역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점(17%)을 반영하여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수 편성되어 있다. 회원들 중 자원봉사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가령, 탁구교실을 통해 형성된 자조모임은 201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을 진행할 때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자신의 업무 경력을 이용한 재능 기부를 통해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중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영양죽 및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있다.

참여기관 A3은 노인 문화의 발전과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전문복지공간을 표방하며 해당 지자체 지원 하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많은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학습단계를 마치면, 일자리 혹은 봉사, 재능기부 등으로 활용되도록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슨트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용자에게는 지역사회 미술관에서 실버도슨트로 일자리 참여를 연계하고, 바리스타 양성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사회적기업 카페로의 취업 또는 시장형일자리 카페로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화학교, 정보화교육 참여자는 IT봉사단으로 재능나눔 활동을 연계하고, 또래상담프로그램 참여자는 성상담가, 또래지킴이로의 일자리참여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있다.

참여기관 B5는 1994년 설립되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문화활동 증진을 통한 여가문화의 질 향상, 문화적인 노후생활,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기관 B5에는 다양한 문화나눔봉사단이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실버예술단은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각 기관의 전문봉사단이 함께 팀을 이루며 지역행사 및 대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종교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신도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참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신도들의 고령화로 과거 40~50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60대에게 주어지는 특성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종교기관별 차이점도 있어, 불교는 개인수행 중

심의 자율성이 높고 천주교는 상위조직인 교구단위에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개신교는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크며, 대규모 교회는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지고 있다. 그 외에도 참여기관 B3의 시니어 무료 미용 봉사과 문화공연 활동, 참여기관 B4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이 있었다.

마. 사회참여 및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와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중고령자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중고령자가 출자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중고령자의 일자리 참여지원은 소득창출 보다는 사회참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기관 A2의 일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참여기관 A2에 작은 도서관과 카페를 조성하고 공동출자로 해당 지역 1호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28] 현재 이 협동조합은 북카페, 팥죽가게, 두부마을의 총3개 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기관 A3에서 중고령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재취업 또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연계가 활발한 내일행복학교 과정으로 '바리스타, 사서도우미, 도슨트, 들꽃가드닝'이 있다. 또한 참여기관 A3의 시니어카페는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바리스타과정을 이수한 자 중 일부는 면접 등을 걸쳐 시니어카페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참여기관 A3에서는 금년에 어르신들이 대학졸업생처럼 이력서 쓰기와 면접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취업설계 아카데미를 개설하였었다. 취업설계 아카데미는 교육

28) 65세 이상 22명의 조합원의 출자가 이루어짐.

이 핵심이지만 졸업 후 취업 알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개관한 참여기관 B1은 현재 전체 이용자의 44%가 50~60대이며, 30~40대도 40%로 중장년층이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프로그램 운영 특성을 보면, 개관 이후 취미교양 및 건강문화예술과정, 일부 언어과정은 크게 변함이 없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강좌, 수강생과 지역주민의 요구분석을 토대로 직업능력향상교육과정의 부각이 확인되어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참여기관 B3의 시니어카페는 종합사회복지관 중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2008년 노인일자리로 시작된 이 시니어카페는 2011년 일자리사업 지원이 종결된 이후, 자립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다. 현재도 60세 이상 8명이, 하루 2명씩 교대로 6시간 근무하고 있다.

참여기관 B4는 1998년 여성의 능력개발과 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여성의 취·창업지원과 평생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아 65세 이상 대상 무료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50~60대 이용자가 전체의 56% 수준이다. 2014년 가을부터 지역 직장인을 위해 월, 수 6개의 야간강좌를 개설하였으나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정돈전문가, 여성노후설계매니저, 실내정원사, 바른먹거리강사 등의 직종을 개발하여 양성하고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중고령자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례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은퇴전환기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년연장법에 의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년연령은 50대 초반이다. 따라서 은퇴전환기에 놓여있는 50대나 은퇴 직후인 60대를 대상으로 재취업 혹은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은퇴전환기에 있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위한 신규기관 설립은 이미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욕구가 있지만 재정문제로 신설이 어려워 기존기관에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었다.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기관 설립 혹은 기존 기관의 프로그램 이식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고령화시대에 60세 혹은 65세 이상을 모두 노인으로 보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60세에서 90세 이상까지는 30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인세대 내에서도 다양성이 크다.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은 참여목적과 선호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다. 또한 30년의 차이는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 사이가 함께 같은 여가서비스를 받으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이 현재 회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교전통문화가 강한 우리사회 전기노인은 후기노인에 대한 배려가 강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베이비부머를 위한 신규기관이 설립되면, 기존의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중복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이에 대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사례연구 중 2015년 4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참여기관 A4는 50~64세으로 하되,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는 참여기관 A4는 60세 전, 기존의 노인복지관은 60세 이후로 업무를 조정한 바 있다. 신규기관의 설립으로 기존 기관과의 업무마찰 등이 없이 유기적인 협

조체계를 유지하여 중고령자에게 일자리를 포함한 여가서비스가 원활히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마을 혹은 지역 단위에서 공공시설의 공유를 통해 세대교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야간과 주말에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이용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주민의 유대와 세대간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노인복지관 등 연령제한이 있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평일 9:00~18:00까지 이용시간이고, 18:00 이후 유휴공간이며(참여기관 A2), 주민센터 등 연령제한이 없는 기관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중고령자들이 평일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간과 주말시간을 이용한다면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참여기관 B6). 그러나 노인복지관 등 일부기관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예산이 지원되므로 해당 연령집단이 우선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균형있는 삶을 위해 일과 여가는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중고령자를 위한 여가프로그램이 주말 및 야간에 개설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노인들에 비해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은퇴이전 노후설계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말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시 보안과 직원 근무 등 제반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등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기관 B4는 야간강좌를 도입한 이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넷째, 공공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에 중고령자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관련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중고령자들은 최대한 늦게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르며 소득활동을 하고자 한다. 참여기관 A4에 의하면 중고령자의 욕구 내면에는 보수에 대한 기대가 확인되었으며, 참여기관 B2는 '50~60대는 스스로, 또는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층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일을 할 수 있는 한 일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일자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취업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이수 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취업 및 창업과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이수 후 기관에서 연계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강사 등 소득활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일자리 관련 역할 강화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대안적 경제를 통한 중고령자의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일자리 관련 역할은 현재와 같이 소득창출 보다는 사회참여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해외사례

제1절 독일

제2절 프랑스

5 해외사례

제1절 독일

여가정책이라는 용어를 독일어로 표현한다면 Freizeit(여가시간) Politik (정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정책적 용어로서 여가정책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여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여가로서 생활체육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29] 은퇴자 혹은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가정책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령사회 정책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여가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 대상의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들 중 여가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여가정책으로 보고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중고령자 여가정책의 방향, 주정부 차원에서의 활동계획(Aktionsplan) 그리고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노인인구의 급증이라는 인구변화와 맞물려 연방정부가 제시한 노인정책의 전체적인 기조는 활동적인 노년(Aktive im Alter), 노년에 새로운 상(Neue Bilder vom Alter)과 같이 노인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9) 지역사회 내의 시민대학을 통해 제공되는 생활체육이나 문화강의 외에도 독일 사회에서 보편화 되어있는 등록된 협회(e.V: eingetragener Verein)를 통해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음. 등록된 협회란 공익을 위하는 이상적인 목적으로 세워지는 단체의 개념으로 지방법원의 권한을 갖는 협회에 등록하여 설립. 보통 지역사회마다 테니스나 축구와 같이 특정 운동종목이나 비영리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주제의 등록된 협회가 있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중고령자의 생산성을 강조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중고령자가 자신의 직업적·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중요한 미래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 정책의 중요한 결정 근거가 되는 노인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인 제 6차 노인보고서(Altenbericht)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노년상(unterschiedliche Alterbilder in Gesellschaft)이라는 주제로 노년의 실질적인 상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노인의 활동들과 노동시장에서 노인의 잠재력을 다루었다(BMFSFJ, 2013).

1. 연방정부 차원의 은퇴자 및 노인지원정책

노인 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큰 틀에서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은퇴자 및 노인의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정책 담당 주무부서인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노인 관련 심포지엄이나 워크샵을 개최 및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여가정책을 지원한다. 이 장에서는 독일 노인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및 관련 프로젝트를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2010년 연방정부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지원한 프로그램인 '활동적인 노년(Aktiv im Alter)'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여가정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가. 기본 방향[30]

첫째, 노년의 새로운 모습(Neue Bilder vom Alter)을 정립한다. 연방정부는 인구학적 도전이라는 과제 앞에 노인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연한 노인에 대한 선입견은 다양한 인생설계가 가능한 오늘날의 노인의 모습과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노년의 새로운 모습' 운동과 함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우리 시대에 맞는 노년상(Altersbilder)을 장려한다. 우리 시대에 맞는 노년 이미지를 장려하는 것은 '노년의 새로운 모습' 운동의 중심에 서 있으며 새롭고 차별적이고 실제화가 가능한 노년상의 확장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5월 30일 "나이듦을 무엇이라고 하는가(Was heißt schon alt?)"라는 제목으로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주최한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사진과 비디오를 포함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소개하도록 했다.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노년을 새롭게 생각하다 - 노년상(Alter neu denken – Altersbilder)"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작해 노년에 대한 다양한 소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년의 다양한 인생설계가 보편적으로 잘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소개하고 노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노인의 입장에서 노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는 이후 그들의 노년상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도록 고무한다. 실제적인 노년상과 차별성을 가진 노년상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세대간 이해를 위

30)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www.bmfsfj.de/BMFSFJ/Aeltere-Menschen/neue-bilder-vom-alter.html"(2015.5.20)

한 중심 원칙을 형성하고 결국 사회연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둔다. 결국 노년상 프로그램은 노인의 능력과 강점을 강조하고 노년의 새로운 모범상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BMFSFJ, 2011a).

둘째, 활동적인 노년을 위해 운동 및 움직임(Sport und Bewegung)을 지원한다. 노인이 자주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활동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중점적인 관심사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노인의 운동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2012년 연방정부 협력 프로젝트인 독일 올림픽 협정(DOSB: Deutschen Olympischen Sportbundes)의 '활동적이고 건강한(AUF: Aktiv und Fit) 삶'은 연방가족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사람들이 활발한 생활방식과 더 많은 운동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프로젝트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 '활발하고 건강한 삶-노년까지 건강하고 활발하게, 스스로 돌봄'은 고령의 나이에 접어든 노인이나 그들을 돌보는 가족 친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두번째 부분 '활발하고 건강한 삶-성공적인 과도기 이행'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건강스포츠와 피트니스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BMFSFJ, 2011b).

셋째,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하여 노년을 기회로(Alter als Chance) 인식한다. 오늘날 노인들은 결코 경제적·사회적 삶에서 후퇴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동적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세대와 공유하기를 원한다. 정부는 '경험이 미래다(Erfahrung ist Zukunft)'라는 전략 아래 '인생 후반기 교육(Bildung in der zweiten Lebenshälfte)'을 지원하고 있다.

나. '활동적인 노년(Aktiv im Alter)' 프로그램

은퇴자 및 노인들은 사회에서 무언가를 함께 구성하고 함께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활동적인 노년(Aktiv im Alter) 프로그램은 노인의 이러한 욕구를 존중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활동적인 노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 민간 사회복지단체, 노인관련협회는 프로그램의 모범상(Leitbild)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8년 4월 2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중심으로 활동적인 노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BAGSO, 2010). 우선 독일 전역에서 선발된 5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 10월 1일에 처음 시작되었다. 2009년 6월 두 번째 시기에서는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15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장되었다.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노인의 사회참여(Engagement)[31]를 위해 더 나은 조건을 만들고 노인이 함께 구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탐색하고 정기적인 시민공청회를 열어 토론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사회 공동체를 위해 노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 및 변화시키며 노인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내일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돕는다(BMFSFJ, 2007a).

연방정부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주정부에 예산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지역 안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노인 관련 단체들이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한다(BMFSFJ, 2007a).[32]

---

31)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활동임.

활동적인 노년 프로그램은 자율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한다. 또한 시민 사회참여를 위한 기관과 협회는 독자적인 이니시어티브(Eigeninitiative)를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둔다(BMFSFJ, 2007b). 오직 사회에서 현실적인 노년상을 만들고 사회에 만연한 선입견은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 대신 노인의 잠재력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강조한다. 활동적인 노년의 주요 내용[33] 중 여가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부분은 노인의 교육과 예술 활동 지원, 그리고 운동, 건강, 예방의 부분이 있다.

전생애에 걸친 배움은 사회적 삶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은 시민대학(Volkshochschule)에서부터 노인 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령그룹의 다양한 관심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형태와 문화제공자는 사회에서 나이듦과 노년이라는 테마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에 따라 노후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및 움직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활동적인 노년 프로그램은 상호작용의 개념을 토대로 구축되어 전국적

32)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적인 노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단체는 노인독일의 대표적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인 카리타스(Caritas), 디아코니(Diakonie), 독일공동복지협회(Deutscher Paritätischer Wohlfahrtsverband)와 연방네트워크 시민 사회참여(BBE: Bundes netzwerk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독일 기독교 노인노동조합(EKD: Evangelische Arbeitsgemeinschaft für Altenarbeit in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바덴-뷔르템베르크 도시네트워크(Städtenetzwerk Baden-Württemberg) 등이 있음. 그러나 지역마다 상이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협회나 노인조직들이 참여하기도 함.

33) - 활동적인 노년을 위한 인프라 구조의 형성과 발전
- 정치적 참여의 지원
- 주거와 주거환경(Wohnen and Wohnumfeld) 조성
- 교육과 예술활동(Bildung und Kultur) 지원
- 이웃간의 도움과 서비스(Nachbarschaftshilfe und Dienstleistungen) 연결망 조성
- 운동, 건강 그리고 예방(Sport, Gesundheit und Prävention)

으로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강력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각 지자체의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간에 협력한다. 지자체간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작용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센터(zze: Zentrum für zivilgesellschaftliche Entwicklung)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기와 진행과정에서 모든 지자체의 프로그램 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곳에서 참가 지자체는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한 전문정보를 교환하고 각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기의 결과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법, 앞으로의 계획 등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2. 주정부 차원의 중고령자 여가지원정책

가.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라인란트-팔츠 주의 여가와 관련된 정책은 활발하고 건강한 노년, 세대간 유대관계 강화, 노인의 사회참여 강화 부분이다(RLP, 2012).

1) 활발하고 건강한 노년

라인란트-팔츠 주정부는 은퇴자 및 노인의 역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신체적인 활동들을 실행계획의 한 부분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건강과 가동성(可動性)은 노년에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과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임을 밝히면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활발하고 건강한 노년의 형성

- 노인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 고령친화적인 마을 형성 및 도시환경 조성
- 주 공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 대중교통의 존속과 유연성
- 새로운 미디어에 진입할 수 있는 권리

건강진흥센터(LZG: Landeszentrale für Gesundheitsförderung)의 활동 캠페인(Bewegungskampagne)은 주 전역에 걸쳐 건강, 영양섭취, 노년에서의 운동에 대해 실용적인 정보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이는 은퇴한 사람들의 운동을 장려하는 프로젝트이지만 건강 유지의 관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① '노년기 운동(Bewegt im Alter)' 프로젝트는 전국에 걸친 캠페인인 '건강한 영양섭취와 더 많은 움직임을 위한 운동(IN FORM-Deutschlands Initiative für gesunde Ernährung und mehr Bewegung)'의 한 부분이다. 캠페인은 더 많은 움직임을 위해 비싼 운동기구나 운동공간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장려한다.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도구를 이용해 운동기구로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예를 들면 컨디션 조절 훈련으로서 계단 오르내리기, 오전 운동으로 도보로 빵 사러가기, 도심속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 혹은 오전에 샤워할 때 수건을 이용한 체조밴드 사용하기 등이다.

② 상호간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Interaktives Bewegungsspirl)는 2009년 마인쯔 대학(Universität Mainz)과 건강진흥센터의 운동과학 협회(Sportwissenschaftlichen Institut)의 협력으로 도입되었다. 이것은 이동성에 약간의 제약을 받지만 계단이나 자전거를 일상생활 훈련

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요양기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상호간 운동 놀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몸의 움직임 및 운동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한 움직임을 장려한다. '상호간 운동 놀이' 프로그램은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거나 애완동물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등의 직관적인 움직임을 활용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으며 혼자 하는 운동에서부터 작은 그룹에 이르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들로 이루어져있다. 가동성, 근력, 평형감각 유지를 위해 상호작용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임의의 모든 놀이들을 포함한다.

건강진흥센터의 활동캠페인은 지자체, 노인의 대리인과 노인 관련 협회, 전문가집단이 함께 주 전역에서 건강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현장에서 혹은 기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체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통한 질병 예방의 관련성이나 효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출판하기도 한다.

2) 세대간 연대 강화

주정부는 세대간 연대와 상호도움관계를 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관심과 욕구를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 확장된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장려한다. 상호간의 존중, 가치평가, 그리고 노인 세대의 경험과 젊은 세대의 혁신으로부터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여러 세대가 함께 살지 않는 현시대에서 세대간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과 서로 돕고 상호간에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딘하임(Dienheim)[34] 지역사회 연합(Lokales Bündnis) 중의 하나인 사회통합-안내 프로젝트(Intergrationslotsen)에서는 노인을 학생들을 돌보거나 인솔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강사나 어린이집 수업 강사로 활용하기도 한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단체는 1908년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중 하나인 턴클럽(Turnverein)으로 지역사회 내의 초등학교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인은 소정의 활동비를 받기도 한다.

둘째, 협회[35] 및 아동 돌봄공간(Vereine, Kindertagsstätten)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협회들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에게 사회적 삶과 활동, 문화와 전통의 진흥, 세대간 연대의 장려를 위해 중요한 공간이 된다. 지역사회 협회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문화의 다양성 지원을 포함하며, 여러 협회에서 세대간 문화의 다양성을 후원하는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 연대감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개인화와 유연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유동적인 사회에서 변화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고도로 성장한 구조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협회들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조직을 개편하거나 세대간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조직의 재편성을 시도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돌봄공간도 세대간 교류의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몇 개의 돌봄 기관들에서 세대통합 프로젝트는 이미 돌봄과 교육의 고정된 부분으로 도입되었다. 어린이집과 노인 관련기관에서 공동

34) 라인란트-팔츠 주 안에 있는 소규모 지자체 중 하나임.

35) 일반적으로 협회(Verein)란 하나의 뚜렷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이고 비영리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스포츠, 취미생활, 공익 등 다양한 활동을 주제로 만들어짐(우리나라의 동호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독일에서 협회는 취미생활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주제로 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성화 되어있음). 본 절에서 의미하는 협회 또한 일반적 의미의 협회를 말함.

으로 문화 행정 및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실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노인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노인이 공동식사를 하는 일은 이미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아동 돌봄기관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간 공동의 활동(음악감상, 읽기대회, 영화관람 등)을 통해 세대간 교류를 지속하고 다양한 삶의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다.

3) 노인의 사회참여 강화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라인란트-팔츠주 정부는 무엇보다 다음의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주목한다.

- 노인 정책 수립에서 노인 참여 강화
-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발전시킬 기회 획득
- 노인 사회참여의 인정과 가치 개선
- 일생에 걸친 배움 지원

주정부는 노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주 차원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의 지속적인 참여(beteiligung), 시민 사회참여(Engagement)의 새로운 형태를 장려한다. 라인란트-팔츠 주에는 노인 시민참여의 새로운 형태가 많이 존재한다.

첫째, 독서 대부(Lesepaten)[36]로서의 노인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

36) 종교적 의미의 '대부'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만든 이름으로 읽기 캠패인에 참여하는 노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 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오는 캠페인인 '라인란트-팔츠에서의 독서의 즐거움(Leselust in Rheinland-pfalz)'은 주립 도서관 센터(Landesbibliothekszentrum), 문학 사무실 마인쯔(Mainz), 프리드리히-뵈데커-지역(Friedrich-Bödecker-Kreis)의 재단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독서의 즐거움' 캠페인은 독서와 독서능력 고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노인의 참여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독서의 날(Tagen des Lesens)'을 개최하여 노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낭독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노인의 삶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는다.

둘째, 중고령자의 학습 혹은 교육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대학생(Seniorstudierende)이란 마인쯔 요하네스 구텐 베르크 대학(Johannes Gutenberg-Universitat Mainz) 소속 학문적 재교육 센터(ZWW: Zentrum für wissenschaftliche Weiterbildung)의 '50세 이상 대학생(Studieren 50 Plu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가리킨다. '50세 이상 학생'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대학교육 과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학습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문적 재교육 센터장은 노인의 학문적 재교육을 위한 연방공동협회(BAG WIWA: 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wissenschaftliche Weiterbildung Älterer)의 이사로 역임하고 있으며 노인교육을 제공하는 독일의 다른 대학들(Hochschulen)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대 포괄적 교육과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노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과정이 온라인으로 개설되기도 했다.

나. 헤센(Hessen)

헤센주의 노인복지 흐름은 노인정책 전략(Seniorenpolitische Initiative)인 '노인을 새롭게 생각하고-미래를 얻다(Alter neu denken- Zukunft gewinnen)'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노인 정책 전략에서 노인의 여가와 관련된 부분은 노인의 사회참여, 그리고 노년의 건강과 활동성이다.

1) 자발적인 사회참여(Engagement)

중고령자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는 공동체와 자신이 속한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참여는 자신의 삶의 환경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자발적 사회참여는 은퇴로 넘어가는 시기에 일을 하던 일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교량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정부는 '노인과 세대간 도움의 형성을 위한 조정 공간(Koordinierungsstellen für den Ajfbau von Senioren- und Generationenhilfen)' 활동을 지원하였다. 조정 공간(Koordinierungsstellen) 활동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자발적 협회나 기관을 활용하여 만든다. 활동을 통해 노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찾아 사회참여 잠재력을 강화시켜 노인의 활동분야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조정 공간 활동의 일차적인 목적은 노인과 세대간 도움 활성화,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정과 서비스 연결망 구축,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발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조정 공간 활동은 헤센 변호사회(Staatskanzlei), 헤센 사회청(Sozial ministerium) 그리고 주사회참여협회(LandesEhrenamtsagentur)를 통해 지원된다. 각 기관들은 과업에 대한 시작을 위한 워크샵이나 전문적

인 상담, 자격요건 획득과 같은 활동을 지원한다.

2) 노년의 건강과 활동(Bewegungsförderung)

노인 정책 및 건강정책에서 설정하는 과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통해 자주성, 생활 역량, 노년의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다. 노년의 생활 역량은 특히 노인 스스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방과 건강증진은 노인을 위한 활성화된 정책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노인의 활동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을 위한 외부운동기구 활동(Bewegungsparcours)[37] 시험' 모델 프로젝트로서 사회청이 2011년 이후 지원해 온 프로젝트이다. 헤센 주의 운동 연합(Landessportbund Hessen),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담슈타트 대학(Hochschule Darmstadt), 비스바덴 라인-마인 대학(Rhein-Main Wiesbaden)과 두 개의 기업이 함께 테스트 그룹을 통해 건강에 유용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외부운동기구 활동은 일상생활에서의 운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만남의 장소(Treffpunkten)로도 기능한다. 활동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의 움직임 능력 및 안전성의 증진과 활동그룹에서의 만남으로 인한 인적관계 형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활동기구의 사용은 혈액순환 및 가동성(可動性)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운동기구를 활용한 운동이 학문적으로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난 후 두 개 지역에서 2012년에는

37) 외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신체 기능의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노인의 건강함을 개선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짐.

헤센 주 전역으로 확장되었다(HSM, 2013).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에서 외부운동기구 활동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공원과 같은 녹지대를 꼽았다. 특히 노인의 접근성을 위해 노인관련 기관이나 병원과 같은 시설 근처에 있는 녹지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에서는 외부운동기구를 설치할 장소로 지역사회의 중심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대를 선택했다. 또한, 누구나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었다.

프로젝트에서는 운동기구가 설치될 장소뿐만이 아니라 기구 사용 대상자와 기구 사용법 안내표지판, 운동기구의 선택 등에 관한 결정을 전문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한다. 사용자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운동기구가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기구가 설치될 지역의 표적집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적집단에 적합한 운동기구를 최소 5~6개 설치하도록 한다. 운동기구의 종류는 물리치료사나 스포츠 상담가(Sportberater)가 개입하여 다양한 신체부위를 위한 운동기구를 선택하도록 한다. 운동기구의 목적과 사용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설명한 안내문 설치는 DIN 79000[38]가 제시한 규정을 따른다. 운동기구 및 운동기구 안내문 설치는 각 지자체의 건축청(Bauamt)에서 담당한다(HSM, 2013).

두번째는 활동지원을 위한 헤센 센터(Hesseisches Zentrum für Bewegungsförderung) 프로젝트로서 모든 세대의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프로젝트는 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단체들을 연결시키고, 모범이 되는 일상의 운동 증진 프로그램들을 서로 공유하며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HSM, 2011).

---

38) 외부에 설치된 운동기구 - 안전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험 과정에 관한 규정 사항

3. 민간차원의 여가지원 프로그램

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운동연합협회 (Landessportbund Nordrhein-Westfalen)

독일은 각 주마다 운동연합협회가 존재한다. 운동연합협회는 협회가 속한 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운동 관련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본 섹션에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중고령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운동연합회(Landessportbund Nordrhein- Westfalen)와 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의 활기차게 나이 들기(Bewegt Älter werden in NRW)'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운동연합협회는 1947년부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있는 공공복지를 위한 운동기관들의 상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뒤스부르크(Duisburg)[39]에 본부를 두고 있고 주 내의 64개의 협회와 54개의 운동관련 지역연합이 가입되어 있다. 독일의 16개 주에 있는 지역 운동연합협회 중 하나로서 다른 지역 운동연합협회와 마찬가지로 독일 올림픽 운동연합(DOSB)에 속해 있다.[40]

운동연합협회는 비전은 인도주의적인 인간상과 인도주의적인 운동에 대한 이해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공익을 위해 조직된 운동협회들의 대리자로서 자리매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운동연합협회는 가입단체들을 대표하여 주 내의 여타 운동단체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협력관계를 다른 협회들을 위해 일한다(LSB NRW, 2010: 5-6).

---

39)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한 도시

4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운동연합협회 홈페이지'https://www.lsb-nrw.de/lsb-nrw/ueber-den-landessportbund/' 참고(2015. 5. 31)

‘활기차게 나이들기’ 프로그램은 운동협회 시스템하에 다양한 협력조직의 참여와 함께 사회정책적·운동정책적 목적을 이행한다(MFKJKS, 2012). 사회정책적 목적과 관련하여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운동은 중고령자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양식의 한 부분이다. 모든 중고령자는 어느 연령그룹에 속하든, 어떤 사회적 계층이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상관없이 운동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움직임과 건강 그리고 노년의 삶의 질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운동정책적 목적과 관련하여 운동협회들은 노년 세대를 위한 운동 및 움직임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표적집단의 연령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운동협회들은 움직임과 운동, 건강, 개인의 주권, 교제, 세대간 만남, 자발적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협회활동을 통해 개인적 자주성과 사회통합 및 사회참여를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령대에 적합한 운동 훈련을 통해 건강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규칙적이고 나이에 적합한 운동 훈련을 통해 근력, 가동성, 심혈관계 기능을 유지하고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기능의 손상을 가능한 연장시킬 수 있으며, 운동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느 연령대에 진입한 사람을 노인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들의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운동연합협회와 독일 올림픽 운동연합에서는 50세 이상의 사람을 표적집단으로 포함시키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노화과정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확연한 노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노인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서 노인 운동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노인의 연령에 대해 새로운 방향이나 전환

이 필요하다. 또한 50세 이상의 연령대에는 몇몇 종류의 운동은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신 다른 종류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스포츠클럽들과 스포츠 관련 전문가는 새로운 회원을 모집할 기회를 제공한다(LSB NRW, 2012).

기본적으로 '활기차게 나이들기' 프로그램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운동연합협회(LSB)가 주 내의 운동관련 협회들로 하여금 중고령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주 운동연합협회(LSB)가 직접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주 내의 여러 운동 관련 협회들이 주 운동연합협회(LSB)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협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활기차게 나이들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세부 사업 중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체와 정신을 위한 편안한 시간 - 치-볼(Chi-Ball Methode)[41], 조화로운 신체

치 볼(Chi-Ball)을 이용한 운동은 운동연합협회에서 노인 운동 프로그램으로 권장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치 볼 운동은 자연적인 상태와 거리가 먼 형태의 삶을 사는 현대인을 위한 운동이다. 본 프로그램은 치 볼을 이용하여 현대를 살고 있는 노인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의 자연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 볼을 이용한 기본적인 동작은 작은 공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형성하는 것이다. 치 볼을 이용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에어로빅 동작으로부터 온 다양한 동작을 접목시켜 수행하기도 한다.

41) 전통적인 중극의학 원칙에 바탕을 둔 심신 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임.

② 50세 이상을 위한 피트니스 베이직(Fitness-Basic Ü50)

본 프로그램은 주 운동연합협회 소속 중 하나인 게레샤이며(Gerresheimer) 운동협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대적인 피트니스 트레이닝이 프로그램 내용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구력, 힘, 가동성과 같은 신체적인 건강의 유지나 개선이다. 단,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격한 동작들은 배제되며 연령대에 맞는 동작들로 구성되어있다. 프로그램 시작단계에서는 음악과 함께 간단한 에어로빅 동작으로 워밍업하고, 근력운동 이후 이완을 위해 스트레칭을 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쿠비아(Kubia)

쿠비아는 2008년 인구학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가족·아동·청소년·문화·운동청[42]의 지원으로 교육과 문화협회(Institut für Bildung und Kultur)에서 운영하는 노인문화교육센터(Kubia)[43]이다. 쿠비아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문화여가연구, 상담, 자격증관리, 네트워크, 문화여가시설 등에서의 사회적 혁신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과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쿠비아의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증진사업으로 노인들은 노인이라는 부정적인 자의식을 개선하고, 시민들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로 노인교육이나 문화여가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 출판물 발간, 그리고 국내·외국의 문화 활동, 관련 행사에 대한 최신 정보, 문학에 대한 안내 등

42) Ministeriums für Familie · Kinder · Jugend · Kultur und Sport
43) Kompetenzzentrum für Kultur und Bildung im Alter

을 제공하고 있다. 쿠비아의 주제 범위는 노인을 위한 예술적-문화적 중재 활동의 전문화, 세대간 대화 장려, 치매 및 수발 시기의 예술과 문화, 노년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강화, 이주 노인의 문화 활동 참여 등이다.

1) 노인문화여가지원 프로그램

독일에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 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대상 서비스 제공자의 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노화로 인해 문화여가의 혜택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치매노인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치매를 가진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박물관이나 콘선트홀, 도서관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모델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보편화하고 있다. 또한, 치매 노인과 가족들이 함께 오케스트라 공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치매노인을 위한 공연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오케스트라 단원을 교육시키고, 치매노인과 가족이 집중 가능한 연주시간과 곡을 엄선 및 편곡하고, 공연시간을 오후 시간대에 1시간 정도로 조정하는 등의 사전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는 약 2천여개의 성가대(합창단)이 활동 중에 있으며, 성가대원도 고령화가 되면서 고음을 낼 수 없다거나 긴 곡은 소화하기 어렵다는 등의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지휘자나 반주자도 구성원의 연령대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노인에 맞는 악보를 만들고, 지휘자와 단원을 교육시키는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2) 믹스 게스 – 디지털 미디어의 창조적인 활용을 통한 세대간 대화 (mix@ges – Generationenbegegnung durch die kreative Nutzung digitaler Medien)'

'평생 교육' 프로그램 중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프로젝트에 스코틀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슬로베니아 5개 국가의 파트너 협회들이 참여했다.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총 15개의 워크샵이 개최되었고 젊은 참여자들과 노인 참여자들이 함께 미디어 예술가 내지 미디어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 혁신적인 미디어를 제작했다. 아이팟 영화나 비디오 블로그, 오디오 가이드, 디지털 사진 등 새로운 미디어는 함께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에 대해 즐거움을 가지거나 서로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같은 지역의 노인들이 함께 괼링어 센터(Görlinger Zentrum)의 삶에 대해 하나의 블로그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두 세대간의 일상생활의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다. 글과 사진작업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은 "괼링어 센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나의 이웃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어 하는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괼링어 센터에서 나에게 독특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에 접근했다. 글과 사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두 세대의 참가자들은 만남과 토론을 통해 이 질문들을 다루었고 서로의 다른 관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

4. 소결

독일의 문화여가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문화여가정책은 연방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고령자에 대한 문화여가프로그램보다는 은퇴자나 노인을 중심으로 문화여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한 노인연령이 우리나라처럼 만 60세나 만 65세로 명확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중고령자라면 여가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문화여가는 소모임 문화로 연령대에 따른 소모임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취미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소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모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세대간 통합과 친목이 이루어지고, 전문기술과 지식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안에서 소규모의 동호회나 취미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지속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독일의 중고령자 여가지원프로그램으로는 운동지원이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 운동지원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운동기구를 보급함으로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공원이나 하천가를 중심으로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 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시설과 기구를 적절하게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세심한 안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프랑스

1.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문화복지

여가는 프랑스에서도 19세기까지도 일부 계층의 귀족들만 즐기던 전유물이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노동을 위한 휴식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컸다. 이러한 노동중심의 삶에 대해서 프랑스 사회학자 폴 라파그르(Paul Lafargue)는 '게으를 수 있는 권리'(Paul Lafargue, 조형준 역, 2005)라는 저서에서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인간성을 찾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인간이 가진 당연한 자연권으로 강조했다. 라파그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강조하며 게으름, 자유시간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거나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 노동자들이여, 일하고 또 일하라. 사회적 부와 너 자신의 개인적 가난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하고 또 일하라 더 가난해지기 위해. 일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일하라. 그러면 그만큼 더 비참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생산의 헤어 나올 길 없는 법칙이다 (Paul Lafargue, 조형준 역, 게으를 수 있는 권리, 2005, p.60.).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프랑스 국민들의 휴식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놀 곳과 먹을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889년에 관광협회(Syndicat d'initiative)가, 1890년에는 '뚜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가 시작했으며, 1900년에는 미슐랭(Michelin) 가이드가 출판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프랑스

는 여전히 노동중심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은 휴식과 놀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이는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로 인식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1936년 파시즘에 대항하여 탄생했던 인민전선(Le Front populaire)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할 권리와 함께 모든 문화적 즐거움과 모든 예술적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강조했다(김명섭, 1999). 즉 문화가 엘리트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들은 휴식과 여가활동의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1936년에 연간 15일 유급휴가(주당 40시간 노동, Accords Matignon)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치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랑스 사회의 지배계급이었던 귀족이나 부르주아들은 노동자들의 휴식 혹은 여가활동에 대해서 비난을 쏟았고, 프랑스인들 역시 여가활동 혹은 여가생활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시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적 변화가 점차 있었다.

그 후 프랑스는 국민들의 문화접근에 대한 권리를 기존 시민들의 기본권인 교육권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하나의 공공서비스로 1946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공공서비스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목수정, 2007). 1958년 프랑스 수정헌법 전문은 '국가는 정신적, 육제척 상태,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특히 어린이, 부녀자, 중고령 근로자 등에게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건강권, 기초생활보장, 휴식권, 그리고 여가를 보장한다'라고 밝혔다.[44] 불확실한 문화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경제, 사회 발전의 중심에 문화를 두고, 개인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44) http://www.assemblee-nationale.fr/connaissance/constitution.asp(2014년 12월 18일 검색)

위한 주요한 요소로 문화를 간주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해석하고, 중앙정부는 문화가 국가의 자산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을 시행했다.

프랑스의 초기 공공문화정책은 문화는 교육과 똑같은 공공서비스이므로 만인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국민의 결속(cohésion)과 공화국의 영광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민주화(Démocratisation de la culture) 정책을 시행했다. 이 때 프랑스 문화민주화 정책은 프랑스인들에게 교육, 문화에 대한 접근성(l'accès à la culture) 기회의 평등(l'égalité des chances)만을 강조하는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부르디외는 1969년 예술에 대한 사랑(L'amour de l'art)에서 문화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계급간 문화적 격차(distance culturelle)를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부르디외 이외에도 올리비에 도나(Olivier Donnat)는 문화적 거리(distance culturelle)가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무료정책이나 단순한 기회제공만으로는 문화적 거리를 좁히거나 새로운 문화향유자 확대는 어렵다고 지적했다.[45] 또한 오귀스텡 지라르(Augustin Girard)는 가격인하나 무료정책이 문화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보조정책이 이미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 있고, 능력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문시연, 2009). 즉 대중들은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문화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문화나 예술에 대한 흥미 또는 욕구가 있어야 비로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준비가 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문화에 대한 흥미나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 문화민주화 정책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택된 문화유산에 모든 이들이 편하게 접근을 할 수

45) Olivier Donnat, 'Les pratiques culturelles des français à l'ère numérique', la découverte, Minis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09.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문화(permettre pour tous l'accès à la culture)이지만 실제로 모두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일부만 이 정책을 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1981년 출범한 프랑스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rand) 정부에서 자크 랑(Jack Lang) 문화부장관은 문화민주주의(Démocratie culturelle) 문화예술정책을 시행했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민주화와 달리 모두를 위한(Culture for everybody)것이 아니라 모두에 의한(Culture by everyone)(김경욱, 2003) 것이라는 이념 아래 모든 문화 간의 위계질서를 없애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상대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면서 민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자유로운 발달을 중시해서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많이 제시함으로 해서 개인의 문화적 실천(action culturelle)을 다양하게 인정하고자 했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다양한 개인의 문화적 취향을 인정하고, 문화접근기회가 평등하게 제공, 더 나아가 문화참여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개인의 능동적인 문화참여를 지향하는 한편 문화적 계급의 재생산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 즉 문화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자크 리고(Jacques Rigaud, 1995)는 '문화행동은 공화국을 완성시킨다(L'action culturelle doit accomplir la République)'라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차별을 줄이는 것에서 문화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2. 사회적 참여를 통한 여가문화

가. 프랑스 노후문화 특징

프랑스는 1964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 했고, 1979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2,190,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해 초고령 사회(65세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사회)[46]로의 진입을 앞두고 연금·의료 등 사회복지제도를 어떻게 지탱해 나갈 것인지, 경제활동인구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정책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우려를 낳고 있다.[47] 이러한 우려 속에서 프랑스의 인구고령화는 1946년-1975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서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8]

한편 프랑스 노인들은 194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세대간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세대간 분배형 연금(Le système par répartition)을 기초로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 이는 개인이 납부하는 납입금은 자신의 계좌에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세대의 연금으로 지출되고 자신의 연금은 이후 세대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형식이다. 1945년 이전에는 종신저축형연금(Le système de la capitalisation)으로 개인이 자신의 연금계

46) "Estimations de population (résultats arrêtés fin 2014)", http://www.insee.fr/fr/ppp/bases-de-donnees/donnees-detaillees/bilan-demo/pyramide/pyramide.htm?lang=fr&champ=fe(2015년 5월 15일 검색)

47) Anne Marie Guillemard, Jacques Légaré and Pierre Ansart, Entre travail, retraite et vieillesse: Le gradn éacrt (L'Harmattan, 1995) ; Patrice Bourdelais, L'âge de la vieillesse. Histroire du vieillissement de la population (Paris, Éditions Odile Jacob, 1993), pp. 381-387 ; Alain Cotta, Une glorieuse stagnation, (Paris, Éditions Fayard, 2003).

48) "Projections de population à l'horizon 2060: Un tiers de la population âgé de plus de 60 ans", http://www.insee.fr/fr/ffc/ipweb/ip1320/ip1320.pdf (2015년 5월 20일 검색)

좌에 납입금을 쌓아두는 형식으로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연금 또는 일시불 형식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하지만 1940년대 초에 연금재정의 위기로 인해서 1945년 연금 시스템이 바뀌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연금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프랑스 복지정책의 기저에 사회적 연대(solidarité)의 개념을 두고 노인 부양정책을 폭넓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안정적이고 폭넓은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프랑스 노인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프랑스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유럽에서도 가장 낮으며, 평균은퇴연령도 58.4세로 매우 빠르다. 실제로 프랑스의 55~64세 인구의 노동참여율은 38.9%로 유럽 평균 54.6%보다 낮다.[49] 이렇게 낮은 노동시장참여는 1980년대 시행이 되었던 조기퇴직(préretraite)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조기퇴직제도라 함은 노령연금 수급연령(60세)에 이르지 못한 고용자를 대상으로 대체소득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를 말한다. 조기퇴직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대체소득은 노령보험이 아니라 실업보험(국가고용기금에 의한 지원 포함)에서 지급되고 구직 노력도 필요 없다. 이러한 조기퇴직문화로 인해서 프랑스 중고령자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와 '노동 없는' 많은 자유시간을 갖게 된다. 이러한 프랑스 중고령자들의 노년기에 대해서 파리5대학 Anne-Marie Guillemard 명예교수는 저서 『L'age de l'emploi』(2003)에서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사회적 죽음에서 연대적 은퇴'라는 말로 과거의 프랑스 중고령자의 은퇴는 사회적으로 죽음 혹은 사회적 무용지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이들이 사회에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지은정 외, 2013 재인용).

---

49) Le monde, "empoi des seniors: le double discours des employeurs", 27 avril 2010.

나. 프랑스 중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랑스 정부의 중고령자 시간활용과 관련한 정책을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큰 틀을 통해서 보고자 한다. 우선은 중고령자의 자유시간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공급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리시가 제공하고 있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50] 하는 여가 프로그램[51]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52]

1) 시니어 플러스 카드(La Carte Senior +)

파리시는 중고령자의 여가결정권 강화와 여가기회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2010년 2월부터 시니어 플러스 카드(La Carte Senior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카드 소지자는 다양한 스포츠(아쿠아짐, 스트레칭, 태권도, 테니스, 노르딕 워킹 등)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시니어 플러스 카드 프로그램은 파리시의 사회복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 스포츠 활동'과는 완전히 독립된 5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외국인이라도 55세 이상이고 파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스 또는 전기료 고지서 등)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파리의 16개 지역구(arrondissements)에서 17가지 이상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

50) 중고령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예비노인까지 포함해서 55세 이상이면 대부분의 중고령자 대상으로 제공이 되는 프로그램을 신청 할 자격이 주어짐.

51) 파리시청에서 제공하는 중고령자 대상으로 하는 여가프로그램 소개 홈페이지, http://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social-et-solidarites/seniors-a-paris/loisirs-et-citoyennete-185#carte-senior_4 (2015년 7월 4일 검색)

52) 본 연구에서는 파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대부분의 프랑스 지방 정부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시니어 플러스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새롭게 등록을 해야 한다. 2015-2016년 시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즌의 경우 2015년 6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53]

이렇게 신청을 마치면 카드가 우편으로 자택까지 무료로 배달되는데, 다른 이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진이 들어가 있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7월 2일까지 제공이 된다.

각 구마다 제공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장소 및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2015~2016년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가벼운 체조, 격투기, 헬스, 테니스, 노르딕워킹,[54] 태권도, 배드민턴, 태극권, 아쿠아짐, 아쿠아조깅, 골프, 삐땅끄(Pétanque)[55], 요가 등이 모든 수준에 맞추어 제공이 된다.

2015~2016년 Carte Senior +에 등록을 마쳤다면 9월에 발표가 되는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자신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56] 시니어 플러스 카드는 55세 이상 파리에 거주하는 이들만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2016년 시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960년 이전에 태어난 파리에 거주하는 이들이 대상자들이다.

53) 등록가능 날짜는 6월 18일, 6월 25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그리고 10월 1일임. 해당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14시-17시 사이에 가서 등록하면 됨.
54) 스키 폴과 같이 생긴 두 개의 막대를 갖고 걷는 운동
55) 큰 쇠구슬로 하는 프랑스의 놀이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임. 타켓에 구슬을 가까이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56) 신청 서류: 1. 신청서, 2. 증명사진 2장, 3. 주거증명서(전기요금 고지서, 가스요금 고지서, 혹은 유선전화나 인터넷 고지서 등), 4. 최소 3개월 안에 발급이 된 의사의 건강 증명서, 5.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니어 플러스 카드를 사용할 사람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등록도 가능함.

〈표 5-1〉 시니어 플러스 카드 프로그램 예시[1)]

지역	주소	지하철역	활동 종목	날짜/시간
2구	Gymase Jean Dame 17 rue Leopold Bellan	Sentier	가벼운 체조	화요일, 10시-12시, 13시30분-15시
			격투기	토요일, 9시-11시
4구	Espace Blancs Manteaux 48 rue Vielles du Temple	Hôtel de Ville	헬스	목요일, 9시-11시
	Mairie du 4e Place Baudoyer	Saint Paul	노르딕워킹	금요일, 10시-11시 30분
8구	Centre Sportif Beaujon 7 allée Louis de funèd	Monceau	가벼운 체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0시-12시
	Parc Monceau 7 allée Louis de funèd	Monceau	노르딕워킹	수요일, 10-12시
9구	Gymnase Tour d'Auvergne 15thr.de la Tour d'Auvergne	Cadet	가벼운 체조	금요일, 11시30분-13시30분
	TEP Valeyre 24 rue Rochechouart	Cadet	데니스	목요일, 11시30분-13시30분
	Piscine Drigny 18 rue Bochart de Saron	Anvers	아쿠아짐	월요일, 11시30분-13시30분
12구	Salle de sport Bercy 10 Place Léonard Bernstein	Bercy	태권도	목요일, 12시-14시
			탁구	월요일, 12시-13시30분 화요일, 12시-13시
			태극권	금요일, 10-12시
17구	Boulodrome du Châtelet rdv 28 rue André Bréchet	Porte de St Ouen	빼땅끄	금요일, 9시30분-11시
19구	Practice Tandou 13 rue Tandou	Laumière	골프	화요일, 목요일, 14시-16시
20구	Piscine Vallerey 148 Avenue Gambetta	Porte de Lilas	아쿠아조깅	수요일, 12시45분-13시30분 금요일, 16시15분-17시

주: 1) 몇몇 종목들은 10명에서 12명으로 제한
자료: https://api-site.paris.fr/images/74275, 전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곳. 2015년 10월 3일 검색

카드를 소지하게 되면 파리시청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으면 된다. 1년 중에 시니어 플러스 카드 사용은 한 시즌(3개월) 동안만 유효하다. 이에 프로그램을 살펴 본 이후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시즌에 맞춰서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시니어 플러스 카드 소지자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정기적으로 참가를 할 수 있고, 또한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체험을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일 프로그램 시작 15분 전에 가서 매번 카드를 제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제한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시니어 플러스 카드 소지자에 한해서는 추가로 받아준다. 프로그램은 대략 45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나 학생들 방학 시즌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시니어 플러스 카드는 신체활동이 급속히 줄어드는 중고령자들로 하여금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하지만 시니어 플러스 카드는 1년에 3개월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포츠 체험을 하게 해주고 그 효과를 느끼는 중고령자들은 지속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니어 플러스 카드 제도의 도입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공영체육시설이나 공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니어 플러스 카드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파리 평생대학(Université Permanente de Paris)

파리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거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노인들을 위해서 파리 평생대학(Université Permanente de Paris, UPP)을 운영하고 있다. 파리 평생대학은 다양한 수준에서 비슷한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기초가 부족한 이들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이들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컨퍼런스, 아뜰리에, 하이킹(randonnées), 실습,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1년에 봄, 여름, 그리고 가을·겨울 시즌 이렇게 세 차례 제공된다. 대부분의 활동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야외에서 이뤄지는 하이킹이나 문화 체험은 실비 정도의 비용이 청구된다. 파리 평생대학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 파리 시민
- 55세 이상의 조기은퇴자 또는 은퇴자 혹은 장애인(65세 미만인 경우는 은퇴자라는 것을 알려야 함.)
- 최소 3년 이상 파리에 거주한 자

자격요건이 되는 이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센터(Centre d'Action Sociale)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처음 등록하는 사람은 여권과 최소 3년 이상 거주했다는 거주증명서(가스비 청구서 또는 통신비)를 제출해야 한다.

파리 평생대학의 2015년 여름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컨퍼런스는 거의 매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30분)에 걸쳐 파리 중심에 있는 파리5대학 파르배프 대강당(l'amphithéâtre Farabeuf)에서 열린다. 2015년에는 58회의 컨퍼런스가 개최되면 다양한 강사진이 과학, 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 파리 지역의 역사 알아보기, 파리의 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015년 여름시즌에 제공되는 파리의 문화 체험으로 루브르 박물관, 파리 오페라, 코메디 브랑세즈, 국립고문서 박물관, 그리고 프랑스 국립 도서관 등에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역사 팀장인 프레데릭 만프렝(FRÉDÉRIC MANFRIN)

과 함께 진행이 된다. 파리 지역의 역사 알아보기는 대략 3시간 정도 진행이 되며, 1.60유로에서 9.10유로까지 참가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청구가 된다. 그 외에도 3개의 파리박물관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첫 번째 연수 프로그램은 '파리, 중세의 수도(Paris, capitale médiévale)'라는 주제이며, 두 번째 연수 프로그램은 '18세기 파리(Paris au XVIIIe siècle)'이라는 주제, 그리고 세 번째 연수 프로그램은 '파리의 왕과 황제들(Paris des rois et des empereurs)'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 각 연수 프로그램은 8개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최대 20명인 소규모로 진행이 된다. 참가비용은 유료로 9.80유로부터 65.10유로까지 참가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3) 파리 해변(Paris Plages)

파리시는 여름에 바캉스를 떠나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파리 해변(Paris Plages)를 운영한다. 1990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파리여름축제(Paris Quartier d'Été)라는 이름으로 파리의 대부분의 극장과 공연장이 문을 닫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열린다. 이 축제는 '문화다양성'이라는 문화정책의 기조 아래 1990년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Jack Lang)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행사의 초기에는 중앙정부인 문화통신부의 재정지원(약 10억원)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현재는 지자체가 전체 비용의 6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 행사는 여름에 파리의 대부분의 공연장이 문을 닫는 동안 다양한 국제적인 작품을 소개하고, 여름에 휴가를 떠나지 못한 파리 시민들에게 '이동 없는 여행(Voyage immobile)'을 제공하고자 했다.

2015년에 13회를 맞이하는 파리 해변은 5,000톤의 모래를 사용하여

센느 강변을 해변으로 만들어서 파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여름에는 무더위에 지친 파리 시민들을 위해 각 구마다 문화예술공연이 제공된다.[57]

4) 파리 사회복지센터 및 클럽 시니어 (Clubs Seniors)

파리 사회복지센터는 일 년 내내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무료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요금을 받고 제공하고 있으며, 공연(연극, 콘서트, 영화), 미술관 또는 박물관, 센느강 유람선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무료 기회를 일부 제공한다. 한편 4월부터 10월까지 최소한의 요금을 받고, 프랑스 또는 프랑스 이외 유럽 여행 기회도 제공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파리 사회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활동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은 적어도 파리에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파리 시민이거나 60세 이상의 은퇴자(조기은퇴자 포함) 혹은 성인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파리 사회복지센터의 클럽 시니어(Clubs Seniors)는 55세 이상의 조기은퇴자, 은퇴자 또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무료 체험활동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참가비를 받고 아뜰리에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클럽 시니어는 파리 시내 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클럽 시니어에서는 손으로 하는 놀이, 예술활동, 체육활동, 멀티미디어 교육, 문화활동, 건강 클럽, 놀이활동, 은퇴를 잘 즐기기 아뜰리에 그리고 세대 간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

57) 여름축제공식홈페이지 http://www.quartierdete.com/

- 손으로 하는 놀이(Activités manuelles): 나무, 양초, 자수, 인형, 종이공작 등
- 예술활동(Activités artistiques): 디지털 사진, 도자기, 노래, 합창, 주얼리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
- 체육활동(Activités physiques): 기공체조, 요가 등
- 멀티미디어 교육(Activités multimedia): 인터넷 또는 게임 배우기, 인터넷 무료 사용 등
- 문화활동(Activités culturelles):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의 언어학습
- 건강 클럽(Clubs santé): 기억력 놀이,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알려주는 교실 운영, 지역의 의사와 만나 건강과 잘 늙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
- 놀이활동(Activités ludiques): 당구, 체스, 보드게임, 탁구 등
- 은퇴를 잘 즐기기 아뜰리에(Ateliers “bien vivre sa retraite”): 일부 시니어클럽에서만 운영.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문가의 무료 강연(2시간씩 4회)
- 세대 간 활동(Activités intergénérationnelles): 초등학교, 중학교와 교류를 통한 세대통합프로그램 제공

클럽 시니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며, 하루 종일 운영이 되는 곳(clubs Émeraude)과 오후에만 운영이 되는 곳(clubs de proximité)이 있다. 신체적으로 이동성이 높지 않은 노인들에게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 자원봉사 (Devenez bénévole)

파리에는 약 50만명 이상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문화, 스포츠, 학습보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정책은 은퇴자 및 노인의 자유시간을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노인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간을 개인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유용성은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5-2〉 2010년 프랑스의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1)]

나이	참여율
18-24세	21 %
25-34세	25 %
35-44세	34 %
45-54세	39 %
55-64세	38 %
64-74세	37 %
75세 이상	22 %

주: 1) 이 조사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26일 동안 401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이뤄짐.
자료: Ministeres charges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e, DREES-BVA, Enquete sur la vie associative en France en 2010.; 지은정 외(2013),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Ⅰ: 주요국가 시니어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노인인력개발원, p. 128, 재인용.

프랑스 은퇴자 및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58)]

58) 프랑스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관련한 부분은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첫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인들의 존재감을 가족,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후에 겪게 되는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대 갈등을 축소시킬 수 있다.

3. 소결

문화공공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지수를 성공적으로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개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에게 알맞은 선택을 내리도록 공공정책이 돕고 이끌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인의 역량이나 결정방식에서 공공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1958년 프랑스 정부는 수정헌법을 통해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을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문화활동 참여를 증대시키는 문화공공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교육, 문화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프랑스 시민 모두에게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개인들의 기초적인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애주기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공공문화정책을 향유했을 때 이득이 더 많다는 것을 시민 개인이 느끼고, 스스로 문화활동참여를 통해 보다 잘 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이 어

Ⅰ: 주요국가 시니어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중심으로'(지은정 외, 2013)에서 프랑스 부분을 요약·정리함.

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자 노력을 한다. 즉 개인의 문화특질, 다른 표현으로는 개성, 취향, 웰빙, 자기 계발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문화공공정책은 다양한 개인의 문화적 취향을 인정하고, 이러한 취향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을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문화복지 정책이 시사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노후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매우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그 간의 정책들은 한국 시민 특히 중고령자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문화 프로그램 혹은 노인복지관이나 지방문화원과 같은 하드웨어 공급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물론 수요자의 만족도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의 하드웨어 공급이나 천편일률적인 문화여가프로그램의 역할이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문화향유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의 취향, 개성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공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공공문화공간의 확보라기보다는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1980년대 프랑스 정부는 문화민주화 정책에서 문화민주주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실천에 대한 욕구에 따른 공공 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의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이를 통해서 전 국민적인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 프랑스의 문화공공정책이 시사하는 점은 정책의 중심에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문화정책은 하나의 결

과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다다를 수 있는 과정에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여가는 여전히 '소비적'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소비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매우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소비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다. 때문에 은퇴 이후의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판단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은퇴자나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프랑스도 좋다고는 할 수 없다. 프랑스는 매우 안정적인 연금제도 덕분에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은퇴로 찾아오는 자유시간을 여가활동으로 즐기고 활용하는 문화가 매우 강하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시간을 사회적 가치 창출보다는 개인적인 쾌락이나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회는 사회정책의 혜택으로 개인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은퇴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 날로 부담스러워지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사회통합 그리고 은퇴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 혹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함의
제3절 연구의 한계

6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여가 및 근로활동 현황과 일의 특성 변화에 따른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유형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현재 우리나라 여가제공기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생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성공적인 노년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중고령자의 여가특성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전반적인 여가활동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두텁게 존재하는 여가소외계층, 여가활동기반의 취약성, 그리고 일부 역기능적 여가활동참여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가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중고령자는 전체의 88% 정도로 나머지 12%의 중고령자는 휴식이나 TV시청을 제외한 여가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60대 중고령자 10명 중 1명은 여가소외계층으로 직장이나 가사 등으로 인한 시간부족이 가장 큰 제약요인이며, 다음으로 여가비용의 문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여가활동의 내용적, 관계적,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개수는 평균 1.8개이지만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은 '걷기·산책, 등산, 외식, 영화'로 점철되고 있어 여가활동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혼자서만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도 여가활동 참여자의 약 20%에 이르며, 14.5%는 여가활동에 대한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내용의 측면에서는 스포츠 간접관람, 그리고 쇼핑, 외식, 유흥 등과 같은 오락활동은 여가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중고령자는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지준과 엄인숙(2008)의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은 중년과 노인의 우울과 고독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놀이·오락활동은 노인의 우울과 중년층의 고독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은 하고 있지만 여가활동이 반드시 여가만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역기능적인 여가활동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여가활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고, 얼마나 자발적인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생각하는 혹은 원하는 여가활동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여가활동간의 괴리로 인한 결과일수도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여가비용 분석결과, 여가비용지출의 상대적 빈곤계층 및 불평등수준이 높은 집단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에서는 저소득층이 여가비용지출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았지만, 여가비용지출의 불평등도는 중상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고령자가 판단하는 여가활동의 금전적 가치는 7.8만원에서 10.5만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여가특성

은퇴전환기 근로경로와 여가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애주된일자리, 유사생애주된일자리종사자, 가교일자리 종사자 간의 여가활동의 차이나 특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참여자의 여가생활의 가장 큰 제약요건이 '시간부족'인 점과 관련이 있으며, 일-여가 균형의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이 '근로시간'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은퇴전환기에 어떠한 근로 경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일제 근로인지 아니면 시간제 근로인지가 여가생활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여가시간 혹은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종사상 지위로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다는 점이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자의 은퇴전환기적 특성은 성별과 경제활동 참여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집단의 여가력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한 시간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어서 여가비용 지출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제약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간부족 및 여가비용의 제약이 덜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은퇴한 이후 새로운 인생단계로의 전환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여가적응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 및 여성 은퇴자 모두 활동적 여가시간보다는 TV 시청이나 휴식시간이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은퇴기간이 길어져도 변함이 없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성은 은퇴기간이 길어질수록 여가시간보다는 TV시청이나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관계망의 범위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퇴한 여성의 경우, 은퇴한 직후에는 TV 시청이나 휴식시간이 가장 많고, 가사·돌봄시간이 여가시간보다 많지만, 은퇴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사·돌봄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가활동의 다양성과 여가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은퇴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 은퇴자의 여가시간과 여가만족이 증가하는 원인과 증가추세의 지속성 등에 관한 분석은 향후 연구에서 면밀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표 6-1〉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여가특성

구분		특성
평생 비취업		- 대부분 여성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양호
은퇴자	남성	- 근로시간이 휴식이나 TV 시청으로 대체되는 경향 -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자원(관계망) 감소
	여성	- 은퇴 직후 휴식이나 TV시청 시간이 가장 높고, 가사·돌봄시간 비중도 높음 - 은퇴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사·돌봄의 시간은 감소되는 반면, 여가시간은 증가 - 여가활동의 다양성과 여가만족 수준 증가
취업자	시간제 근로자	-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여가시간 확보 가능 - 은퇴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적 - 여가의 질적 수준 높음
	전일제 임금근로자	- 주말을 중심으로 여가활동 참여 - 남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여가수준이 낮음
	전일제 비임금근로자	- 여가시간, 여가다양성, 여가의 일상성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여가생활 수준이 가장 열악함

다음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특성을 근로시간 형태와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별에 관계없이 시간제 근로자의 여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일제 근로

자에 비해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점과 완전히 은퇴한 집단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일제 종사자는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은 높지만, 시간제약으로 인해 여가생활의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비임금근로자의 주중 및 주말 여가시간, 여가의 다양성, 여가의 일상성 등이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유형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은 퇴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를 수용하는 유형은 행복추구의 차원으로 여가를 인식하는 반면, 은퇴를 상실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여가를 상실에 대한 보완이나 도피처로 여기는 특성을 보였다. 은퇴에 긍정 혹은 부정적 인식과 함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경제적 상태, 여가생활에서의 가족관계, 그리고 여가활동 참여행태(소속 여부)에 따라 총 8개의 여가유형이 도출되었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회역할 탐색형과 은둔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역할 탐색형은 은퇴 이후에 생겨난 여가시간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의미있는 활동으로 보내고자 하는 유형인 반면, 은둔자형은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경제상태 혹은 경제력에 따라서는 일중심형과 여가적응형으로 나타났다. 일중심형은 퇴직 이후에도 경제활동 중심의 삶의 방식을 포지하지 못하고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여가적응형은 퇴직을 하나의 상실로 여기

지만 여가생활을 통해 퇴직으로 인한 상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부부활동형과 개인적 여가추구형으로 나타났다. 부부활동형은 은퇴 이후의 생활을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개인적 여가추구형은 은퇴 이후에는 가족 중심의 삶에서 탈피하여 자신만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속감 여부에 따라 단체활동형과 단체부적응형으로 단체활동형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활동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단체나 모임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체부적응형은 은퇴로 인해 남아도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하여 새로운 활동을 찾지만 하나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는 못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본 분석을 통해 남성 중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여가인식이 주로 퇴직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과 여가인식이나 유형과 관련한 네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유형별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적응적 여가유형과 부적응적 여가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1. 중고령자의 여가생활 증진방안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생활은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의 변화도 경

험하지만 가족구성원의 변화도 여가생활의 구조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여가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가활동 참여도와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여가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전체 중고령자의 약 88%는 휴식 중심의 여가활동에서 벗어난 최소한 자신에게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자발적인 여가활동을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노년기 여가가 낮잠이나 TV 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공식화된 것과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현재 중고령자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여가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고령자 여가활동의 중심은 걷기와 등산과 같은 운동이라 할 수 있으나, 운동 참여율은 여가참여자의 약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로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건강이 중고령기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운동을 통한 여가참여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활기차게 나이들기' 프로그램은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전 예방적인 운동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여가활동의 영역이 문화예술, 취미, 학습,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고령자의 여가관계망을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혼자서만 여가활동을 하는 중고령자는 약 20%에 이르고, 가족하고만 여가생활을 하는 중고령자는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혼자 하는 활동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여가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단체나 모임 안에서 여가를 즐기는 집단의 여가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개인이나 가족중

심의 여가생활에서 친구나 단체 중심의 여가활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독일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협회처럼 공익이나 운동, 비영리교육 등의 목적으로 소모임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은퇴 이전의 단체 활동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되어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적 성향과 특성에 맞는 중고령자 대상의 여가활동프로그램 및 여가교육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여가유형은 매우 상이하였으며, 질적 연구에서도 퇴직에 대한 심리적 반응,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에 따라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패턴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 중심의 청소년기와 근로 중심의 청년과 중년기를 보낸 중고령자 대부분은 자신에게 맞는 여가활동이 무엇이며, 어떠한 여가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여가수준을 평가하고 어떠한 여가활동이 적절한지 진단해주는 도구 개발과 자신에게 맞는 여가 활동을 탐색할 수 있는 상담과 여가교육을 통해 여가활동과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중고령자가 참여가능한 여가프로그램과 여가 동호회나 소모임 등에 대한 정보도 축적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여가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고, 온라인을 통한 여가진단과 여가사례 홍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온라인 홍보 혹은 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가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고령자를 위한 부부 또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동구조 특성인 장시간 근로로 인해 가족과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적었으며, 노년기에 가까울수록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나 관계 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나 가족·청소년 서비스 제공기관등을 활용하여 부부나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여가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중고령자도 12%에 이르고 있지만,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 안에서도 여가비용지출에서의 불평등과 여가의 질이 열악한 집단도 발견되었다. 프랑스의 시니어플러스 카드를 우리나라의 여가취약계층에 적용하여 일년 중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역사회내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이나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여가취약계층의 이용이 높은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여가프로그램이나 여가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나 시니어클럽 등은 여가목적이 아닌 일자리나 고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이지만 사업참여자의 대부분은 여가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부가적인 사업영역으로 여가교육이나 여가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중고령자의 여가생활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여가서비스 제공기관 사례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노인이나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50대나 60대를 위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인생이모작센터와 같은 별도의 기관의 설립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여가프로그램이나 여가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가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대학과 연계하여 여가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중고령자 혹은 노인의 여가지원을 위해 전문대학에서 여가문화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1년 수료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직장이 없는 사람에서부터 예술가, 간호사 등과 같은 직장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참가자가 수강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 혹은 지방정부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여가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후준비지원법을 기반으로 한 중고령자의 여가준비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15년 6월에 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노후준비지원법은 노후준비지원센터 및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노년기 진입 이전 세대에 대한 다차원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노후설계는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다양한 영역이 균형 있게 준비되어야 하지만 여가준비 혹은 여가설계의 영역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후준비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가인프라와 서비스가 연계되어 여가참여나 여가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장기적으로는 여가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소 야구나 축구를 즐겨보거나 참여했던 중고령자의 경우, 자신의 여가를 발전시켜 야구나 축구 심판자격을 획득하여 자원봉사자로 초·중·고등학교나 지역사회 경기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여가활동을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가활동을 자아실현이나 지역사회 기여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에서 나타났듯이 자신의 근로경력이나 잉여의 여가시간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형도 발견되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여가 역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향후 여가

향유 계층이 두터워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여가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이타성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고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

2. 은퇴과정에서의 여가증진방안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의 질적 수준이 가장 낮고, 은퇴과정상의 특성에 따라 여가수준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은퇴과정의 다양성을 반영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증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은퇴과정에 따라 그리고 경제활동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여가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근로시간 형태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여가시간과 여가활동 범위 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간제 근로자의 여가력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높고,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여가활용도는 낮으며,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여가수준이 열악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남성은퇴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가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여성은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가수준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성별과 종사상 지위, 직종, 시간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여가프로그램과 지원계획이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일하는 여성 중고령자 및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여가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성근로자에 비해 가사 및 돌봄시간이 월등히 높으며,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가사돌봄시간 제약으로 인한 여가시간 확보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즉, 직장여성의 여가제약 요소는 환경적·시간적 제약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개인적 측면이 아닌 사회제도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김홍설 외, 2015). 그러나 현재의 문화 바우처

및 나눔 사업은 대부분 경제적 소외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화적 소외층까지는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직장 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등 문화적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여가 바우처 및 나눔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경제활동참여자의 여가시간 제약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참여자를 위한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여가 프로그램은 주로 일하지 않는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낮시간과 주중에 집중되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여자의 경우, 주중에는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말, 야간 시간 등을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4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광주간'은 봄·가을 각각 11일간 교통·숙박·광관지 할인과 공공·민간 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 증가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문화관광부 보도자료, 2014.9.2.일자).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생학습 역점사업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를 파견하는 새로운 형태의 '배달강좌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공급중심 프로그램에서 수요중심 프로그램 제공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해 여가활동의 활로를 열어주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은퇴준비프로그램 혹은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된 내용은 전직지원 서비스나 재무설계 서비스가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은퇴 이후의 시간활용에 대한 준비 및 교육과 함께 여가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직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부부나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 내 은퇴준비 혹은 생애

설계프로그램을 제공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별도의 지원이 요구된다. 공공 및 민간의 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활용하거나 찾아가는 여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근로자의 문화여가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지역범위를 도시지역으로 한정함으로서 농촌지역 거주 중고령자의 여가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전반적인 개인의 여가력과 지역적 여가인프라, 그리고 일-여가균형 수준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지역의 문화여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중고령 남성의 여가생활의 제한성도 발견되었으나, 중고령 여성의 여가의 질적 수준이나 시간상의 제한의 문제 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여성의 생활양식에 기반한 조사문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조사에서도 남성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령 여성의 일과 여가 또는 가사활동과 여가 등의 역동성을 반영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여성 중고령자 또는 중고령 근로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양적 및 질적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조건부가치분석과 관련하여 여가활동 가치와 일자리 참여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 제시한 금액의 범위를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금액 범위와 등급 구분은 기존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진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위해서는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여가 및 일자리의 금전적 가치 범위설정을 위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내희(2000).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 한국인권재단 편, 한길사.

강은나 ·맹진영(2011). 실업 장애인의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ICF 분석틀 적용. 장애와 고용, 21(2), pp.103~129.

강은나 ·이민홍(2014).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양시설 외부 관계자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2). pp.133~160.

고명석(2011).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국민연금공단(2011). 2011 국민노후보장패널.

김경욱(2003).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문화경제연구, 6(2), pp.31~53.

김기곤(2011). 한국사회의 문화권 구성과 제도화, 민주주의와 인권, 11(2), pp.207~238.

김명섭(1999). 프랑스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 문화정책논총, 1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김정숙(2012). 한국인의 행복인식 유형.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현정(2014). 맞벌이 가족의 손자녀 양육유형과 가족역동.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흥규(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김희년(2005). 김해지역 노인들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논총, 20(1), pp.41~68.

나항진(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pp.53~70.

남은영 · 최유정(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여가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2), pp.57~84.

노명우(2006). 문화헌장 제정과 문화정책의 과제, 문화과학, 46, pp.220~236.

목수정(2007). 문화민주화, 문화다양성, 지역분권. 문화예술, 2007 겨울 호. pp.96~107.

문시연(2009). 프랑스문화정책 50년: 문화 민주화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pp.283~306.

박순영(2012). 사회과학방법론의 철학적 근거: 사회과학적 연구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행정언어와 질적연구, 3(1), pp.1~20.

박종천(2011). 고령사회 노인여가활동의 지리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4), pp.395~415.

박흥신(2003). 노인여가참여의 제약요인 연구: 안성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경대학교.

방하남 ·신동균 · 이성균 · 한준 · 김지경 · 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지은정 ·원영희 ·김영미 ·김진 ·손동기 ·김현지(2013).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I : 주요국가 시니어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심광현(2003). 문화사회와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양혜원(2013).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김혜인(2012). 2013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차경욱(2004). 여가인식, 활동유형 및 여가제약의 세대 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pp.97~107.

윤소영·윤주·박수정·오세숙·조아미·지현진 등(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동연(2008).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권리를 위한 문화운동.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삼식 ·김재호 ·강은나 ·박수지 ·정경희 ·이윤경 ·이소정 ·염주희 ·이선희 ·배혜원(2013). 성별·생애주기별 노후준비지표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강은나 · 박종서 ·변수정 · 이소영 · 황남희 · 김태일 등(201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성환(2010). 사회권의 법적 성격. 법학논총, 22(2), pp.133~166.

이소정 · 김수봉 · 염지혜 · 박보미 · 최성미(2010). 신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순묵(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정갑영 · 장현섭(1995). 2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방안. 문화정책개발원.

정경희 ·손창균 · 박보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염주희 ·황남희 ·김정석 ·이금룡 ·오신휘(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 강은나 · 김재호 · 선우덕 · 오미애 · 이윤경 등(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명희(2008). 노인여가실태와 과제, 제4회 춘천국제여가심포지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분과 자료집, pp.323~337.

지은정 ·금현섭 · 하세윤(2012). 고령화사회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원영희 ·김영미 ·김진 ·손동기 ·김현지(2013).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I : 주요국가 시니어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열 ·박성오(2009).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착비용 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 대한토목학회, 30(2D), pp.287~293.

최석호(2005). 한국사회와 한국여가: 근대적 대중여가의 형성과 문명화. 한국학술정보(주).

통계청(2010).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_____(2011),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

_____(2012), 2012 고령자통계.

_____(2014),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_____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도 고령사회대책. 정책참고자료.

Anderson, N. (1962) *work and leisure*, Londres.
Arrow, K., Solow, R., Portney, P., Leamer, E., Radner, R., & Schuman, H.(1993).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Brown, W, J., Heesche, K. C., Miller, Y.D. (2009). Life events and changing physical activity patterns in women at different life stage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37, pp.294~305.
Carmichael, F., Duberley, J., & Szmigin, I. (2015). Older women and their participation in exercise and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the double edged sword of work. *Sport in Society*, 18(1), pp. 42~60.
Carson, T., Mitchell. R., Hanemann, M., Kopp, R., Presser, S., & Ruud, P.(1992).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of lost passive use values resulting from the exxon valdez oil spill: A report for the 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of alaska.*
De Coster, M. (1998). *Traité de sociologie du travail.* De Boeck Supérieur.
Degrazia, S. (1962). *Of time, Work, and Leisure,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Dumazedier, J. (1962). *Vers une civilisation des loisirs?*, Seuil.
_____. (1967). *Sociologie empirique du loisir.* Seuil.
_____. (1980). *"Leisure" in D.L. Sills(Eds),* International Encyclopeidia of the Social Sciences.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Fairchild, H. P.(1944). *The Dictionary of Sociology.*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Friedmann. G. (1962). *Travail et loisir, aujourd'hui et demain, extrait de Où va le travail humain ?*, repris dans La sociologie, Paris.

Huber, E. R. (1958). *Zur Problematik des Kulturstaats.* J.C.B.Mohr, 1958. jetzt in: P.

Hill, K. G., White, H. R., Chung, I.,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 Experimental Research*, 24, pp.892~901.

Kaplan, M. (1960). *Leisure in America.* New York, Wiley.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Final report).

Koenker, R. W., & Bassett, G.W. (1978). *Regression quantile. Econometrica*, 46, pp.33~50

Jedidi, K., Ramaswamy, V., & Desarbo, W. S. (1993). A maximum likelihood method for latent class regression involving a censored dependent variable. *Psychometrika*, 58(3), pp.375~394.

Lo, Y., Mendell, N. R.,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pp.767~778.

Neulinger, J.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Illinios: Charles C. Thomas.

Niec, H. (2000). 문화적 권리의 시행을 위한 기초. *유네스코 포럼 제15호 겨울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Nimrod, G. (2007). Expanding, reducing, concentrating and diffusing: Postretirement leisure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Leisure Sciences*, 1, pp.91~111.

Nimrod, G., Janke, M. C., & Kleiber, D. A. (2008). Retirement, act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Israel and the Unites States. *World Leisure Journal,* 50(1), pp.18~32.

Nimrod, G., Janke, M. C., & Kleiber, D. A. (2009). Expending, reducing, concentrating and diffusing: activity patterns of recent reirees in the U.S. *Leisure Sciences*, 31(1), pp.37~52.

McKeown, B. F., & Thomas, D. B. (1988). *Q methodology*.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vol. 66.

Mein, G. K., Shipley, M. J., Hillsdon, M., Ellisoin, G. T. H., Marmot, M. G. (2005). Work, retirement and physical activity: cross-sectional analyses from the Whitehall II study.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5(3), pp.317~322.

OECD(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arker, S. (1972).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Paladin, London.

_____. (1976). *Leisure: The Basis of Leisure.* London: Faber.

Pindyck, R. S. & Rubinfeld, D. C.(2001). Micoeconomics(5th ed.). Rrenctice Hall.

Rojek, C. (1985). *Capitalism and Leisure Theory*. Tavistock.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Slingerland, A. S., van Lenthe, F. J., Jukema, J. W., Kamphuis, C. B. M., Looman, C., Giskes, K., Huisman, M., Narayan, K. M., Mackenbach, J. P., & Brug, J.(2007). Aging, retirement, and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Prospective cohort findings from the GLOBE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logy,* 165(12), pp.1356~1363.

Tunstall, J. (1962). *The Fishermen.* MacGibbon & Kee, London.

Watts, S., & Stenner, P. (2005).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partnership

love: A Q methodolog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1), pp.85~107.

Wittenborn, J. R.(1961). Contributions and current status of Q methodology. *Psychological Bulletin*, 58(2), pp.132~142.

Veblen. T. (1912).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The Macmillan Company.

Verbrugge, L. M. & Jette, A. M. (1994). The disablement proc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8(1). pp.1~14.

〈독일〉

BAGSO. (2010). Memorandum Mitgestalten und Mitentscheiden.

BMFSFJ. (2007a). Gemeinsame Erklaerung Pprogramm “Aktiv im Alter”.

BMFSFJ. (2007b). Programmkonzeption “Aktiv im Alter”.

BMFSFJ. (2008). Alter schafft Neues.

BMFSFJ. (2010). Mitgestalten und Mitentscheiden Das Programm “Aktiv im Alter”.

BMFSFJ. (2011a). Altersbilder im Wandel.

BMFSFJ. (2011b). Kommune gemeinsam gestalten.

BMFSFJ. (2013). 6.Altenbericht.

HSM. (2011). Seniorenpolitische Initiative.

HSM. (2013). Leifaden fuer die Einrichtung von Bewegungsparcours.

LSB NRW. (2012). Programm Bewegt Älter werden in NRW.

LSB NRW. (2010). Leitbild.

MFKJKS. (2012). Bewegt ÄLTER werden in NRW.

MSAGD. (2015). Zusammenland Rheinland Pfalz gut für Generationen.

Rlp. (2012). Landesaktionsplan “Gut Leben im Alter”.

〈프랑스〉

Alain Cotta. (2003). *Une glorieuse stagnation.* Paris, Éditions Fayard.

Guillemard, A. M. (2003). *L'age de l'emploi.* Armadn Colin.

Guillemard, A. M., Légaré. J. & Ansart. P. (1995). *Entre travail.* retraite et vieillesse: Le gradn éacrt, L'Harmattan.

Donnat, O. (2009). *Les partiques culturelles des français à l'ère numérique,* La découvert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Lafargue, P. (2005). 게으를 수 있는 권리(조형준, 역). 새물결. (원서출판 1891)

Ministeres charges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e, DREES-BVA. (2010). *Enquete sur la vie associative en France en 2010.*

Rigaud, J. (1995). *L'exception culturelle . Culture et pouvoir sous la Ve République.* Paris: Grasset.

〈홈페이지〉

게레샤이며(Gerresheimer) 운동협회

http://www.gerresheimer-tv.de/sportangebot/sportstunden/erwachsene/711/

노년상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programm-altersbilder.de/programm/ueber-das-programm-altersbilder.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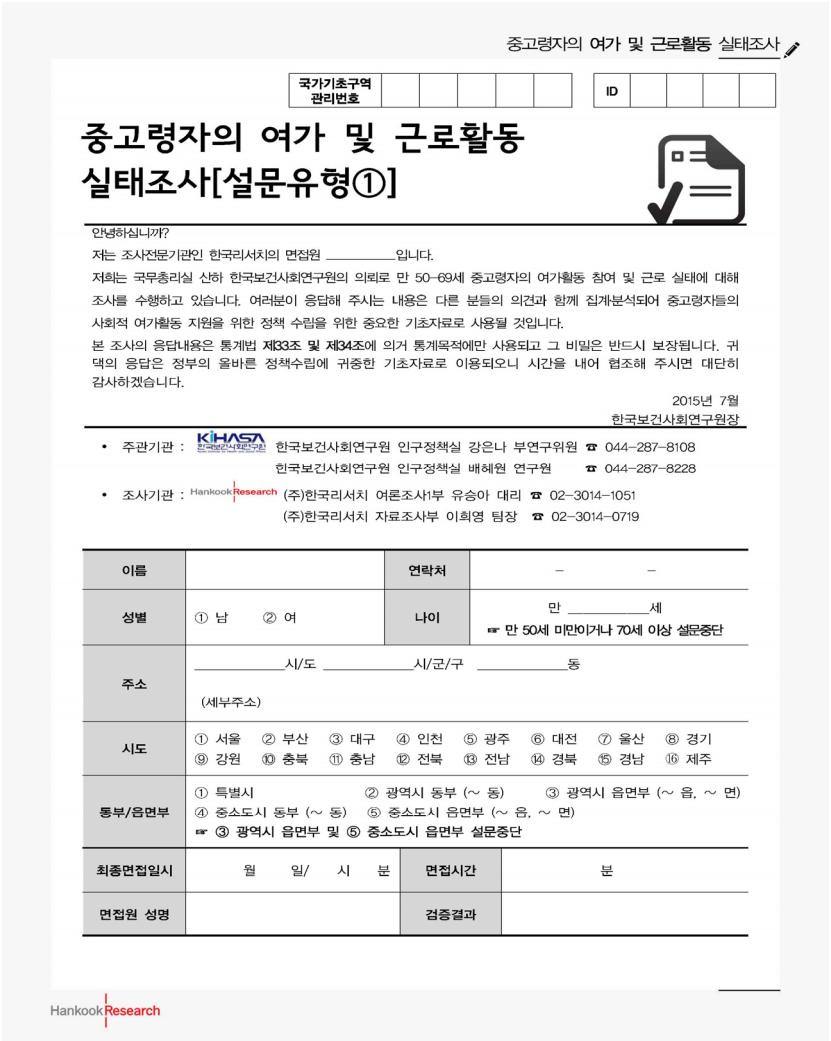
노인조직 연방협회 홈페이지

http://www.bagso.de/aktuelle-mitteilung-auf-der-bagso-homepage/news/vorsitzende-der-bagso-im-gespraech-mit-bundesminister-christian-schmidt.html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운동연합협회 홈페이지
https://www.lsb-nrw.de/lsb-nrw/bewegt-aelter-werden-in-nrw/materialien/
독일 연방 가족 · 노인 · 여성 · 청소년부 홈페이지 http://www.bmfsfj.de/
믹스게스(mix@ges) 홈페이지
http://mixages.eu/?portfolio_33=intergenerational-art-blog
라인란트-팔츠 시청 홈페이지
http://msagd.rlp.de/soziales/gut-leben-im-alter/landesleitstelle/
세대간 블로그 홈페이지 http://www.generationenblog.de/
쿠비아 홈페이지 http://ibk-kubia.de/angebote/projekte/mixages/
헤센 시청 홈페이지
https://soziales.hessen.de/familie-soziales/senioren/seniorenpolitische-initiative/leitfaden-bewegungsparcours

부 록

부록1 . 중고령자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조사 조사표[59)60)]



중고령자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조사

국가기초구역 관리번호							ID					

중고령자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조사[설문유형①]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만 50-69세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참여 및 근로 실태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중고령자들의 사회적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주관기관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강은나 부연구위원 ☎ 044-287-81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배혜원 연구원 ☎ 044-287-8228
- 조사기관 : Hankook Research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1부 유승아 대리 ☎ 02-3014-1051
  (주)한국리서치 자료조사부 이희영 팀장 ☎ 02-3014-0719

이름		연락처	- -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만 _____세 ☞ 만 50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 설문중단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 (세부주소)		
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동부/읍면부	① 특별시 ② 광역시 동부 (~ 동) ③ 광역시 읍면부 (~ 읍, ~ 면) ④ 중소도시 동부 (~ 동) ⑤ 중소도시 읍면부 (~ 읍, ~ 면) ☞ ③ 광역시 읍면부 및 ⑤ 중소도시 읍면부 설문중단		
최종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분
면접원 성명		검증결과	

Hankook Research

59) 설문지의 2페이지는 공란인 관계로 첨부하지 않음.

60) 설문지의 10페이지 '여가활동의 가치' 영역에 제시된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설문지는 10종의로 나눠지나, 지면의 한계로 설문유형 ①만을 첨부함.

A. 여가활동

◕ 여가 인식과 상황

문1. 귀하의 삶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가활동이란 근로활동이나 일상적인 가사 및 돌봄 활동 등을 제외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행하는 활동으로 TV 보기, 낮잠, 휴식 등의 활동에서부터 문화예술활동, 스포츠 활동, 여행, 학습,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① 매우 중요하다 → 문1-1
② 대체로 중요하다 → 문1-1
③ 보통이다 → 문2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 문2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문2

문1-1. 귀하의 삶에 있어서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생활에 활력이 되므로
②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③ 가족이나 타인과의 관계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④ 지식과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되므로
⑤ 마음의 안정과 휴식에 도움이 되므로
⑥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되므로
⑦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서
⑧ 기타(_____)

문2. 다음은 여가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에게 맞는 휴식방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에게 필요한 여가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평소 자유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 평소에 여가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3-1

문3-1. 귀하가 평소에 여가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① 여가비용의 부족
② 직장, 가사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
③ 피곤해서
④ 여가생활에 대한 정보부족
⑤ 여가를 즐길만한 장소나 시설 부족
⑥ 의지부족
⑦ 여가를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⑧ 기타(_____)

◕ 하루 일과

문4. 귀하께서는 주중 및 주말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평소 활동하시는 하루 일과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시간의 합이 24시간이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코드	분류	세부내용
1	수면	–
2	개인유지	외모와 건강관리 등 개인 유지를 위한 행동 (식사, 개인위생, 이미용, 병원이용 등)
3	가사활동	음식준비, 의류구입 및 정리, 청소,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등
4	가족돌봄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친척 등 돌봄
5	근로활동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
6	종교활동	개인적 종교활동, 종교모임 참가
7	TV 시청	뉴스, 드라마, 예능 등
8	낮잠 및 휴식활동	낮잠, 그냥 쉼 등
9	친교 활동	친구 또는 지인 만남, 모임 등
10	적극적 여가활동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및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학습 및 자기계발활동, 자원봉사활동

문4-1. 주중			
시간대	주중 주요 일과	소요시간	코드

문4-2. 주말			
시간대	주말 주요 일과	소요시간	코드

문4-3. 귀하께서는 귀하의 주중 및 주말 하루 일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만족하시는 정도를 응답해주십시오.

코드	분류	문4-4. 주중 시간 (면접원 기입)	문4-5. 주말 시간 (면접원 기입)	문4-6. 만족도 (문4-4와 문4-5에 기입되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 응답)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수면			①	②	③	④	⑤
2	개인유지			①	②	③	④	⑤
3	가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4	가족돌봄			①	②	③	④	⑤
5	근로활동			①	②	③	④	⑤
6	종교활동			①	②	③	④	⑤
7	TV 시청			①	②	③	④	⑤
8	낮잠 및 휴식활동			①	②	③	④	⑤
9	친교 활동			①	②	③	④	⑤
10	적극적 여가활동			①	②	③	④	⑤
합계		24시간	24시간					

◕ 여가활동 실태

문5. 귀하께서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여가활동에 직접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참여하신 여가활동을 대분류별로 최대 2가지씩 응답해 주십시오. 2가지 활동 중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을 1순위로 응답해주십시오. [보기카드1 제시]

※ 조사원은 보기카드 1의 여가활동 유형을 순서대로 읽어주십시오. 만약,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면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각 영역에서 참여한 적이 있는 활동 최대 2가지 기입합니다.

【여가활동 실태 기입지】

대분류	문5 주요 활동내용 (최대 2가지)		문5-1 활동 목적	문5-2 동반자	문5-3 일상성	문5-4 지속성	문5-5 1회 소요 비용(천원 단위)	문5-6 장소	문5-7 만족도	문5-8 지속 방향
	1순위	2순위								
A.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천원			
B. 문화예술참여							천원			
C. 스포츠 및 관광활동							천원			
D. 취미 · 오락							천원			
E. 학습							천원			
F. 자원봉사							천원			

→ 문5의 주요 활동내용이 모두 0인 경우 문10으로 이동

문5-1. 해당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활의 활력(즐거움과 재미)　② 건강유지
③ 가족이나 타인과의 관계증진　④ 마음의 안정과 휴식
⑤ 자기계발　⑥ 인생의 의미 추구
⑦ 사회에 기여　⑧ 기타(　　)

문5-2. 해당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였습니까?

* 동호회: 취미활동을 주목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든 자조모임 또는 동아리
* 친목단체: 동창회, 계모임 등 사교 목적의 모임
* 종교단체: 공식적인 종교모임(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모임(성경공부, 야유회, 지원봉사활동 등)을 의미함

① 혼자서　② 가족(배우자, 자녀 등 친척 포함)
③ 친구(지인, 연인 포함)　④ 직장동료
⑤ 동호회(스포츠, 연극, 미술 동호회 등)　⑥ 친목단체(동창회, 종친회, 계모임 등)
⑦ 종교단체　⑧ 기타(　　)

문5-3. 해당 여가활동은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① 매일 ② 주 2~3회
③ 주1회 ④ 월 2~3회
⑤ 월1회 ⑥ 두세 달에 1~2회
⑦ 1년에 3~4회

문5-4. 해당 여가활동을 시작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년 이내 ② 1년 ~ 3년 이내
③ 3년 ~ 5년 이내 ④ 5년 ~ 10년 이내
⑤ 10년 이상

문5-5. 해당 여가활동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본인이 사용한 비용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1회** | 백만 | 십만 | 만 | 천 | **천원**

문5-6. 해당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보기카드 2]

■ ☐

문5-7. 해당 여가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5-8. 앞으로 해당 활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속하고 싶으십니까?

① 현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 없다
② 휴식과 안정을 위한 활동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싶다
③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싶다
④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싶다
⑤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싶다
⑥ 지원봉사활동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싶다
⑦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싶다.

문6. (적극적 여가 참여자)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참여한 적이 있는 여가활동 중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카드1]

※ 조사원은 보기카드 1카드를 보여주고, 문5에서 응답한 여가활동을 참조하여 응답하시도록 합니다.

■ **1순위** ☐ ■ **2순위** ☐

중고령자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조사

문7. (적극적 여가 참여자) 귀하께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 친목단체 · 종교단체가 있으십니까? 참여하고 계신다면, 몇 개의 동호회 · 친목단체 · 종교단체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 동호회: 취미활동을 주목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든 자조모임 또는 동아리
* 친목단체: 동창회, 계모임 등 사교 목적의 모임
* 종교단체: 공식적인 종교모임(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모임(성경공부, 야유회, 자원봉사활동 등)을 의미함

① 있다(_____개) → 문7-1　　② 없다 → 문8

문7-1. 동호회 · 친목단체 · 종교단체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활동　② 문화예술 참여 활동
③ 스포츠 활동　④ 여행
⑤ 취미 · 오락활동　⑥ 학습
⑦ 자원봉사활동　⑧ 종교활동

문7-2. 동호회 · 친목단체 · 종교단체 활동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거의 매일(주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1회 정도
④ 월 1~2회　⑤ 3개월에 1~2회　⑥ 1년에 1~2회

문8. (적극적 여가 참여자) 지난 1년간 그만둔 여가활동이 있습니까? 그만둔 여가활동이 있으시다면, 지난 1년간 그만 둔 여가활동은 몇 개입니까? [보기카드1]

① 예 (_____ 개) → 문8-1　　② 아니오 → 문9

문8-1. 그만두신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카드1]

■ □　■ □

문8-2. 여가활동을 그만두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개의 여가활동을 그만둔 경우, 가장 많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시간이 부족해서(경제활동, 자녀부모 돌봄 등)
② 금전적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③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④ 재미가 없어서
⑤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⑥ 교통이 불편해서
⑦ 여가시설 폐쇄 또는 프로그램이 폐깅되어서
⑧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⑨ 기타(_____)

문9. (적극적 여가 참여자) 귀하께서 여가활동을 위해 한 달에 지출하는 평균적인 비용은 얼마입니까? 교통비, 물품구입(의복, 생필품 등) 등은 제외하고 순수한 여가활동에 드는 비용만 응답해 주십시오.

■ 한 달 [백만 | 십만 | 만] 만원

문10.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여가활동을 위해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지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한 달 [백만 | 십만 | 만] 만원

문11. (모든 응답자) 귀하의 전반적인 여가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희망 여가활동

문12.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여가활동을 우선순위대로 3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에서 응답한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제외하고 응답해주십시오. [보기카드1]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문12-1. (모든 응답자) 1순위로 응답한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① 혼자서 ② 가족(배우자, 자녀 등 친척 포함)
③ 친구(지인, 연인 포함) ④ 직장동료
⑤ 동호회(스포츠, 연극, 미술 동호회 등) ⑥ 친목단체(동창회, 종친회, 계모임 등)
⑦ 종교단체 ⑧ 기타( )

문12-2. (모든 응답자) 1순위로 응답한 여가활동을 앞으로 얼마나 자주하고 싶으십니까?

① 매일 ② 주 2~3회
③ 주1회 ④ 월 2~3회
⑤ 월1회 ⑥ 두세 달에 1~2회
⑦ 1년에 3~4회

문12-3. (모든 응답자) 1순위로 응답한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기카드2]

■ ☐

문13.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① 나는 일상 속에서 휴식과 안정을 느끼는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
② 나는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
③ 나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
④ 나는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취미로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
⑤ 나는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
⑥ 나는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
⑦ 나는 제2의 직업을 모색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
⑧ 기타(　　)

◕ 여가활동의 가치

문14. (모든 응답자) 다음은 귀하께서 여가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제]를 읽으신 후, 각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응답해주십시오.

* 여가활동이란 근로활동이나 일상적인 가사 및 돌봄 활동 등을 제외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행하는 활동으로 TV 보기, 낮잠, 휴식 등의 활동에서부터 문화예술활동, 스포츠 활동, 여행, 학습,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전제] 귀하는 본인의 자유로운 시간에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귀하께서 일자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여가활동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문14-1. 귀하께서 여가활동을 하는 시간에 여가활동 대신 일을 한다면, 하루에 1만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여가활동을 하겠다 → 문14-2　② 여가활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겠다 → 문15

문14-2. 만약, 하루 3만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여가활동을 하겠다 → 문14-3　② 여가활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겠다 → 문15

문14-3. 만약, 여가활동을 한다면 한 달에 얼마나 자주 하시겠습니까?

■ 월 [　　] 회

B. 근로활동

문15. 귀하께서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다 → 문16
②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 문16
③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 문24

문16. (현재 및 과거 경제활동 참여자) 귀하는 몇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 ][ ]세

→ 문15의 ① 응답자는 문17-1로, 문15의 ② 응답자는 문 22-1로

◕ 현재 근로활동 참여자

문17.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사하고 계신 일자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주된 일자리로 응답해주십시오.
주된 일자리의 기준은 1.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긴 일이거나 2. 일하는 시간이 같을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일, 3. 일하는 시간과 소득이 같을 경우는 연속해서 일한 기간이 긴 일입니다.

문17-1.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⑦ 농림어업숙련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문17-2. 현재 하고 계시는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

문17-3.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시작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 [ ][ ][ ][ ] 년 [ ][ ]월

문17-4. 현재 하고 계시는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몇 일, 몇 시간 일을 하십니까?

■ 1주 평균 근로일수 [ ] 일

■ 1주 평균 근로시간 [ ] 시간

문17-5. 현재 하고 계시는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전일제 ② 시간제

문17-6. 현재 하고 계시는 일자리의 월평균 근로소득(세후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 월평균 [천만 | 백만 | 십만 | 만] 만원

문17-7. 현재 하고 계시는 일자리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17-8. 현재 하고 계시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8. 다음은 귀하의 전반적인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여가활동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영화나 공연을 본지가 꽤 오래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말에는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일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주말이 재미없고 무료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9. 귀하는 몇 세까지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 [| |] 세

문20. 귀하는 완전히 은퇴하신 이후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21. 귀하의 근로활동 경험에 가까운 항목은 무엇입니까?

* **생애 주된 일자리**: 만 15세 이후 가진 일자리 중에서 근속년수가 가장 긴 일자리 혹은 근속년수가 같다면 소득이 더 많았던 일자리

① 나는 생애주된일자리에서 종사하고 있다 → 문25

② 나는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 문25

③ 나는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 문21-1

문21-1. 생애주된일자리를 그만둔 시점은 언제입니까?

* **생애 주된 일자리**: 만 15세 이후 가진 일자리 중에서 근속년수가 가장 긴 일자리 혹은 근속년수가 같다면 소득이 더 많았던 일자리

■ ☐☐☐☐ 년 ☐☐ 월

문21-2. 생애주된일자리와 비교할 때 현재 일자리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 **생애 주된 일자리**: 만 15세 이후 가진 일자리 중에서 근속년수가 가장 긴 일자리 혹은 근속년수가 같다면 소득이 더 많았던 일자리

구분	크게 줄었다 (50%이상)	조금 줄었다	비슷하다	조금 늘었다	크게 늘었다 (50%이상)
(1)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2) 근로소득	①	②	③	④	⑤

→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중 하나라도 ①크게 줄었다(50%이상)인 경우, 문23으로 이동, 그 외 경우 문25로 이동

◕ 과거 근로활동 참여자

문22. (과거 근로활동 참여자) 귀하께서 마지막으로 종사하셨던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2-1. 가장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두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 [ ][ ][ ][ ] 년 [ ][ ] 월

문22-2. 가장 마지막에 종사하신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⑦ 농림어업숙련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문22-3. 가장 마지막에 종사하신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

문22-4. 가장 마지막에 종사하신 일자리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 종사기간 : [ ][ ] 년 [ ][ ] 개월

문22-5. 가장 마지막에 종사하신 일자리에서 주당 평균 몇 일, 몇 시간 일을 하셨습니까?

■ 1주 평균 근로일수 [ ] 일

■ 1주 평균 근로시간 [ ] 시간

문22-6. 가장 마지막에 종사하신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전일제 ② 시간제

문22-7. 가장 마지막에 종사하신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근로소득(월 평균 세후 근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월평균 [ ][ ][ ][ ] 만원 (천만 백만 십만 만)

문22-8. 가장 마지막에 종사하신 일자리가 생애주된일자리이었습니까?

* **생애 주된 일자리**: 만 15세 이후 가진 일자리 중에서 근속년수가 가장 긴 일자리 혹은 근속년수가 같다면 소득이 더 많았던 일자리

① 예 ② 아니오

문23. (과거 근로활동참여자 및 '근로시간 혹은 근로소득' 이 50% 이상 감소한 일자리 종사자) 귀하께서는 이전 직장 퇴직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다음의 활동에 대한 시간비중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과거 근로활동 참여자의 '이전 직장' : 마지막으로 일했던 일자리
* 현재 근로활동 참여자의 '이전 직장' : 생애 주된 일자리

구분	세부내용
수면	–
개인유지	외모와 건강관리 등 개인 유지를 위한 행동 (식사, 개인위생, 이미용, 병원이용 등)
가사활동	음식준비, 의류구입 및 정리, 청소,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등
가족돌봄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친척 등 돌봄
종교활동	개인적 종교활동, 종교모임 참가
TV 시청	뉴스, 드라마, 예능 등
낮잠 및 휴식활동	낮잠, 그냥 쉼 등
친교 활동	친구 또는 지인 만남, 모임 등
직극직 여가활동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및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학습 및 자기계발활동, 자원봉사활동

구분	퇴직 전과 비교하여 퇴직 후의 시간 비중 변화				
	상당히 감소	감소	변화 없음	증가	상당히 증가
수면	①	②	③	④	⑤
개인유지	①	②	③	④	⑤
가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가족돌봄	①	②	③	④	⑤
종교활동	①	②	③	④	⑤
TV 시청	①	②	③	④	⑤
낮잠 및 휴식 활동	①	②	③	④	⑤
친교활동	①	②	③	④	⑤
적극적 여가활동	①	②	③	④	⑤

→ 과거 경제활동 참여자(문15의 ②응답자)는 응답 후 문 24로 이동
→ 현재 경제활동 참여자(문15의 ①응답자)는 응답 후 문 25로 이동

◕ 현재 근로활동 미참여자

문24. (현재 근로활동 미참여자) 귀하께서는 적당한 일자리가 생기면 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 문24-1
② 아니오 → 문25

문24-1. 귀하는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⓪ 없음
① 취업지원센터(동사무소, 구청, 대한노인회 , 고용센터, 복지관 등) 의뢰
② 개인적 인맥 의뢰
③ 신문, 잡지, 컴퓨터 등 검색
④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자리박람회 참여
⑤ 기타( )

문24-2. 귀하는 몇 세까지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 [ ][ ] 세

C. 일반적 특성

배문1.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중퇴, 수료이신 경우 최종 졸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무학
② 초등학교(보통학교)
③ 중학교(공민학교, 고입검정고시 포함)
④ 고등학교(대입 검정고시 포함)
⑤ 대학교(2-4년제, 기능대학, 구 사범대학교,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포함)
⑥ 대학원(석사 · 박사 학위) 이상

배문2.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유배우(동거/사실혼 포함) ③ 이혼/별거 ④ 사별

배문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⓪ 없음 ① 불교 ② 개신교(기독교)
③ 천주교 ④ 원불교 ⑤ 기타( )

배문4.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않다

배문5. 귀하께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은 몇 개입니까?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없을 경우에는 '0' 으로 기입)

■ **진단 받은 만성질환 총** [ ] **개**

【 만성질환 보기】

순환기	1) 고혈압 2) 뇌졸중(중풍, 뇌경색) 3) 고지혈증 4) 협심증, 심근경색증 5) 기타 심장질환	근골격계	8)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9) 골다공증 10) 요통, 좌골신경통	감각기	16) 만성중이염	기타	25) 빈혈 26) 피부병 27) 우울증 28) 치매 29) 골절,탈골 및 사고 후유증 30) 기타
				암	17) 암 (악성신생물)		
		호흡기계	11) 만성기관지염, 폐기종(COPD) 12) 천식	소화기	18) 위십이지장궤양 19) 간염 20) 간경변		
내분비계	6) 당뇨병 7) 갑상선 질환	감각기	13) 폐결핵, 결핵 14) 백내장 15) 녹내장	요생식기	21) 만성신부전증 22) 전립선비대증 23) 요실금 24) 생식매독 등		

배문6. 귀하의 가구형태는 어떻습니까?

① 독거가구(1인 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
④ 부모+부부+자녀 또는 부부+자녀+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
⑤ 조손가구
⑥ 기타(　　)

배문7. 귀하 가구의 가구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가구원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친척, 군대 간 자녀, 유학 간 자녀 등은 포함하고,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자녀는 포함하지 않음

□□ 명

배문8.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의 활동들을 얼마나 자주하셨습니까?

문항	왕래(연락) 거의 없음	거의 매일(주4회 이상)	일주일에 2~3회 정도	일주일에 1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3개월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해당없음(비동거자녀/친구지인/동호회/친목단체 없음)
(1) 따로 살고 있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와 연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따로 살고 있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와 만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3) 친구 또는 지인과 연락 (전화, 휴대폰, 문자, 이메일, 편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4) 친구 또는 지인과 만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배문9. 귀하의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 세후소득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월 평균 □□□□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배문10. 귀하의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개인 소득은 얼마입니까 ? 세후소득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월 평균 □□□□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배문11. 귀하께서 한 달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은 얼마입니까?

월 □□□□ 백만 십만 만 만원

배문12. 귀하의 가구가 속한 경제적 집단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류층　② 중하류층　③ 중산층　④ 중상류층　⑤ 상류층

배문13. 귀하께서는 현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의료급여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의료급여수급자도 아님

중고령자의 여가 및 근로활동 실태조사

【여가활동 유형】

대분류	구체적인 여가활동 내용
A.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활동	(11) **전시회·박물관 관람** (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12) **공연관람** (연주회, 연극, 뮤지컬, 무용 등) (13) **영화보기** (14) **스포츠 경기 직접 및 간접관람**(TV로 경기 시청, 경기장 방문) (15) **기타**(_____)
B. 문화예술 참여활동	(21) **문예활동** (글쓰기, 문학행사 참여) (22) **음악활동** (악기연주, 노래교실, 합창 등) (23) **미술활동**(서예, 미술교실 등) (24) **무용**(한국무용, 고전무용 등) (25) **기타**(_____)
C. 스포츠 및 관광활동	(31) **구기종목** (축구, 탁구, 베드민턴, 볼링, 당구, 게이트볼 등) (32) **댄스체조** (요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스트레칭 등) (33) **걷기/산책** (34) **등산** (35) **수영** (36) **헬스** (37) **자전거** (38) **관광**(나들이, 여행 등) (39) **기타**(_____)
D. 취미오락 활동	(41) **독서/만화책/종교서적보기** (42) **요리/다도/생활공예** (43) **낚시** (44) **놀이** (바둑/장기/**고스톱**,컴퓨터 게임 등) (45) **외식** (맛집 탐방 등) (46) **쇼핑** (백화점, 재래시장 등) (47) **유흥** (콜라텍, 음주, 노래방 등) (48) **화초/텃밭 가꾸기** (49) **애완동물 돌보기** (50) **기타**(____)
E. 학습 및 자기계발 활동	(51) **어학** (한글, 영어, 중어, 일어 등) 교육 (52) **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한식요리사 등) 교육 (53) **취업 및 직업교육** (바리스타, 경비, 환경관리원, 배달원, 이력서 작성 등) (54) **정보화 교육** (컴퓨터, 스마트 폰, 카메라 등) (55) **일반 교양교육** (풍수지리, 명심보감, 역사 교실 등) (56) **건강관리(증진) 관련 교육** (수지침, 마사지, 인공호흡 등) (57) **노후 및 미래 관련 교육** (노후설계, 유언 작성, 장례 등 교육) (58) **기타**(_____)
F. 자원봉사 활동	(61) **사회복지 분야** (장애인, 아동, 노인봉사 등) (62) **문화, 체육 분야** (박물관,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 (63) **교통질서** (안전 지킴이, 기초질서 캠페인 등) (64) **환경보호** (환경 정비 활동, 재활용 운동 등) (65) **보건, 의료 분야** (의료봉사, 호스피스 활동 등) (66) **교육 활동** (강의, 방과 후 교실, 도서관 지원 등) (67) **기타**(_____)

【여가활동 장소】

실내 공간	
문화	(11) 문화센터(대형마트, 백화점, 신문사 등) (12) 지방문화원 (13) 공연장, 영화관 (14) 도서관
복지/교육/종교	(15) 주민자치센터 (16) 여성회관 (17) 마을회관/경로당 (18) 사회복지관 (19) 노인복지관(회관) (20) 평생학습관 (21) 청소년문화(체육)센터 (22) 종교 (교회, 성당, 절 등)
오락	(23) 노래방 (24) 목욕탕/찜질방/미용관리실 (25) 오락장(게임방, 카지노 등) (26) 유흥장(클리텍, 카바레 등) (27) 쇼핑몰(백화점, 대형마트 등) (28) 커피숍(카페) (29) 식당(패밀리레스토랑, 주점 등)
체육	(30) 국민(구민)체육센터 (31) 민간스포츠센터(휘트니스센터) (32) 실내 구기종목 체육관(탁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기타	(33) 자신의 집 (34) 타인의 집(친구, 친척, 이웃 등) (35) 위에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실내공간
실외 공간	
체육	(36) 경기장(축구, 야구 등) (37) 학교운동장 (38) 리조트 (39) 골프장
생활권 내 장소	(40) 공원(산책로, 근린공원, 놀이터 등) (41) 하천변 체육공원(한강공원 등) (42) 아파트/집주변 공터 (43) 재래시장
관광 및 체험	(44) 산/삼림욕장 (국립/도립공원,자연공원 포함) (45) 역사문화 유적지(고궁,민속촌 등) (46) 해수욕장, 계곡, 강변, 해변가 (47) 유원지/테마파크 (48) 낚시터 (49) 해외(여행) (50) 기타 유명 관광지(섬, 절 등)
기타	(51) 위에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실외 공간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응답해주신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에 참여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_____(서 명)

부록 2. 남성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분석 관련 표본

〈부표 2-1〉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에 관한 Q표본

연번	진술문
1	나는 어떤 활동이든지 한 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지속하며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편이다
2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모임의 성격도 변하는 것 같다(예: 풍물동아리가 봉사활동을 함)
3	아내와 나는 봉사활동, 운동동호회 등에 참여하지만 각자 다른 모임에 나가는 게 행동의 제약이 없어서 좋다
4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서 행정적인 일(예: 회비관리, 소식전달, 모임공지 등)을 맡긴다
5	젊어서는 부모님 부양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까지 챙겨야 하니 나에게 여가는 사치다
6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아내와 관계만 악화될 뿐, 남자는 놀더라도 집 밖에서 노는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다
7	정기적인 모임 외에도 각종 SNS(예: 카카오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회원들 안부를 주고 받는다
8	종편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다
9	나는 소일로 하는 나의 일이 가장 즐거운 여가활동이다
10	젊어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에 일조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의 여가를 위해 나라의 아까운 돈을 써 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11	아내와 여가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대화 시간이 늘고 아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12	나는 운동을 하면서 화와 폭력성을 기분좋게 분출한다
13	남녀가 섞여 있는 모임(예. 베드민턴, 테니스 등)이 남성만 있는 모임(예. 조기축구 등)보다 재미있다
14	나는 여러 가지의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컨디션에 따라 선택해서 활동한다
15	매달 저축액이 줄고, 대출금을 빨리 갚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일상의 행복을 위해 여가활동을 포기할 수는 없다
16	고등학교 동창들과 추억을 안주삼아 술 한 잔 먹을 때 나는 힐링을 경험한다
17	동창회 가면 부자인 친구들이 술 값도 먼저 계산하겠다고 하니 나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다
18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일에 대한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부표 2-1〉 계속

연번	진술문
19	사람들에게 내놓을 명함이 없이는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다
20	남이 보기에 하찮은 일일지라도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이 들면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겠다
21	사람을 사귀어야겠다 생각이 들면 사람이 모이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편이다
22	나는 단순 친목모임과 공적인 자원봉사 모임의 일정이 겹치면 공적인 자원봉사 모임에 참석하겠다
23	나는 남아도는 시간 무엇을 하며 보낼까를 생각하는 것이 괴롭다
24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 같다
25	연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여가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생활 같다
26	주말 농장에서 키운 열무로 김치를 담가 먹는 일은 일상의 보람이자 기쁨이다
27	자녀들이 부모에게 재미있는 여가활동으로 인도해 주는 것도 효도 중에 중요한 효도다
28	행복의 비결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돈 때문에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쓸 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29	자녀들 출가 후에는 캠핑카를 사서 아내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손자손녀 구경시켜주는 재미로 살고 싶다
30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내를 혼자 둔 것 같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31	퇴직 후 경제활동 없이 여가활동만 하는 것도 지루해서 못할 일이다
32	나이 들어서 여가활동을 잘 하려면 젊어서부터 미리 경험해 두는 것이 좋겠다
33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가활동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34	직장 다니는 자녀를 위해 손자녀를 돌봐주는 일도 나의 여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35	게이트볼 같은 노인적합형 운동은 시시해서 못하겠다
36	열정적으로 몰입하다보면 복잡한 현실을 잊을 수 있어서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37	건강할 때는 역동적인 활동을 여가로 보내고 더 나이들면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으로 여가를 보내고 싶다

〈부표 2-1〉 계속

연번	진술문
38	모임 활동을 오래 하면서 리더그룹에 속했다가 후배들에게 밀려 빠지게 되면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다
39	취미가 같은 사람과 친해지면서 관계로 인해 일상의 감사와 행복을 느낀다
40	여가활동은 잘 하려고 애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욕심을 버리고 즐기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낫다
41	성인이 된 자녀와도 대화의 소재를 찾으려면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2	나는 여가활동 모임에서 건전하지 않은 모습(과잉음주, 성적농담, 부적절한 이성교제 등)을 보면 다시 나가고 싶지 않다
43	여가활동으로 알게 된 지인이 운영하는 곳(병원, 가게 등)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하고 나도 일부러 그곳을 이용한다
44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소감을 관련 사이트에 올린다
45	규칙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46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47	세계의 정치경제 역사 등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과 토론할 때 생기가 느껴져서 좋다
48	배우는 일에 돈을 들이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49	동년배 모임도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50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여가활동으로 지출을 늘이고 싶지는 않다
51	지금까지 익숙했던 활동이 어느 순간 귀찮고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나이에 맞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고 싶다
52	나의 직업과 관련된 일을 퇴직 후에는 여가활동으로 전향해 보고 싶다
53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여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54	분투하여 일할 때보다 여가활동을 즐길 때 나의 성품이 더 온화해 짐을 느낀다

〈부표 2-2〉 남성 중고령자의 여가인식에 관한 P표본 특징

요인	연번	연령	생애주된 직업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여가활동	여가생활 만족도
요인1	2	64	교사	초대졸	유	건강한 편	바둑, 텃밭가꾸기	매우 만족
요인1	3	50	안경사	초대졸	유	매우 건강	친구와 음주	보통
요인1	4	65	소방관	고졸	무	건강한 편	등산, 운동	만족
요인1	5	65	사진사	중졸	유	보통	산책, 자전거, 풍물, 바둑	매우 만족
요인1	7	55	농업	대졸	유	건강한 편	골프	매우 만족
요인1	8	60	회사원	고졸	유	보통	볼링, 등산, 영화관람	만족
요인1	9	60	상업	초등졸	유	건강하지 않은 편	등산	만족
요인1	13	65	농업	중졸	유	건강한편	자전거 타기	보통
요인1	14	67	상업	중졸	유	건강한 편	친구만나기	보통
요인1	19	69	사무직	고졸	유	보통	강변걷기, 등산	만족
요인1	20	60	세탁업	초등졸	유	건강한 편	족구	만족
요인1	22	59	회사원, 자영업	대졸	유	건강한 편	TV시청, 여행	만족
요인1	28	68	공무원	초대졸	유	보통	등산, TV시청, 모임참석	보통
요인1	31	63	회사원	고졸	유	건강한 편	등산, TV시청, 친구만나기	보통
요인1	35	51	강사	대졸	유	건강한 편	족구, 다큐 뉴스 시청, 지인만나기	보통
요인1	36	63	재관설계	고졸	유	건강한 편	없음	보통
요인1	39	69	농업	중졸	유	건강한 편	등산, 수영	만족

〈부표 2-2〉 계속

요인	연번	연령	생애주된 직업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여가활동	여가생활 만족도
요인3	27	55	학원강사	초대졸	유	건강하지 않은 편	TV시청, 친구만나기	보통
요인3	30	67	회사원	대졸	유	건강한 편	골프, 등산	만족
요인3	32	66	시설관리	고졸	유	건강한 편	공원걷기	만족
요인3	34	51	회사원	초대졸	유	건강한 편	친구만나기, 골프, 독서	보통
요인3	38	60	건설업	초등졸	유	건강한편	사진찍기, 운동	만족
요인4	21	62	버스기사	중졸	유	보통	테니스동호회	매우만족
요인4	25	58	회사원	대졸	유	매우건강하지 않음	친구와 술한잔	매우만족
요인4	29	50	IT업계 회사원	초대졸	무	건강한 편	각종 동호회 활동	만족
요인4	40	60	회사원	고졸	유	건강한 편	걷기운동, 등산	보통
요인2	1	69	공무원	초대졸	유	보통	텃밭가꾸기, TV시청	보통
요인2	18	59	기계설비	고졸	유	보통	TV시청, 친구만나기	보통
요인2	33	65	건축물 관리	중졸	유	건강한 편	TV시청, 친구만나기	만족
요인2	37	68	축산업	중졸	유	보통	친구만나기	보통
요인3	6	60	개인 사업	무학	유	보통	공원산책	만족
요인3	10	60	운수업, 목욕탕운영	중졸	유	매우 건강	자전거, 걷기	만족
요인3	11	67	공무원	고졸	유	보통	복지관이용, 바둑, TV시청	보통
요인3	12	54	농사	고졸	유	건강한 편	TV시청, 영화, 인터넷 서핑	보통
요인3	15	54	엔지니어	대졸	유	건강한 편	스포츠, TV시청	보통
요인3	16	54	토목기술자	대졸	유	보통	TV시청, 골프, 친구만나기	만족
요인3	17	51	엔지니어	대졸	유	보통	스포츠관람, 악기배우기	불만족
요인3	23	53	환경기계 제조 판매	대졸	유	건강한 편	등산, 걷기	보통
요인3	24	59	회사원	대졸	유	건강한 편	등산, 음악, 책보기, 여행	만족
요인3	26	59	금융	대졸	유	건강한 편	봉사활동, 독서, 운동, 교육참석	보통

부록 3. 남성중고령자의 여가인식 유형분석 설문지

설 문 지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2.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생애 주된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

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4년제 미만)　(6) 대학교 이상

5.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기혼　(3) 사별/이혼/별거　(4) 기타(무엇:　　)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0) 없음　(1) 불교　(2) 개신교(기독교)
(3) 천주교　(4) 유교　(5) 원불교　(6) 기타

7.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건강하지 않다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다

8. 귀하의 가구형태는 어떻습니까?
(1) 독거 가구　(2) 부부가구　(3) 자녀동거가구
(4) 3세대 이상 가구　(5) 기타(무엇:　　)

9. 귀하의 가구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명)

10.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구체적인 활동이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　　)

11. 귀하께서는 귀하의 전반적인 여가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01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5-02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오영호
연구 2015-03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의료산업 정책과제	김대중
연구 2015-04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	김동진
연구 2015-05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강희정
연구 2015-06	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정영호
연구 2015-07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최정수
연구 2015-08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강신욱
연구 2015-09	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Joned-up Services)공급 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	박세경
연구 2015-10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간 부양 분담방안	김유경
연구 2015-1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현주
연구 2015-12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연구: 스웨덴&프랑스&미국 편	임완섭
연구 2015-13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정해식
연구 2015-14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김현경
연구 2015-15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고제이
연구 2015-16	사회보장재정과 경제 선순환 국제비교연구	유근춘
연구 2015-17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	우해봉
연구 2015-18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평가	신화연
연구 2015-19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경환
연구 2015-20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정홍원
연구 2015-21-01	가족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이삼식
연구 2015-21-02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이소영
연구 2015-21-03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신윤정
연구 2015-21-04	여성노동-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과제	박종서
연구 2015-21-05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III)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오영희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21-06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여가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강은나
연구 2015-21-07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선우덕
연구 2015-21-08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정경희
연구 2015-21-09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	원종욱
연구 2015-21-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류정희
연구 2015-21-11	소셜 빅데이터 기반 저출산 정책 수요 예측	송태민
연구 2015-22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이상영
연구 2015-23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김정선
연구 2015-24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여유진
연구 2015-2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여유진/정해식
연구 2015-26	정책결정자의 사회통합 인식에 관한 연구	김미곤
연구 2015-27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5-28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강혜규
연구 2015-29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5-30-1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김미숙
연구 2015-30-2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전략 구축방안	김정선
연구 2015-3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삼식
연구 2015-32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복지실태	노대명
연구 2015-33	2013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이수형
연구 2015-34	2015년 빈곤통계연보	정은희
연구 2015-35	2015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송태민
연구 2015-36	의료기술 혁신과 의료보장체계의 지속성을 위한 국제동향과 정책과제	박실비아
연구 2015-37	보건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주요국 보건의료산업 육성정책 변화와 동향연구	김대중